

# 서울 미래세대 리포트

꿈과 현실, 그리고 정치의식

변미리 박민진 김진아

Seoul's Future Generation Report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서울 미래세대 리포트

꿈과 현실, 그리고 정치의식

## \ 연구책임

변미리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센터장

## \ 연구진

박민진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연구원  
김진아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 서울 미래세대, 희망적 꿈·현실 고단함 공존 가족영향력 아래 있고 진보적 정치의식 지녀

#### 미래세대 연구,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이해 폭 넓히기 위해 필수

서울의 인구사회영역과 경제영역에서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예측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앞으로 십수 년만 지나면 닥쳐올 초고령사회에서 과연 누가 이들을 부양할 것인지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현재의 젊은 청년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노부모들과 함께 가까이 공존하려고 할 것인가? 서울이 생산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결국 사회 전체의 파이를 어떤 우선순위로 나누느냐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때 세대 간 갈등과 충돌은 정치제도를 통해, 사회제도를 통해 전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서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근간으로서 세대연구는 미래 정책수요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변화는 세대 간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세대의 객관적, 주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세대연구는 세대의 개념·형성과정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

오늘날 세대연구를 둘러싼 논의는 담론수준의 일반론과 칼 만하임의 세대이론에서 출발한 사회문화이론들이 혼재되어 간헐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세대현상을 둘러싸고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 하나는, 오늘날 나타나는 세대현상은 새로운 것으로 지금까지 사회를 분석하는 기본 시각인 계층 문제를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와 대립되는 또 다른 시각은, 오늘날의 세대현상이란 인구 코호트적인 속성을 일부 반영하고는 있지만 특정 연령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자적인 세대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사실 세대를 둘러싼 담론은 정치적 맥락에서 등장했다. 즉, 대통령선거에서 세대 간 선호가 분명히 갈라지는 투표 현상이 고찰되면서 세대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투표현상이 정치지형의 핵심에 있다는 주장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기술 리터러시(literacy)에 의해 ‘세대 차이’가 발생하면서 세대 간 차이점이 확연히 부각되고 이에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한 세대문화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나타났다.

이렇듯 세대연구를 둘러싸고 세대개념과 세대 형성 과정에 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세대론이 우리 사회의 연령 간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중요한 접근법이라는 시각과 세대론이 사회 갈등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론적 세대담론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미래세대 서베이 관점에서 보는 세대이론의 핵심은 세대문제가 제기하는 정치성과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서울의 미래세대가 동일한 세대적 감수성과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세대 내부의 이질성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미래세대, 서울인구의 31.3%… 미혼이 과반수·자산 갈수록 줄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00년대부터 유소년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중장년층인 40, 50대 인구가 1,64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2%를 차지하면서 연령별 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 20~29세는 6,413,83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9%, 30~39세는 7,394,623명으로 14.9%를 차지하여, 미래세대인 20~39세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8%에 해당한다. 서울 역시 중장년 중심의 인구구조가 전국의 인구구조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서울의 20~29세는 1,403,549명(14.7%), 30~39세는 1,591,560명(16.6%)으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3.7% 더 높은 서울인구 전체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미래세대는 다양한 이유로 미혼상태가 절반을 넘고 있는데, 20~24세의 대부분(98.9%)은 미혼, 25~29세 역시 89.1%가 미혼상태이다. 한편 30~34세는 56.1%가 미혼상태로 절반 이상이 미혼이나 35~39세 구간에 이르면 배우자 있음이 63.4%로 미혼 33.7%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미혼, 기혼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가구 특성은 25~29세는 1인가구가 가장 많으나 나머지 연령층은 2세대가구의 특성이 가장 일반적이다.

## 서울 미래세대 68% “내 꿈은 실현가능”… 89% “스트레스 받아”

서울 미래세대의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보면 10명 중 4명 정도가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38.5%는 행복한 상태, 20.6%는 불행한 상태이다. 주관적 행복감이 수치적으로 낮지는 않으나 구성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세대는 자신들은 ‘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는 실현가능하다고 믿고 있다(실현가능성에 대해 68%가 대체로 그럴 거라고 응답함). 서울 미래세대는 자신들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미래세대의 기대감은 사실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는데, 미래세대들은 자신들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35~39세 연령층이,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의 지원을 기대한다.

서울 미래세대의 욕망을 들여다보면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욕망이 내집 마련, 취업, 일 자리에 자리를 내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지만(51.3%),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에 대한 긍정률은 60%,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59%에 달한다. 서울 미래세대 10명 중 9명 정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88.5%)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2015년 기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나타났다. 우리 앞에 놓인 놀라운 현실이다.

##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 성격… 69%는 친구·지인 신뢰 가능

서울 미래세대의 10명 중 6명 이상은 본인 성격이 ‘동정심이 많다, 다정다감하다’(63.4%), ‘신뢰할 수 있다, 자기 절제를 잘 한다’(60.1%) 등 긍정적 성격이 절반을 넘었으며, 반면 절반 정도는 ‘근심 걱정이 많다, 쉽게 흥분하다’(52.3%)고 응답했다. 미래세대가 스스로 긍정적 성격을 가진 집단이라는 인식은 월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600만 원 이상 층에서 70% 내외), 가구원 수가 5명 이상 함께 사는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은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판적이고 논쟁을 좋아한다’라는 자기 성격 인식은 직업이 없거나 고학력 집단에서 절반을 넘는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 미래세대 10명 중 7명은 ‘친구 및 지인을 신뢰할 수 있다’(69.4%)고 하였고, 10명

중 6명은 ‘친구가 나의 학업과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관계 유지가 어렵다’(64.4%)고 생각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협동해서 일하면 보통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49.8%)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편하다’(47.7%)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미래세대는 문제 유형별로 먼저 찾았던 대처 경로에 차이가 있었다. 금전적 문제, 건강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긴급 혹은 재해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찾은 경로가 ‘같이 사는 가족’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각각 51.6%, 48.8%, 45.6%, 38.4%), 감정적, 심리적 문제에서만 ‘친구’를 찾는 비율(44.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미래세대들이 1순위로 선택한 성공한 삶의 모습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40.7%)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2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의 속내에 이중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1% “의사결정에 부모가 영향 끼쳐”… 46% “진보적 정치성향”

서울 미래세대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미래세대는 자신의 고민을 부모님과 공유하는 정도가 31.8%, ‘공유하지 않는다’는 38.8%로 나타났다. 독립기로의 이행기에 있다는 생애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유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세대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미래세대 10명 중 4명 정도(40.9%)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24.5%에 비해 16.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의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 중요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5점 만점),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평균 4.15점)와 ‘외부압력이나 뺨에 의한 영향’(4.15점)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사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4.07점), ‘적용되는 기준의 수시 변화’(3.87점),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의견 미반영’(3.57점), ‘필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음’(3.35점)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미래세대들은 한국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 연고나 배경과 같은 외부 요소들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세대의 정치적 성향은 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45.5%, 매우 진보적 4.0%+다소 진보적 41.5%), 중도적 정치성향이라고 응답한

미래세대는 10명 중 4명 정도인 39.0%로 나타났다. 10명 중 1~2명 정도인 15.5%(다소 보수적 14.1%+매우 보수적 1.4%)는 스스로 보수성향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지형을 서울시민 전체와 비교해 보면 미래세대가 갖는 상대적 진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민 전체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성향은 38.2%, 보수성향은 32.1%, 중도성향은 29.7%이다(2016년 서울서베이 기준). 이들 진보적 성향의 서울 미래세대가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으로 꼽은 것은 '선거 때 항상 투표하는 것'(4.52점, 5점 만점), '탈세하지 않는 것'(4.37점),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키는 것'(4.29점),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보는 것'(4.00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3.9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목차

01 미래세대 서베이란?	2
1_세대연구의 의미	2
2_세대연구 관련 이론적 논의	4
3_미래세대 서베이	16
02 서울 미래세대의 인구경제적 특성	22
1_인구 코호트적 속성	22
2_지역 공간적 특성	33
3_경제·사회적 특성	38
03 서울 미래세대의 행복과 꿈	52
1_미래세대의 행복	52
2_미래세대의 꿈	61
04 서울 미래세대의 마음과 감정	72
1_미래세대의 성격	72
2_미래세대의 문제해결 방식	80
05 서울 미래세대의 관계망과 참여, 정치의식	92
1_기성세대와의 관계	92
2_정치적 참여	100

06 맺음말	114
참고문헌	119
Abstract	120



## 표

[표 1-1] 응답자 특성1	18
[표 1-2] 응답자 특성2	19
[표 2-1] 연령코호트별 전국 인구 분포	22
[표 2-2] 연령코호트별 서울인구 분포	25
[표 2-3] 서울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8
[표 2-4] 서울 미래세대 혼인상태	29
[표 2-5] 서울 미래세대 교육정도	29
[표 2-6] 서울 미래세대 가구구성	30
[표 2-7] 서울 미래세대 경제활동상태	31
[표 2-8] 서울 미래세대 산업분류별 취업인구	32
[표 2-9] 연령별 3대 사망원인	46
[표 2-10] 미래세대 경제사회적 특징	49
[표 3-1] 세대별 행복	52
[표 3-2] 서울 미래세대의 전반적인 행복도	55
[표 3-3] 성/연령/결혼여부에 따른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요소	57
[표 3-4] 성/연령별 스트레스 정도	58
[표 3-5] 스트레스 영향요인(1순위)	60
[표 3-6] 미래에 이루길 원하는 꿈과 실현 가능 정도	63
[표 3-7] 서울 미래세대 배너별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정도	65
[표 3-8] 꿈꾸는 정도	67

[표 4-1] 성격 특성 구분	72
[표 4-2] 성격 특성-비판적/동정심	74
[표 4-3] 성격 특성-자기절제/덤벙덤	74
[표 4-4] 성격 특성-근심걱정/차분함	75
[표 4-5] 성격 특성-개방적/변화를 싫어함	76
[표 4-6] 성격 특성-외향성/내향성	76
[표 4-7] 감정적·심리적 문제의 대처 경로	82
[표 4-8] 건강문제의 대처 경로	84
[표 5-1] 서울 미래세대의 부모님과 고민 공유 여부	93
[표 5-2] 부모님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	94
[표 5-3]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작용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96
[표 5-4] '외부압력이나 뺨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에 대한 동의정도	97
[표 5-5] '의사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98
[표 5-6] '한국사회에서 중요 결정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동의(2014 KGSS)	99
[표 5-7] 미래세대의 정치적 성향	101
[표 5-8] 서울시민의 정치적 성향(2016 서울서베이)	102
[표 5-9]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중요한 것'의 평균	103
[표 5-10] '선거 때 항상 투표하는 것'의 중요도	104
[표 5-11] '탈세하려고 하지 않는 것'의 중요도	105
[표 5-12]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키는 것'의 중요도	106
[표 5-13]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보는 것'의 중요도	107
[표 5-14] '좋은 국민'이 되는 데 중요한 요소(2014 KGSS)	108
[표 5-15]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가능 여부	110
[표 5-16]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가능 여부 비교	111

## 그림

[그림 2-1] 전국 인구 피라미드	23
[그림 2-2] 전국 미래세대 인구구조	23
[그림 2-3] 전국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고령인구 구성비(2015~2065)	24
[그림 2-4] 전국 노년부양비 추이(2015~2065)	25
[그림 2-5] 서울 인구 피라미드	26
[그림 2-6] 서울시 미래세대 인구구조	26
[그림 2-7] 서울시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고령인구 구성비(2015~2045)	27
[그림 2-8] 서울 미래세대 경제활동상태	31
[그림 2-9] 자치구별 20~29세 인구 비교	33
[그림 2-10] 자치구별 30~39세 인구 비교	34
[그림 2-11] 자치구별 미래세대(20~39세) 인구 비교	35
[그림 2-12] 자치구별 미래세대(20~39세) 통근통학 유입 비교	36
[그림 2-13] 자치구별 주간인구 중 미래세대(20~39세) 비율	37
[그림 2-14] 미래세대 가구 자산 변화	40
[그림 2-15] 미래세대 가구 부채 변화	40
[그림 2-16] OECD 주요국가 청년고용률(2007~2015)	43
[그림 2-17] OECD 주요국가 청년니트(NEET)비율(2008~2013)	44
[그림 2-18]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46
[그림 3-1] 한국인의 연령별 행복도	53
[그림 3-2] 전반적 행복 정도	54
[그림 3-3]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정도	56

[그림 3-4] 평소 스트레스 정도	58
[그림 3-5] 평소 스트레스 정도(2017 서울서베이)	59
[그림 3-6]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60
[그림 3-7] 당신은 N포세대에 속하냐(좌), 무엇을 포기했냐(우)	61
[그림 3-8] 미래에 이루길 원하는 꿈 유무(좌), 꿈의 실현가능정도(우)	62
[그림 3-9]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정도	64
[그림 3-10] 꿈꾸는 정도	66
[그림 3-11] 꿈을 추구하는 방식	68
[그림 4-1] 성격 특성	73
[그림 4-2] 지인 및 대인관계	77
[그림 4-3] SNS 이용시기(좌), SNS 사용용도(우)	79
[그림 4-4] 문제 대처 시 찾았던 경로(비해당 포함)	80
[그림 4-5] 문제 대처 시 찾았던 경로(비해당 제외)	81
[그림 4-6] 감정적·심리적 문제의 대처 경로	83
[그림 4-7] 건강 문제의 대처 경로	84
[그림 4-8] 가사 및 돌봄 문제의 대처 경로	85
[그림 4-9] 금전 문제의 대처 경로	86
[그림 4-10] 긴급 혹은 재해 문제의 대처 경로	87
[그림 4-11] 성공한 삶	88
[그림 5-1] 부모님과 고민 공유 여부	92
[그림 5-2] 부모님이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 정도	94
[그림 5-3] 한국사회에서 주요 결정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동의정도	96
[그림 5-4] 정치적 성향	100
[그림 5-5]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중요한 것	103
[그림 5-6] 사람 신뢰 가능 여부	109

# 01

---

## 미래세대 서베이란?

- 1\_세대연구의 의미
- 2\_세대연구 관련 이론적 논의
- 3\_미래세대 서베이

## 01 | 미래세대 서베이란?

### 1\_세대연구의 의미

도시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인 '인구'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도시정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확장적 경제발전과 개발 패러다임의 중추 역할을 하던 서울에서 이제 천만 인구시대의 종말이라는 언론의 머리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성의 변화, 특히 고령층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소년인구의 감소 등은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서울의 인구사회영역과 경제영역에서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예측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십수 년만 지나면 닥쳐올 초고령사회에서 과연 누가 고령세대를 부양할 것인가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다. 현재의 젊은 청년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노부모들과 함께 기꺼이 공존하려고 할 것인가? 서울이 생산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결국 사회 전체의 파이를 어떤 우선순위로 나누느냐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때 세대 간 갈등과 충돌은 정치제도를 통해, 사회제도를 통해 전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세대 중 오늘날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청년세대를 둘러싼 논의이다. 흡수저, 금수저 등 이른바 '수저 계층론'과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어떤 프레임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노동과 일자리, 정체성, 세대갈등, 삶의 질 등 다양한 주제로 전개될 수 있다. 서울의 청년실업이 10%를 육박하면서 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가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 정책적 개입이 베이비붐세대나 노년세대에게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세대 간 충돌 문제는 아닌지에 대한 논란,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년세대에게 현재 '청년의 정체성'은 생애주기에서 과연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결혼과 출산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3포, 5포세대의 청년들에게 인구절벽을 피하기 위해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계몽적인 캠페인성 정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지 등등. 청년세대의 문제는 그것이 오롯이 독립적인 위상을 차지하기보다는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성년으로의 이행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행기의 조건은 그 다음 단계인 인생 주기의 전제가 된다는 점 등이 청년세대의 문제를 더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만든다.

아직 청년에 들어오지 못한 10대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주요원인은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이들 세대는 이제 더 이상 '담대한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으며 스스로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현상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제도는 차단되어 있다.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해야 하지만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이렇듯 한 도시의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집단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변화된 환경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근간으로 하는 세대연구는 미래 정책수요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더욱이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변화는 세대 간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서울의 세대, 특히 미래 서울의 중심세대가 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조사를 통해 서울 미래세대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_세대연구 관련 이론적 논의

오늘날 세대연구를 둘러싼 논의는 담론수준의 일반론과 칼 만하임의 세대이론에서 출발한 사회문화이론들이 혼재되어 간헐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세대현상을 둘러싸고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 하나는, 오늘날 나타나는 세대현상은 새로운 것으로 지금까지 사회를 분석하는 기본 시각인 계층 문제를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와 대립되는 또 다른 시각은, 오늘날의 세대현상이란 인구 코호트적인 속성을 일부 반영하고는 있지만 특정 연령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자적인 세대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사실 세대를 둘러싼 담론은 정치적 맥락에서 등장했다. 즉, 대통령선거에서 세대 간 선호가 분명히 갈라지는 투표 현상이 고찰되면서 세대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투표현상이 정치지형의 핵심에 있다는 주장들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기술 리터러시에 의한 '세대차이'가 발생하면서 세대 간 차이점이 확연히 부각되고 이에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한 세대문화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나타났다. 이렇듯 세대연구를 둘러싸고 세대개념과 세대 형성 과정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 절에서는 먼저 세대개념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한 다음 세대론이 사회 갈등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론적 세대담론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세대문제가 제기하는 정치성과 사회적 성격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서울의 미래세대가 동일한 세대적 감수성과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세대 내부의 이질성도 공존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 세대연구의 이론적 방법론

박재홍(2003)의 「세대개념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상적 담론을 구성하기도 하고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세대' 개념의 다양한 용법을 검토하고,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개념의 비판적 대안으로서 세대를 재개념화하여 제시하였다.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세대’ 개념에는 집단 내 유사성과 집단 간 차이라는 함의가 내재되어 유지되고 있다. 켈쩌(Kertzer, 1983: 126-127)는 현대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세대의 네 가지 대표적 용법으로, 1) 친족계보(kinship descent)에서 동일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 2)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출생 코호트(cohort), 3) 청소년 세대, 대학생 세대와 같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life stage)에 있는 사람들, 4)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용법 중 ‘코호트’로서의 세대와 ‘특정 역사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세대는 역사적 사건의 경험 공유를 공통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편, ‘생애단계’로서의 세대개념은 무엇보다도 ‘연령 효과’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친족계보상 동일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세대는 연령이나 역사적 경험 면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취급한다는 점에서 다른 세 가지 세대 용법과는 의미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박재홍, 2003).

그동안 학계에서 ‘세대’라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세대’ 개념의 모호성에 관련한 논쟁들이 있었다. 세대개념의 모호성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는 친족계보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용도로만 국한시켜 사용하자는 입장이 있다(Ryder, 1965; Glenn, 1977; Kertzer, 1983). “시간적 분석단위(unit of temporal analysis)”라고 할 수 있는 세대와 코호트 개념 사용에서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세대는 친족계보상에서의 시간단위로만 국한시키고, 역사적 경험 공유를 강조하는 그 밖의 시간적 분석단위는 ‘코호트’로 개념화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코호트라는 용어는 세대개념이 갖는 역사적 함의를 담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입장은 만하임의 세대개념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마샬(Marshall, 1983)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마샬은 ‘코호트’가 “자료를 조직화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임의로 규정된 동일 시기 출생자들을 의미하고, ‘세대’는 질적 차이를 갖기에 임의적으로 나눌 수 없는 출생 코호트들로 구성되며,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집단(socially real group)”으로 규정하여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세대개념을 친족계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코호트적 의미로도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개념을 구분할 때 ‘세대’라는 용어 앞에 수식어를 추가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한다. 필처(Pilcher, 1994)는 “사회적 세대”, 유럽의 사회과학자들은 “역사적 세대”로 표현했고(Bengtson, 1993), 뵁슨과

그의 동료들(Bengtson, Cutler, Mangen & Marshall, 1985)은 친족계보적 의미의 세대를 “가족 세대”로,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를 “코호트 세대”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박재홍(2003)은 ‘사회역사적 세대(socio-historical generation)’라는 표현을 제안하였다.

세대개념의 명료화 논쟁에서는 친족계보적 의미로서의 세대와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사회역사적 세대)가 등장하였다. 친족계보적 의미의 세대는 가족 또는 친족집단 내 항렬에 따라 분류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명확하지만, 다양한 연령층이나 다양한 출생 코호트를 포괄하여 논의에 제약이 따른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부모 세대, 성인자녀 세대 등 친족계보상의 위치에 생애단계를 명시하기도 한다. 한편, 코호트와 사회역사적 세대의 개념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재홍(2003)은 마샬(Marshall, 1983)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자료 정리의 한 방식으로서 임의적으로 나눈 동일시기 출생자들을 ‘코호트’로 규정하고, 일정한 범위의 코호트에 대해 역사적 실재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는 그 코호트를 ‘사회역사적 세대’로 규정함으로써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코호트와 세대개념과 같이 시간단위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연령계층(age strata)/연령계급(age grade), 연령집단(age groups), 연령군(age sets)이 있다. 이 중 ‘연령계층’(혹은 ‘연령계급’)이란 나이나 생애주기 단계로 표현되는 일정한 연령층을 의미하고, ‘연령집단’ 개념은 특정한 이론적 함의 없이 일정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연령군’은 출생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집단 명칭을 갖는 그룹에 소속되어 그 자격이 평생 동안 유지되며 연령에 따라 배정되는 역할과 특전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연령군’은 코호트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코호트는 동일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이고 연령군은 코호트의 한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Foner & Kertzer, 1978). 이렇게 연령, 코호트, (사회역사적) 세대개념은 구분될 수 있지만, 세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이들 개념이 함께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이고 연령과 코호트 개념을 배제하고 세대개념이 의미를 가질 수는 없으므로 오히려 세대개념은 연령과 코호트 개념을 통하여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박재홍, 2003).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대개념을 재개념화하기 위해 세대문제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최초로 체계화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칼 만하임의 세대개념이 검토되었다. 만하임은 출생과 사망을 통해 세대교체를 겪는 생물학적 기초를 갖는 ‘생물학적 세대’가 어떠한 사회적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역사적 세대’로 발전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세대개념을 출생시점의 유사성에 기초한 사회적 위치를 의미하는 ‘세대위치(generational location)’와 ‘실제세대(actual generation; generation asan actuality)’·‘세대단위(generation unit)’라는 두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 개념에 따라 ‘세대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역동적 동요 과정의 사회적·지적 징후에 노출됨으로써 상호간에 구체적 연대감이 형성”되고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는 힘의 상호작용을 능동적·수동적으로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실제세대’로 발전되고, 나아가서 ‘실제세대’가 역사적 자극에 대한 상이한 반응 양식에 따라 몇 개의 ‘세대단위’로 분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Mannheim, 1952: 303-304). 이것은 세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변동’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만하임의 세대개념과 이론적 틀은 유용한 방식이나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그의 세대개념은 사회운동의 함의를 강하게 갖기 때문에 사회운동과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는 세대 현상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만하임의 세대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이기에 경험적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박재홍(2003)은 세대란 1)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2) 공유된 경험에 기초하여,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가지며, 3) 자신이 속한 코호트에 대하여 최소한 느슨한 수준에서라도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개념의 세대를 ‘사회역사적 세대’라고 명명하였다.

세대개념화에는 세대의식의 문제와 경험공유의 효과라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이 있다. 세대의식은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 ‘세대 성원이 공유하는 의식’, ‘소속감이나 동류의식’, ‘공동운명체로서의 연대감과 이해관계의 자각’ 등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박재홍(2003)의 ‘사회역사적 세대’에서는 ‘세대의식’

의 세 가지 수준 중 중간 수준인, 느슨한 수준에서의 ‘동류의식’을 하나의 조건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세대개념에는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을 갖는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경험 공유의 효과’로 논의 가능하다. 실제로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했다 하더라도 그 출생 코호트는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노출 정도, 경험 방식, 반응 양식에 있어서 편차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세대 내에서도 개인의 계층적 위치나 가정환경, 인성적 특성에 따라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 세대라고 하더라도 의식, 태도, 행위양식 면에서 이질적인 성원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세대 내 차이와 세대 간 차이의 상대적 비교에서 찾을 수 있으며, 경험적 분석에서는 우선 세대 간 큰 차이를 관찰한 후, 그 다음으로 세대 내 작은 차이 또는 세대의 내적 분화에 주목하는 연구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박재홍, 2003).

### 세대연구에 대한 비판적 접근

김선기(2014)의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는 ‘세대’라는 개념이 국내의 언론, 정치권, 학계에서 별다른 성찰 없이 어떠한 현상을 이야기하려는 시도로서 일상화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세대개념을 둘러싼 혼란, 세대연구가 지닌 내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독일의 사회학자 칼을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개념을 재검토하고 세대담론에 대한 구성주의적 성찰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명명된 세대명칭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박재홍, 2009), 세대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비형평성의 문제를 서술하는 중요개념으로 부상했다(전상진, 2013). 세대개념의 홍수와 그에 따른 논란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의 ‘버려진 세대(jilted generation)’, 독일의 ‘세대투쟁론’과 ‘P세대론’, 이탈리아의 ‘천유로세대’ 등이 일상생활과 학계에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문제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으며, 비과학적인 세대담론이 일상적으로 유행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

의 사회학자 만하임의 표현에 따르면, “세대문제의 현재 상태는 극도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또한 영국의 정치학자 화이트(White, 2013: 236-41)는 세대 개념이 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국내 학자들은 세대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세대문제로 환원시키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적 세대담론들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세대주의적 세대담론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정치적 활용’과 ‘언론의 선정주의’에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치적 세대담론들은 그 자체가 어떠한 연령 집단에게 ‘정치적 세대’의 사명을 부과하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보수세력은 기성세대로 불리는 노년층과 장년층을, 반대로 진보세력은 청년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층을 겨냥하여 그들을 특정한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는 집단적 세대의식을 갖춘 세대로 구성하려고 한다. 둘째, 언론의 선정주의는 세대에 대한 일반적 고정관념(연령주의, 청소년주의)에 부응한다. 예컨대, 학벌주의는 대학생, 청년, 20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의 문제이지만 언론은 대학생과 20대를 소환하며 언급한다. 또한, 범죄기사, 미담기사 등의 내용이 연령, 세대 등과 관련성이 없을지라도 ‘20대 여자’, ‘60대 노인’과 같은 범주를 활용해서 제목을 붙인다.

이처럼 세대의 문제가 아닌 것을 세대 문제로만 다루는 틀이나 해석들이 세대주의적 세대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세대연구는 세대주의적이 되는가? 이에 대해 김선기(2014)는 단일한 세대의 가정, 세대(차이)의 실재성에 대한 검증의 부재, 세대연구 자체의 담론 효과에 대한 성찰성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첫 번째 단일한 세대의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의 세대연구는 세대 현상의 보편성을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며 연령집단의 동질성보다 연령집단과 연령코호트 내의 불연속성에 더 관심을 가진다(Jaeger, 1985: 280).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상적 세대담론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세대의 보편성과 동질성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세대 구분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출생코호트를 세대로 구분하는 데에서 시작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단일한 세대의 가정을 가진다. 단일한 세대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는 옹호와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단

일한 세대의 가정을 옹호하는 연구들에서는 세대연구자들은 세대 내부의 차이가 세대 간 차이에 비해 작은 차이임을 강조하거나 세대 내부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세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세대 내부의 차이를 규명하는 문제를 후순위로 둔다. 반면 단일한 세대의 가정을 비판하는 연구로서, 전상진(2002)은 특정한 출생코호트를 하나의 세대에 환원시키는 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이광석(2011: 82-3)은 청년세대를 둘러싼 세대론 분석에 대한 비판 지점으로, 내적 차이 혹은 세대 내 다양성을 무시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세대(차이)의 실재성에 대한 검증의 부재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어떠한 세대의 특성을 논의하기 전에 어떠한 출생코호트가 전후의 출생코호트와 특성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세대연구는 세대의 형성과 세대차이의 실재성을 검증하는 것보다 세대를 구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상진에 따르면 세대형성 과정은 2가지 대립적인 접근방식이 있다. 하나는 일군의 출생코호트들이 청소년기에 중대한 사건을 공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세대가 형성된다는 객관주의적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발명된 세대의식을 일군의 출생코호트들이 이를 정체성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세대를 형성하는 주관주의적 설명인데, 대부분의 세대연구들은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있다(전상진, 2004: 33-43). 예를 들어, 에드먼즈와 터너(Edmunds & Turner, 2002: 10-12)는 세대를 “특정한 개인들의 코호트를 의식적인 연령 단층(age stratum)으로 묶어주는 트라우마적 사건(traumatic events)이나 재해에 대한 집단적 응답”으로 정의하고,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인해 집단성을 발현시키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객관주의적 접근법으로 세대형성을 설명하는 것에는 일정한 무리가 따른다.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시간, 그리고 트라우마적 사건만으로 세대 형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접근법은 집단 간의 차이, 즉 세대 차이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박경숙 외(2013)의 세대 가치관에 대한 실증적 조사는 모든 연령코호트에 걸쳐 공동체주의적, 권위주의적 문화가 공유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젊은 연령코호트와 중장년층 간의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아 통념상의 세대 차이가 실제로는 과장되었음을 입증한다. 세 번째는 세대연구 자체의 담론효과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대연구와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하나는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들 다수는 세대담론들을 진실과 허구라는 이분법적 틀로 바라보는 데 그친다. 이들은 허위 이데올로기로서만 기능하는 세대담론이 있는 반면 실제 현상을 잘 담아낸 세대담론도 있다는 식의 가정을 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그 진실성을 승인한다. 예를 들어 이동연(2004)의 경우 386세대, X세대, 신세대는 “이데올로기적 허구효과를 생산하며 일부는 과잉 정치화 되어 하나의 상징조작 같은 이미지를 생산한다”고 논의하는 반면, N세대, 감성세대, 디지털세대는 “주체형성의 구체적인 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분명한 자기정체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많은 세대연구자들은 다른 세대담론자들의 허위성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세대에 관한 논의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학계에서 생산되는 세대연구들이 세대주의적인 방식으로 세대의 문제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는다. 세대는 출생코호트 간의 차이를 근거로 성립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대연구들은 여러 출생코호트를 동시에 분석하지 않는다. 세대연구가 세대주의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램지우스(Lepsius, 2014: 73)가 주장했듯이, “다수의 집단적인 사건들이 오직 특정 연령의 코호트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대부분을 세대 특유의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분류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대연구의 세대주의적 경향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김선기(2014)는 만하임의 세대개념에 대한 재검토와 세대담론의 개념을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설명한다. 만하임이 1928~1929년에 작성한 논문은 현재까지 사회학의 유용한 초석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대연구자들이 이론 및 경험적 세대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만하임이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측면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하임의 세대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만하임이 강조하는 첫 번째는 세대개념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을 경계한 것이다. 만하임 이전의 세대연구는 두 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두 경향 모두 사회학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Jaeger, 1985: 275-6). 첫째는 세대에 대한 맥박수 가설(pulse-rate hypothesis)로서, 세대는 외적인 요인들로 설명될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리듬(대략 30년)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대에 대한 각인 가설(imprint hypothesis)로 비슷한 시대의 개인들에게 청소년기에 전염되는 철학적, 사회적, 문화적 가이드라인

을 중시하는 낭만주의적, 역사주의적 경향이다. 만하임은 단순히 생물학적 속성에 근거한 세대개념과 거리를 두며(“세대위치는 실제 세대와 동일하지 않다”), 역사적·사회적 통일성이라는 공동 운명에 대한 참여가 있어야만 세대위치에 있는 개인들이 실제 세대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실제 세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같은 시기를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강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만 세대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만하임은 ‘동시대의 비동시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출생코호트 간의 (당연한) 비동시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코호트 내의 (의외의) 비동시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만하임은 같은 세대 안에서도 다른 ‘세대단위(Generationseinheiten)’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세대단위를 “단순한 실제 세대가 구성했던 유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유대”로 정의하였다. 세대단위 개념은 단순히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강력한 유대감을 지닌 세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출생코호트 내에도 복수의 세대단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만하임은 세대형성의 주관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만하임은 세대위치와 실제 세대의 개념을 구분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세대위치가 실제 세대가 될 수 있는지, 즉 세대형성의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하임은 세대단위 구성원들의 의식을 구성하는 내용들은 그 안에 포함되고 이해되는 실제 내용뿐 아니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행동하도록 집단으로 묶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세대형성 과정의 주관적이고 구성주의적인 계기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담론에 대한 구성주의적 성찰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세대형성 과정의 주관적이고 구성적이며 미시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 피에르 부르디외의 계급이론이 언급되어 왔다. 부르디외의 계급이론은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에서 비슷한 위치를 점유하는 행위자들의 집합을 계급(class)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는데, 이들은 비슷한 성향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사하게 형성된 하비투스(habitus) 하에서 유사한 실천(practice)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부르디외의 논의는 계급의 존재가 단순히 주어진 것 또는 자동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인 대안들에 맞서서 지배적인 ‘사회적 전망과 분리의 원리’로 계급을 부과하기 위한 투쟁을 수반하는 집단 형성 작업의 결과”(Wacquant, 2013: 39-40)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르디외의 계급에 관한 논의를 참고할 때, '세대' 역시 계급과 마찬가지로 주술적 현실로서의 현실 위에서 수행된 '세대형성 작업의 결과'라고 재정의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그 존재가 단순히 주어진 것 또는 자동적인 과정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는 세대형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과는 거리를 둔다. 그리고 이때 자연스럽게 세대형성 작업의 주요한 기제로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세대담론이라는 현상이다. 실제 세대가 먼저 발생하고 그것을 포착하는 담론이 생겨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세대담론이 생겨남으로써 상상적인 것으로서 실제 세대의 정체성/주체성이 발생/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대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세대담론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몇 가지 유용성을 가진다. 첫째, 세대담론은 세대의식이 미시적, 일시적, 주관적인 계기를 통해서 형성되는 과정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세대담론의 복수성은 '세대 내의 비동시성'이라는 만하임의 문제의식을 경험적 세대연구 내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세대담론에 대한 성찰적 관점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반박함으로써 세대형성 과정에 행위자성(agency)과 능동성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 세대연구의 정치성과 민주주의

허석재(2015)는 최근의 세대연구 경향과 쟁점을 논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세대현상을 분석하면서 세대개념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다. 그는 세대연구에서 특정 시점에 고정된 분석을 통해 세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세대와 사회문화적 세대 사이의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세대 간 차이뿐 아니라 세대 내 차이로서의 엘리트와 대중의 수준을 구분할 때 세대현상의 동학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한국의 세대연구가 안정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세대개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대는 출생연도를 공유하는 범위로서의 세대, 친족계보상으로서의 세대 및 생애주기로서의 세대 등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시기나 특정 연령에 집중한 세대연구는 정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연령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나면 세대마다 다른

현상이 해당 시기의 특수성에 따른 효과인지 아니면 연령의 효과인지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세대의 측면에서 사회변동을 연구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인은 가족이나 친족계보 내의 세대 안에서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동일한 교육과정을 밟은 같은 나이대의 동료집단과도 사회적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다.

만하임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만을 부여할 뿐이며 실제 세대(generation as actuality)<sup>1)</sup>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회적 경험의 공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의 갈등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시기에 태어난 것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조직에서 연령별로 부과하는 위치에 따른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노년세대’는 나이가 들에 따라 보수화되는 세대로 비추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대공황을 체험하고 민주당의 뉴딜정책이 주었던 혜택을 맞본 세대는 나이를 떠나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자로 남게 된다. 이는 단순히 친족 가계(kinship descent)와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cohort), 즉 출생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특정한 역사적 시기(historical period)에 생존한 사람들 또한 실제 앞서 언급된 실제 세대로서 동질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연구에서 사회문화적 변동에 따른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다. 김희재(2004)는 90년대 이후 성인이 된 신세대에 대해서 X세대, Y세대, Z세대, N세대, M세대, R세대, E세대, X세대, G세대 등등 모두 열거할 수 없는 온갖 세대 명칭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세대마다 변화된 문화 코드의 영향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된다. 1970년대까지 급진적 주장이라 여겨졌던 평화통일론이 현재 보수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현상을 볼 때,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단순히 사회문화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 태도의 변화 또한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새 세대가 등장하였다고 해서, 다시 말해 세대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서 정치적 태도나 시

1)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세대를 의미한다.

시스템을 완전히 바뀌게 할 수는 없다. 한편, 투표선택에서 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들은 유권자의 속성을 단정하게 되는데, 피오리나(Fiorina, 2013)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사태의 일면만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수면 위로 드러난 투표결과에 반영된 세대 간 차이만을 가지고 개인의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며 정치적 공급, 즉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투표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한국의 세대를 논할 때 놓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대중과 엘리트의 개념이다. 1987년 민주화에 이르기까지의 국내 정치사의 주요 사건은 학생 운동에서 촉발되었고, 주로 대학생이 많이 포함된 시기였다. 고성국(1992)의 연구는 학생운동가들이 민주화 이후 기성정치권에 진출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소수의 엘리트들이 '세대'라는 이름 아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받은 연령집단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970년대까지 한국사회에서 대학에 가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이는 주요 대학의 일부 운동권 출신을 '세대'라고 칭하는 것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세대 내에서 소수 엘리트와 다수 대중으로 분화되는 현상은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여론 형성 및 공적 의사결정에 엘리트들이 일반대중에 비해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동일한 세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을 이질적으로 분화하게 만드는 압력은 도처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구성원들이 성년 초기까지 비슷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얻은 인식도 도시화, 산업화, 전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변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계급, 종교, 언어, 지역, 젠더 등 사회 내 다른 균형(leverage)도 집합적 정체성을 부과함으로써 엘리트층 중심으로 하는 세대 이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결국, 특정 세대의 출생 코호트가 같다고 해도, 사회나 조직에서 부여받는 위치(role allocation)에 따라 세대 구성원들의 인식의 균질성이 침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세대연구가 여러 변수를 포함해야 하며 세대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interaction term)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지금의 정치제도를 이끌어가는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는 정치를 쉽 없이 반응하게 만드는 체계이다. 이는 곧 사회적, 문화적 변동에 따라 세대의 태도와 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3\_미래세대 서베이

우리는 서울에 사는 미래세대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그들의 내면(內面)을 들여다 보기 위해 미래세대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미래세대 서베이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국가기관인 통계청과 서울시가 생산하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이는 정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 미래세대의 현재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서울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정성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의 내면과 그들의 태도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에 대한 상세 설명에 앞서 먼저 미래세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사실 미래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아직 합의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세대가 2, 30년이라는 일반적인 전제를 적용한다면 서울의 미래세대는 지금의 10대들이고, 이들이 앞으로 한 세대 후 서울의 지배적인 코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10대와 20대 초반까지를 미래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고령화 정도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의 청년세대부터가 서울의 미래세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20년 후인 2040년 서울의 중위연령이 52세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청년세대가 미래세대의 핵심 연령층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서울의 미래세대를 우리는 20대부터 39세까지로 정의하였다. 이는 서울의 고령화 추이를 염두에 둔 점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서베이 과정에서 10대 연령층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20대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개요

“서울 미래세대 인식조사”라 명명한 미래세대 서베이 정성조사는 미래 서울의 중심세대가 될 미래세대의 사회문화적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서울 미래세대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미래세대

(20~39세의 청년층)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서울 미래세대 1,000명이고,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었고,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5가지 분야이다. 1) 개인의 삶의 질과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5개 항목, 2) 가족 및 대인/사회관계가 4개 항목, 3)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이 5개 항목, 4)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가 7개 항목, 5) 기타 및 응답자특성이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질문지 척도\_평균 산출 방식

각 항목별 평균은 척도에 따라 5점, 7점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 1) 5점 척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중요하다 4점, 매우 중요하다 5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 매우 불만족 1점, 약간 불만족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 매우 낮다 1점, 낮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높은 편이다 4점, 매우 높다 5점

### 2) 7점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지 않다 3점, 중립 4점, 약간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 7점

[표 1-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조사원료 사례수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500	50.0
	여자	500	50.0
연령	20~24세	225	22.5
	25~29세	249	24.9
	30~34세	255	25.5
	35~39세	271	27.1
지역	도심권	50	5.0
	동북권	302	30.2
	서북권	118	11.8
	서남권	317	31.7
	동남권	213	21.3
학력	고졸 이하	97	9.7
	대졸(재학 포함)	762	76.2
	대학원(재학) 이상	141	14.1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10.9
	화이트칼라	561	56.1
	가정주부	32	3.2
	학생	221	22.1
	무직/기타	77	7.7
	미혼	697	70.1
혼인 상태	기혼	297	29.9
	거처 유형	단독주택	75
아파트		453	45.3
다세대/연립		363	36.3
오피스텔		71	7.1
기타		38	3.8
주거 형태	자가	450	45.0
	전세	316	31.6
	보증부 월세	55	5.5
	월세	167	16.7
	무상 및 기타	12	1.2

[표 1-2] 응답자 특성2

(단위: 명, %)

구분		조사완료 사례수	비율
전체		1,000	100.0
함께 거주 가구원	1명	170	17.0
	2명	181	18.1
	3명	247	24.7
	4명	332	33.2
	5명 이상	70	7.0
가계 소득	200만 원 미만	92	9.2
	200~300만 원 미만	186	18.6
	300~400만 원 미만	181	18.1
	400~500만 원 미만	153	15.3
	500~600만 원 미만	113	11.3
	600~700만 원 미만	76	7.6
	700만 원 이상	199	19.9
종교	개신교	170	17.0
	불교	79	7.9
	천주교	113	11.3
	기타	21	2.1
	없다	617	61.7
행복 정도	행복	385	38.5
	보통	409	40.9
	불행	206	20.6
정치 성향	진보	455	45.5
	중도	390	39.0
	보수	155	15.5

# 02

---

## 서울 미래세대의 인구경제적 특성

- 1\_인구 코호트적 속성
- 2\_지역 공간적 특성
- 3\_경제·사회적 특성

## 02 | 서울 미래세대의 인구경제적 특성

### 1\_인구 코호트적 속성<sup>2)</sup>

#### 1) 한국 인구구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짧은 시간 동안 출산력의 저하로 인해 크게 변화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00년대부터 유소년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인구총조사의 연령별 구조를 살펴보면, 40대와 50대의 인구가 1,64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2%를 차지하면서 연령별 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표 2-1). 20~29세는 6,413,83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9%, 30~39세는 7,394,623명으로 14.9%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세대라 할 수 있는 20~39세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8%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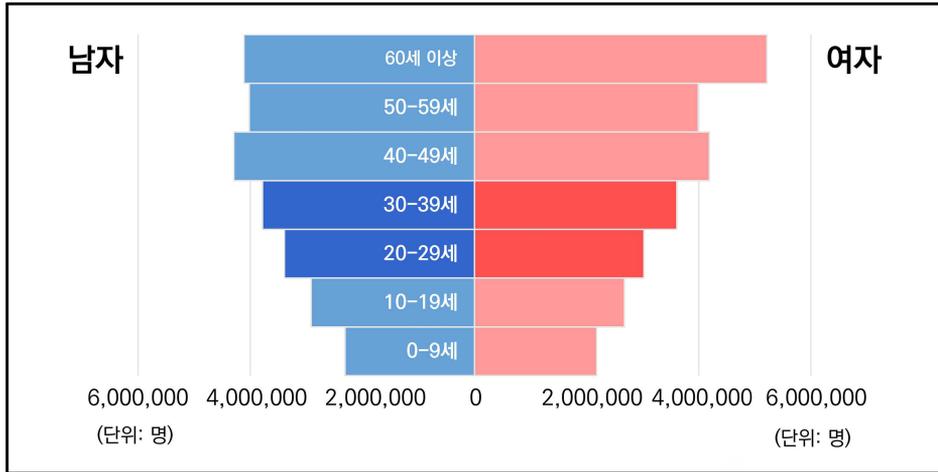
[표 2-1] 연령코호트별 전국 인구 분포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0~9세	2,309,213	9.3	2,179,134	8.8
10~19세	2,915,624	11.7	2,673,281	10.7
20~29세	3,390,744	13.7	3,023,088	12.1
30~39세	3,782,293	15.2	3,612,330	14.5
40~49세	4,293,171	17.3	4,189,691	16.8
50~59세	4,017,114	16.2	3,991,957	16.0
60세 이상	4,111,680	16.6	5,216,343	21.0
계	24,819,839	100	24,885,824	10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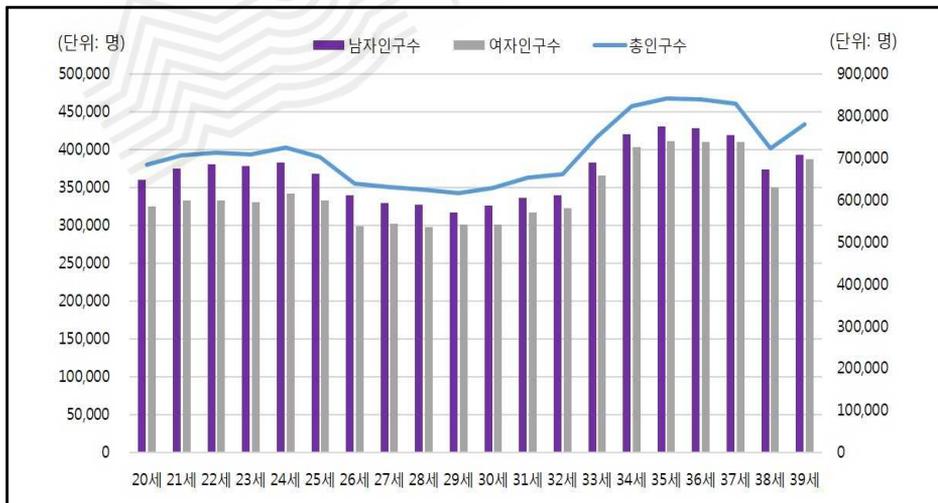
<sup>2)</sup> 본 자료는 2015년 인구총조사(통계청), 2016년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자치부), 2017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이용에 따라 분석 결과, 기준, 수치 등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그림 2-1] 전국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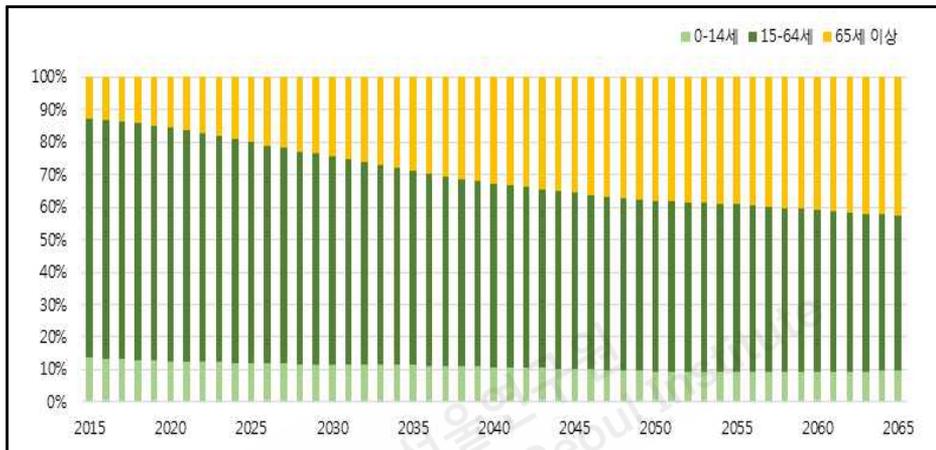
2016년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미래세대(20~39세) 14,292,568명 중 35세(1981년 출생)가 842,279명(5.9%)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36세(1980년 출생) 839,113명(5.9%), 37세(1979년 출생) 829,685명(5.8%)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현황, 2016

[그림 2-2] 전국 미래세대 인구구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나타난 연령별 인구 구성비 중에서 2015년과 2065년을 비교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감소(73.4%→47.9%)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12.8%→42.5%)하며,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은 감소(13.8%→9.6%)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2065년에는 2,062만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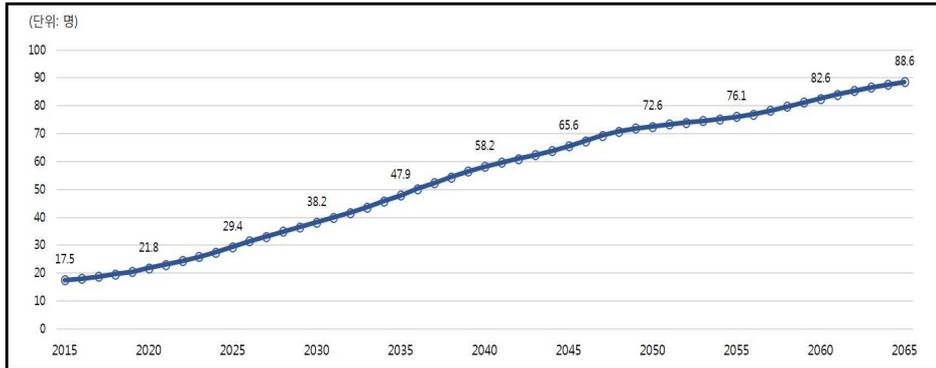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그림 2-3] 전국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고령인구 구성비(2015~2065)

노년부양비<sup>3)</sup>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6)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15년 17.5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65년 88.6명 수준으로 2015년 대비 5.1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2-4). 특히,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가 생산가능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는 등 연령계층별 인구의 변동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파악하고 노후생활 안정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방안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그림 2-4] 전국 노년부양비 추이(2015~2065)

## 2) 서울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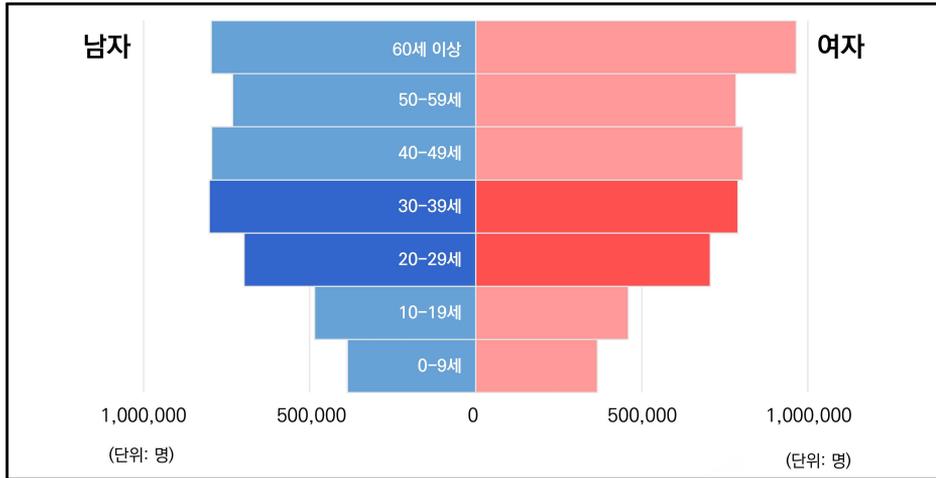
서울의 연령별 구조는 40~50대의 인구가 311만 4천 명(32.6%)으로 연령별 구조의 중심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30대 미만과 60대 이상이 적은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서울의 20~29세는 1,403,549명으로 전체 인구의 14.7%를 차지하고, 30~39세는 1,591,560명으로 16.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0~39세 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3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 연령코호트별 서울인구 분포

(단위: 명, %)

	남자		여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0~9세	386,087	8.2	366,066	7.5
10~19세	485,207	10.3	459,195	9.4
20~29세	697,515	14.9	706,034	14.5
30~39세	802,174	17.1	789,386	16.2
40~49세	794,806	16.9	804,075	16.5
50~59세	732,044	15.6	783,459	16.1
60세 이상	796,484	17.0	964,664	19.8
계	4,694,317	100	4,872,87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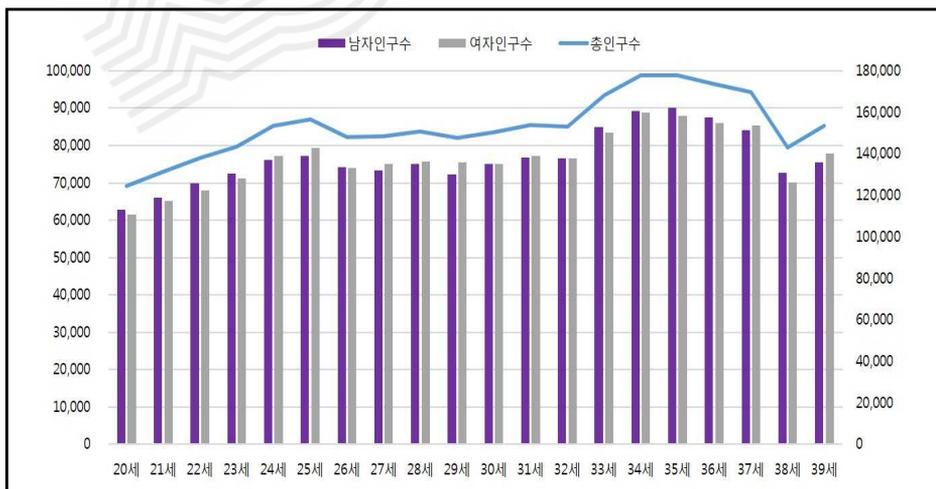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그림 2-5] 서울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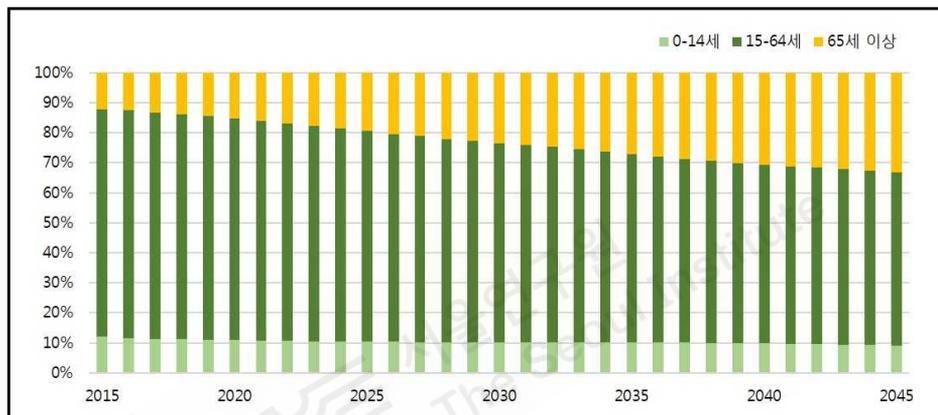
2016년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서울시 미래세대(20~39세) 3,063,675명 중 34세가 177,985명(5.8%)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35세 177,958명(5.8%), 36세 173,622명(5.7%) 순으로 나타나 34~36세(1980~1982년 출생)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6

[그림 2-6] 서울시 미래세대 인구구조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유소년인구(0~14세)는 115만 명(12.1%),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21만 명(75.4%),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20만 명(12.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유소년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년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5년 669만 명, 2035년 580만 명, 2045년 508만 명으로 예측되며, 2015년 대비 2045년의 생산가능인구는 32.6%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그림 2-7] 서울시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고령인구 구성비(2015~2045)

2016년 주민등록인구통계에 근거하여 자치구별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169.5)와 종로구(168.2)로 유소년인구(0~1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초구(79.1)는 고령인구보다 유소년인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인구구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초구는 유년부양비가 노년부양비보다 크고, 종로구와 중구는 노년부양비가 크고 유년부양비는 상대적으로 작다. 서울시 평균은 노년부양비가 16.8, 유년부양비가 15.2이며, 노령화지수는 110.8로 나타나 서울시 전체는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서울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자치구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종로구	12.2	20.6	168.2
중구	12.0	20.3	169.5
용산구	14.5	19.7	136.0
성동구	14.7	16.8	114.6
광진구	13.5	14.2	105.6
동대문구	13.5	19.2	141.4
중랑구	13.7	17.7	128.6
성북구	16.0	18.7	116.9
강북구	13.8	22.2	161.6
도봉구	14.9	19.4	129.9
노원구	16.9	16.6	98.0
은평구	15.8	19.5	123.4
서대문구	14.3	19.6	136.9
마포구	15.4	16.3	105.5
양천구	17.6	14.2	81.0
강서구	16.2	15.6	95.8
구로구	15.8	16.4	103.6
금천구	12.7	16.4	128.8
영등포구	13.9	16.6	119.9
동작구	14.5	17.7	121.5
관악구	11.7	16.3	139.6
서초구	19.2	15.2	79.1
강남구	16.1	14.1	87.7
송파구	16.8	14.0	83.3
강동구	15.5	15.5	100
서울시(전체)	15.2	16.8	110.8

주) 외국인 포함

유년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자료: 서울시 통계데이터담당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6(<http://stat.seoul.go.kr>)

### 3) 서울 미래세대 인구속성

서울 미래세대의 혼인상태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20~24세의 대부분(98.9%)은 미혼이며, 25~29세는 미혼이 89.1%, 30~34세는 56.1%, 35~39세는 33.7%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30~34세는 미혼 56.1%, 배우자 있음 42.9%로 나타났으며, 35~39세는 배우자 있음이 63.4%로 미혼 33.7%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았다.

[표 2-4] 서울 미래세대 혼인상태

(단위: 명,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미혼	673,851	98.9	642,650	89.1	461,220	56.1	258,095	33.7
기혼	6,832	1.0	76,824	10.7	352,439	42.9	485,455	63.4
사별	243	0.0	200	0.0	403	0.0	1,595	0.2
이혼	397	0.1	1,490	0.2	7,422	0.9	20,242	2.6
계	681,323	100	721,164	100	821,484	100	765,387	1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2015

서울 미래세대의 교육정도는 4년제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미만 대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이상 대학교는 20~24세 60.0%, 25~29세 59.4%, 30~34세 52.6%, 35~39세 46.3%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학원(석사과정)의 비율이 높아져 35~39세는 11.0%, 30~34세는 10.0%로 나타났다.

[표 2-5] 서울 미래세대 교육정도

(단위: 명,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초등학교	1	0.0	11	0.0	31	0.0	32	0.0
중학교	2,287	0.3	2,196	0.3	3,874	0.5	5,478	0.7
고등학교	92,983	13.6	76,635	10.6	120,108	14.6	154,709	20.2
대학(4년제 미만)	167,460	24.6	149,343	20.7	167,327	20.4	146,779	19.2
대학교(4년제 이상)	408,663	60.0	428,411	59.4	431,859	52.6	354,645	46.3
대학원(석사과정)	9,119	1.3	55,845	7.7	81,966	10.0	84,087	11.0
대학원(박사과정)	438	0.1	8,383	1.2	15,916	1.9	19,232	2.5
교육받지 않았음	372	0.1	340	0	403	0	425	0.1
계	681,323	100	721,164	100%	821,484	100	765,387	100

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재학, 중퇴 포함/대학교, 대학원은 재학, 수료, 휴학, 중퇴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2015

서울에 거주하는 미래세대의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2세대가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24세는 2세대가구 72.1%, 1인가구 13.3%, 1세대가구 5.7% 순이며, 25~29세는 2세대가구 59.6%, 1인가구 20.4%, 1세대가구 12.9% 순으로 나타났다. 30~34세는 2세대가구 57.0%, 1세대가구 19.0%, 1인가구 17.1% 순이며, 35~39세는 2세대가구 66.4%, 1인가구 12.8%, 1세대가구 12.1% 순이다. 그러므로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5~29세임을 알 수 있다.

[표 2-6] 서울 미래세대 가구구성

(단위: 명,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1세대가구	33,203	5.7	92,485	12.9	156,175	19.0	92,756	12.1
2세대가구	423,126	72.1	429,150	59.6	469,464	57.0	510,543	66.4
3세대가구	38,727	6.6	34,584	4.8	44,788	5.4	60,304	7.8
4세대 이상 가구	230	0.0	373	0.1	918	0.1	857	0.1
1인가구	78,174	13.3	146,542	20.4	141,005	17.1	98,258	12.8
비친족가구	13,127	2.2	16,544	2.3	10,646	1.3	6,179	0.8
계	586,587	100.0	719,678	100.0	822,996	100.0	768,897	100.0

주) 1세대가구: 부부+미혼형제자매, 부부+기타친인척, 가구주+기타친인척

2세대가구: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부부+양친, 부부+한부모,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3세대가구: 부부+미혼자녀+양친, 부부+미혼자녀+부친, 부부+미혼자녀+모친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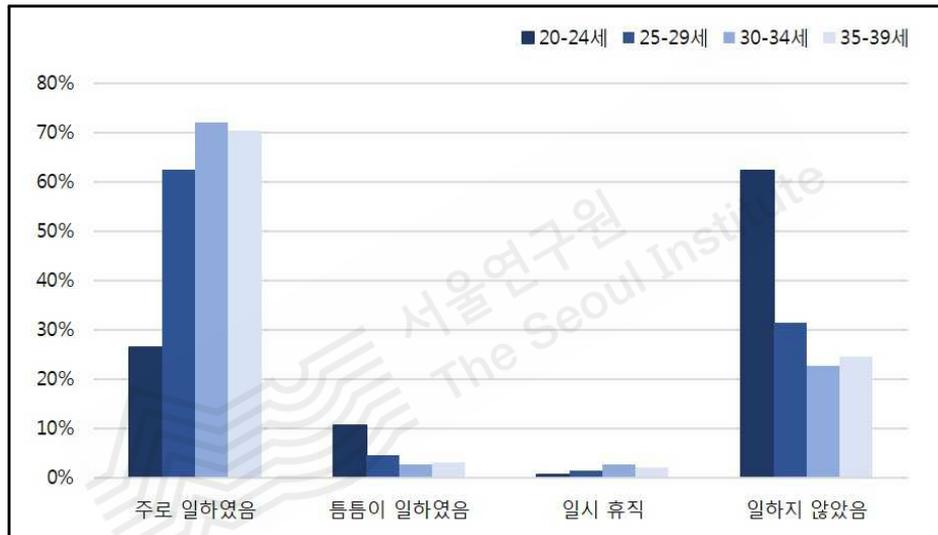
서울에 거주하는 미래세대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30대는 '주로 일하였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0~34세는 72.1%, 35~39세는 70.5%로 10명 중 7명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지 않았음'의 비율은 30~34세(22.6%)보다 35~39세(24.5%)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0~24세는 '일하지 않았음'이 62.3%로 가장 높았으나, 25~29세는 '주로 일하였음'이 62.6%로 나타나 서울의 미래세대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시기는 주로 25~29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서울 미래세대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주로 일하였음	162,035	26.4	456,382	62.6	595,627	72.1	543,179	70.5
틈틈이 일하였음	65,574	10.7	33,461	4.6	22,082	2.7	23,394	3.0
일시휴직	4,009	0.8	10,087	1.4	21,377	2.6	15,449	2.0
일하지 않았음	383,085	62.3	228,896	31.4	187,122	22.6	188,688	24.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 표본), 201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 표본), 2015

[그림 2-8] 서울 미래세대 경제활동상태

산업분류별 취업인구를 살펴보면, 20~24세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19.1%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도매 및 소매업 18.3%, 교육서비스업 11.5% 순으로 나타났다. 25~29세는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아 17.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순위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7%로 나타났다. 30~34세는 도매 및 소매업 17.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8%, 제조업 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35~39세는 도매 및 소매업 17.9%, 제조업 1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서울의 미래세대는 모든 연령층에서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많으며, 20~24세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30세 이상에서는 제조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서울 미래세대 산업분류별 취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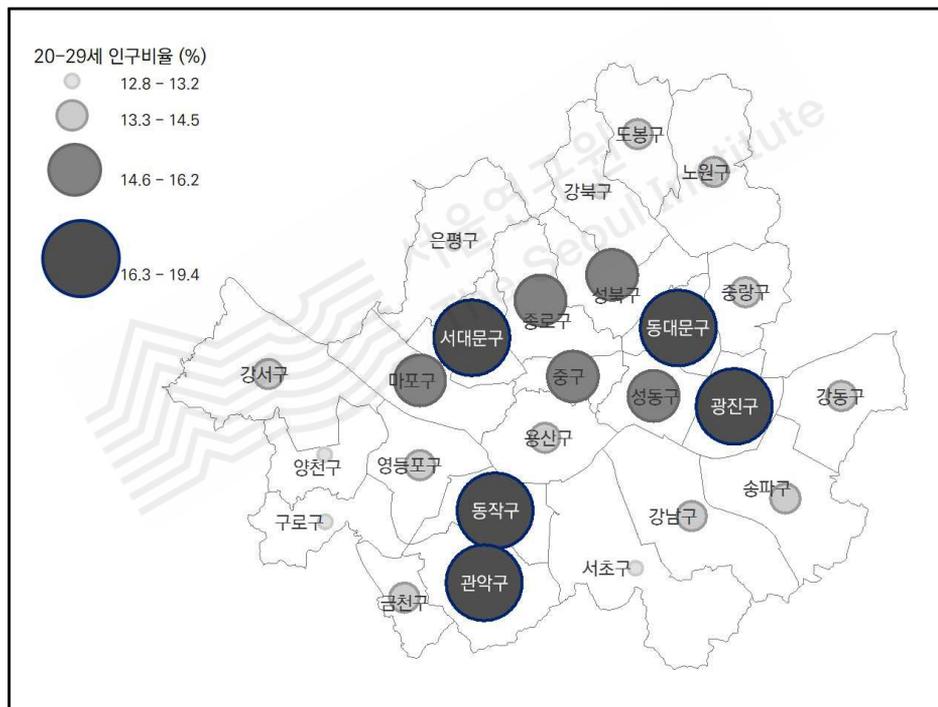
(단위: 명,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제조업	14,537	6.3	48,371	9.7	66,029	10.3	63,089	10.8
도매 및 소매업	42,301	18.3	86,682	17.3	113,143	17.7	104,244	17.9
숙박 및 음식점업	44,350	19.1	40,520	8.1	38,404	6.0	34,537	5.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741	5.9	46,408	9.3	61,917	9.7	51,118	8.8
금융 및 보험업	7,414	3.2	28,719	5.7	45,737	7.2	40,943	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751	6.8	53,524	10.7	68,814	10.8	54,610	9.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301	4.0	21,607	4.3	27,071	4.2	25,895	4.4
교육 서비스업	26,666	11.5	46,021	9.2	53,917	8.4	51,597	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729	9.4	43,474	8.7	43,978	6.9	36,853	6.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310	4.5	14,637	2.9	15,794	2.5	11,946	2.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209	4.8	19,827	4.0	25,936	4.1	23,464	4.0
기타	14,309	6.2	50,140	10.0	78,346	12.3	83,726	14.4
계	231,618	100	499,930	100	639,086	100	582,022	1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 표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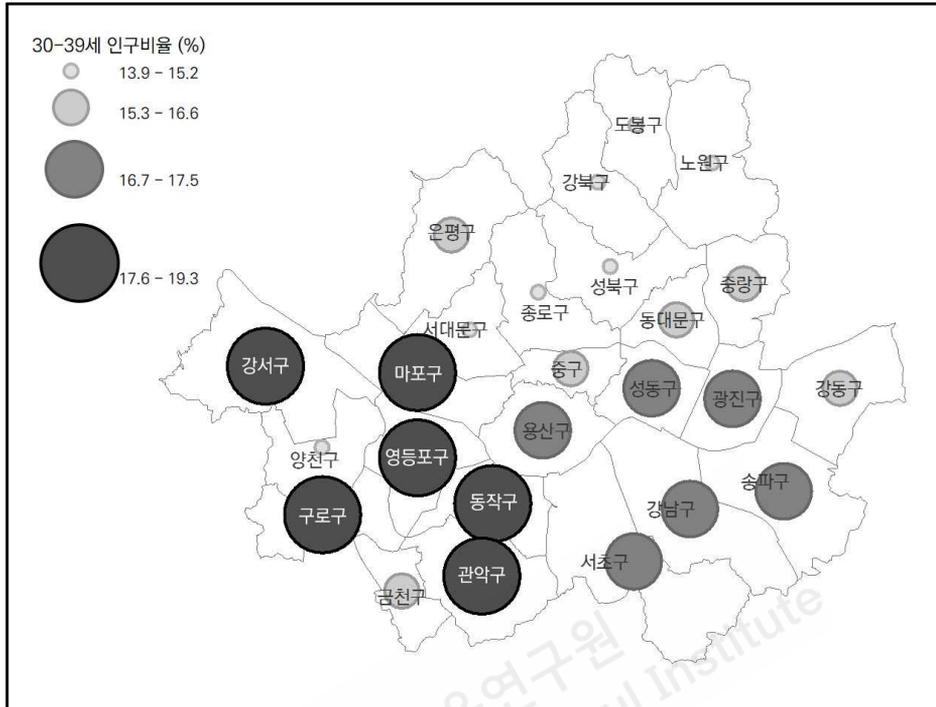
## 2\_지역 공간적 특성

서울시 미래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상의 특징을 구별로 살펴보면, 20~29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관악구(19.4%), 광진구(17.5%), 서대문구(17.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9세 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은 은평구(12.7%), 양천구(12.8%), 강북구(13.0%) 등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 예를 들면 서대문구 신촌동(연세대) 39.6%, 광진구 화양동(건국대) 39.5%, 성동구 사근동(한양대) 37.7%, 동대문구 회기동(경희대) 33.8%, 관악구 신림동(서울대) 33.2% 등에서 20~29세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그림 2-9] 자치구별 20~29세 인구 비교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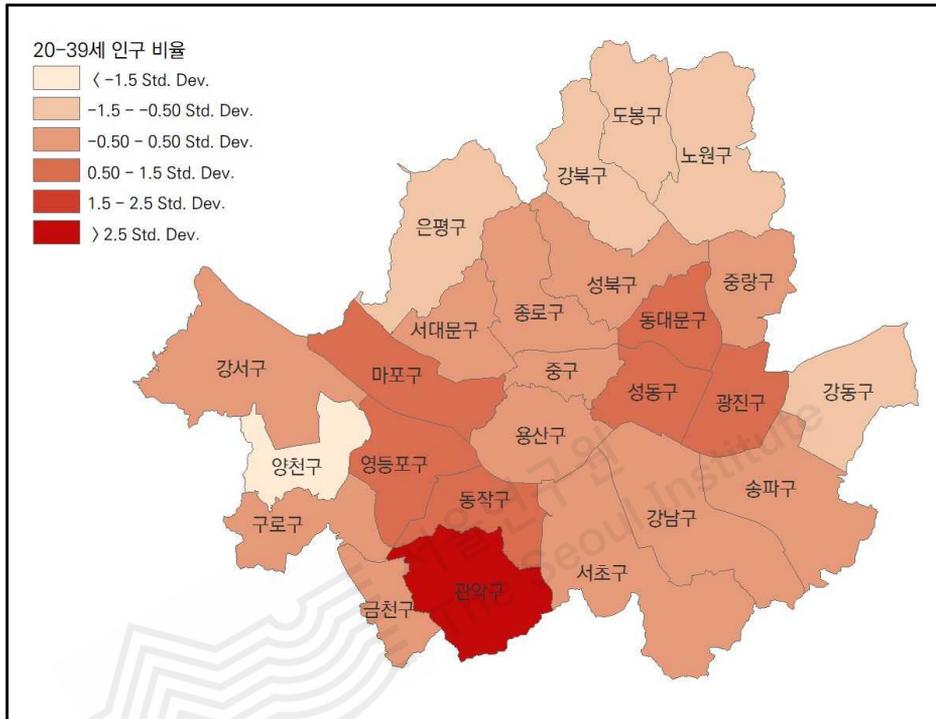
[그림 2-10] 자치구별 30~39세 인구 비교

서울시에 거주하는 30~39세 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30~39세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관악구(19.3%), 마포구(18.7%), 영등포구(18.2%), 강서구(18.2%), 구로구(18.1%) 순이며, 30~39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종로구(13.9%), 양천구(14.2%), 노원구(14.2%), 도봉구(14.2%), 서대문구(14.8%) 순으로 나타났다. 동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역삼1동(29.2%), 강남구 논현1동(27.4%), 관악구 신림동(26.6%), 중구 소공동(26.4%) 등이 30~39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서울시의 20대 인구나 30대 인구가 거주하는 공간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나, 관악구는 20대와 30대 모두 밀집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39세 인구 분포를 표준편차 분류를 사용하여 서울시 평균과 비교해서 큰 값과 작은 값을 나타내보면([그림 2-11]), 관악구가 20~39세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20~39세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마포구,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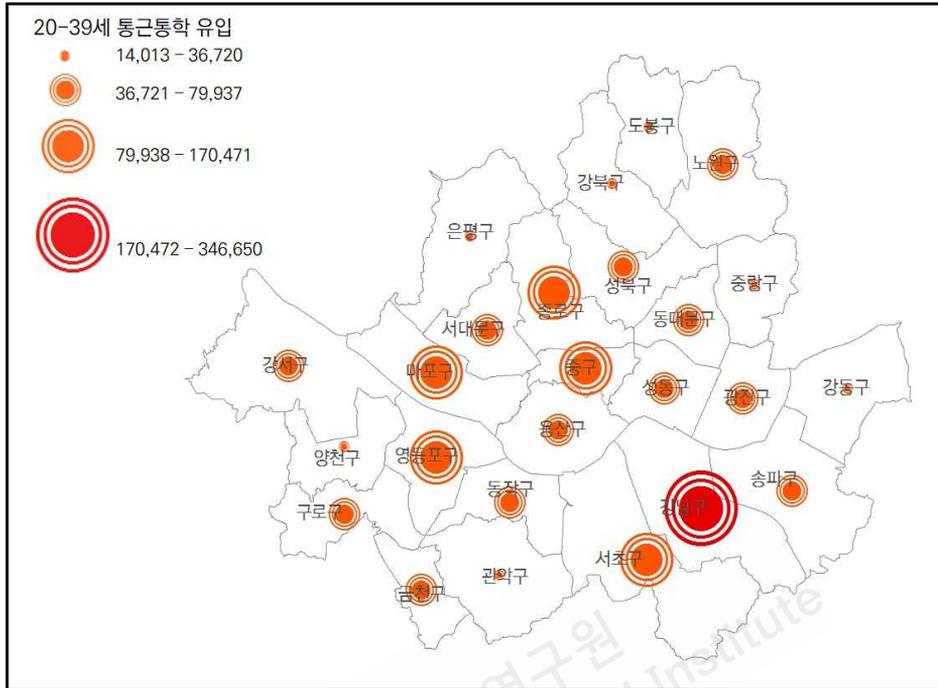
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등이다. 반면, 양천구는 20~39세 인구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20~39세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동구 등임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그림 2-11] 자치구별 미래세대(20~39세) 인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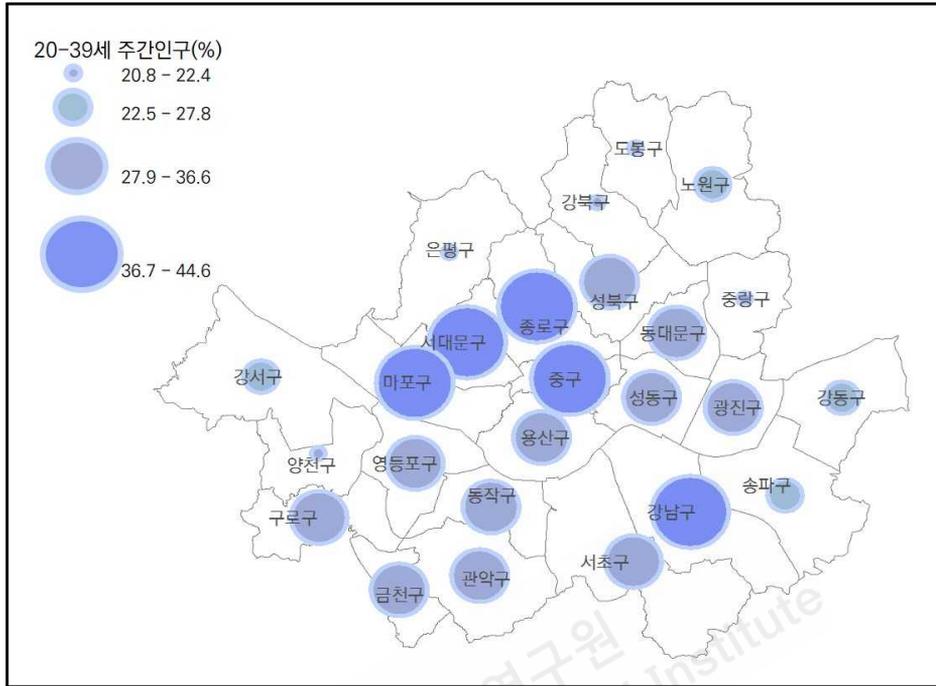
20~39세의 학생과 직장인이 통학과 통근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살펴보면, 강남구가 346,6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170,471명, 서초구 150,107명, 종로구 137,972명, 영등포구 136,108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세대가 통근통학으로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도심과 강남, 여의도 및 영등포 등임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근통학(20% 표본), 2015

[그림 2-12] 자치구별 미래세대(20~39세) 통근통학 유입 비교

주간인구는 상주인구(야간인구)에서 타 지역에서 유입된 통근통학인구(주간유입인구)를 더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통근통학인구(주간유출인구)를 뺀 것을 의미한다. 주간인구는 낮에 활동하는 인구이며, 20~39세 인구가 낮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주간인구 중 20~39세 비율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주간인구 중 20~39세 비율이 높은 지역은 중구 43.4%, 종로구 41.9%, 서대문구 39.1%, 마포구 38.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은평구(20.7%), 도봉구(21.4%), 양천구(21.4%), 강북구(21.6%), 중랑구(22.3%)는 낮에 활동하는 인구 중 20~39세 인구 비율이 낮았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근통학(20% 표본), 2015

[그림 2-13] 자치구별 주간인구 중 미래세대(20-39세) 비율

### 3\_경제·사회적 특성

우리는 세대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 세대를 특징짓는 경제·사회적 키워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88만 원 세대, 유신세대 등이 그 예이다. 세대주의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출생코호트별로 살아온 시대적 경험과 출생코호트 간의 가치관이나 특성이 달라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로서 현재 미래세대는 과거세대와는 다른 사회변화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출생집단과는 상이한 특징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세대별 특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그 세대가 직면한 기회와 위기적인 속성을 상징적으로 투영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세대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위기와 기회의 측면으로 나누어 미래세대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1) 경제적 특징

##### (1) 위기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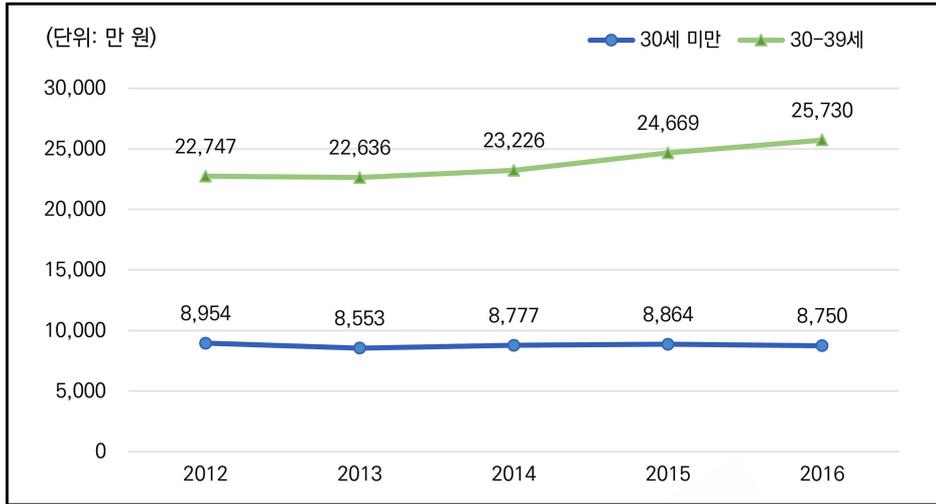
오늘날 미래세대의 경제적 상황을 대표하는 용어로서 '88만 원 세대'는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 원에 20대의 평균소득비율 74%를 곱해 나온 금액을 의미한다(우석훈·박권일, 2007). 88만 원 세대는 생존에 대한 불안감과 서바이벌을 향한 욕망,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보여주면서 독특한 역동성을 나타낸다(김홍중, 2015). 미래세대의 암울한 경제적 현실을 의미하는 88만 원 세대 용어 이후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타나고 있다<sup>4)</sup>. '삼포(三抛)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끝이 없는 취업준비, 감당할 수 없는 주택가격 등 과도한 삶의

4)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청년실산'은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해 실업자가 되고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회 분위기를 풍자한 것이다. 이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사회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 졸업을 계속 미루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족' 또는 'NG(No Graduation)족'이 되기도 하고, 학교라는 동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서 '동지족',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는 '낙타세대', 장기간 미취업자라는 뜻의 '징미족',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이나 31세까지 취업을 못하면 길이 막힌다는 '삼일절' 등 우울한 신조어가 계속 생겨났다("인여인생, 삼포세대, NG족...청년세대의 다른 이름", 주간동아, 2015.3.9., pp.40-41)

비용으로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미래세대가 처한 경제적 현실을 의미한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오포 세대’가 등장하며 취약한 경제적 상황은 결핍과 절망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인생 전반을 암울하게 만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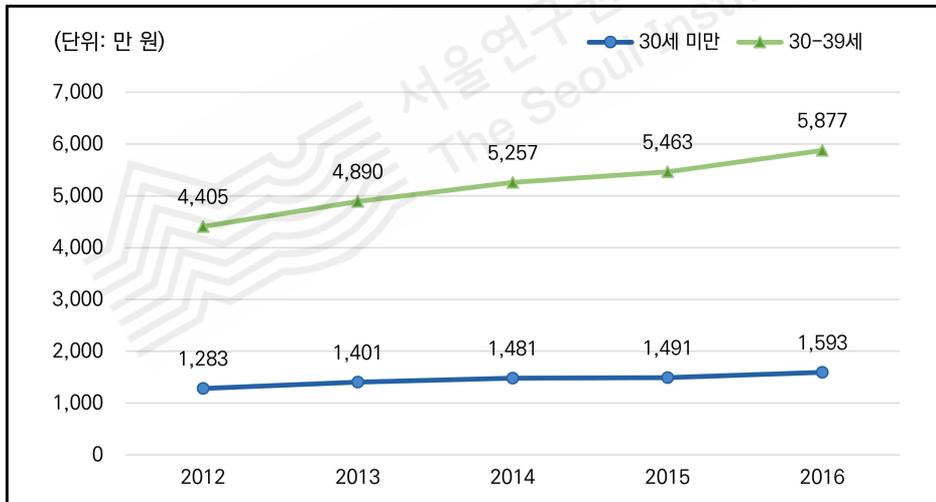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우리나라의 ‘삼포 세대’뿐 아니라 돈벌이나 출세에 관심 없는 일본의 ‘사토리 세대’, 1980~2000년대에 태어나 세계 금융위기를 일찍 겪은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등 전 세계적으로 미래세대에 붙여진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정서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Haven Life Insurance는 2015년,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1,124명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8만이 그들의 자녀가 그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미래세대가 지금의 성인들보다 더 많이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0% 이상이 덜 가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삶의 질에 있어선 40%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2015 Next Generation Reality Report, Haven Life Research).

우리나라 역시 [그림 2-14]와 [그림 2-15]와 같이, 미래세대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패널조사에 따르면, 30~39세 가구주의 자산은 2012년 2억 2,747만 원에 비해 2016년 2억 5,730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 30대 미만 가구주의 자산은 2012년 8,954만 원에 비해 2016년 8,7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여 30~39세 가구주의 부채는 2012년 4,405만 원에서 2016년 5,877만 원으로, 30세 미만 가구주는 2012년 1,283만 원에서 2016년 1,593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2012~2016

[그림 2-14] 미래세대 가구 자산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2012~2016

[그림 2-15] 미래세대 가구 부채 변화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 이상 졸업자의 취업률이 크게 악화되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증가하고, 신용유의자가 증가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2). 미래세대

의 경제적 위기는 고용의 문제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종신고용은 아니더라도 장기고용의 형태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경제적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우석훈, 2009). 미래세대의 취업희망 분야와 제공되는 일자리의 미스매치(mismatch), 산업구조의 변화, 취약한 고용정보와 교육훈련 시스템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요구에 부합하는 통합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기획적 측면

미래세대는 유년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로 신기술에 민감할 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빠른 정보교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 생산이 가능하다. 미래학자이자 세계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가인 Don Tapscott(2008)은 1977년~1997년 출생코호트 집단을 넷 세대(Net Generation), N세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등으로 칭하며, 8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N세대들은 선택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고정적인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노는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한다. 둘째, 상품과 서비스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바꾸며,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상품화되어 있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스스로 개발하기도 한다. 셋째,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에 익숙하며, 학습이나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보다는 동료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넷째,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즐기며, 신문이나 방송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들면 스스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다섯째,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기업의 제품을 불매함으로써 기업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여섯째, 일과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 재미를 추구한다. 일곱째, 속도를 중요시해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메신저로 전 세계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성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특징으로 인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서로 협력하는 글로벌세대를 이룰 수 있으며, 기존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 형성이 가능하다(Tapscott, 2008). 우리사회의 현재 미래세대는 부모세대들이 청년 시절에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 여행과 실시간 국제적 정보 교환의 경험을 통해 생각의

폭과 시야를 국제적 수준에 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미래세대는 소유와 소비 생활에 있어서도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기성세대가 집과 차는 꼭 장만해야 한다는 소유의식을 가진 반면에, 미래세대는 집, 차, 컴퓨터, 옷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sup>5)</sup>를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카 셰어링 이용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이며, 그중에서도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5% 정도에 이른다(2015, 대학내일20대연구소). 미래세대는 소유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삶의 질이나 행복에 비용을 들인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대량생산으로 인한 자원 낭비의 대안으로 등장한 최신의 실용적 트렌드인 공유문화를 경험하는 합리적인 소비세대이다.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소유 욕구를 채우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환경보호뿐 아니라 자신의 개성적이고 유연한 소비패턴을 보이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한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합리적이고 개성적인 소비는 미래의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시장을 견인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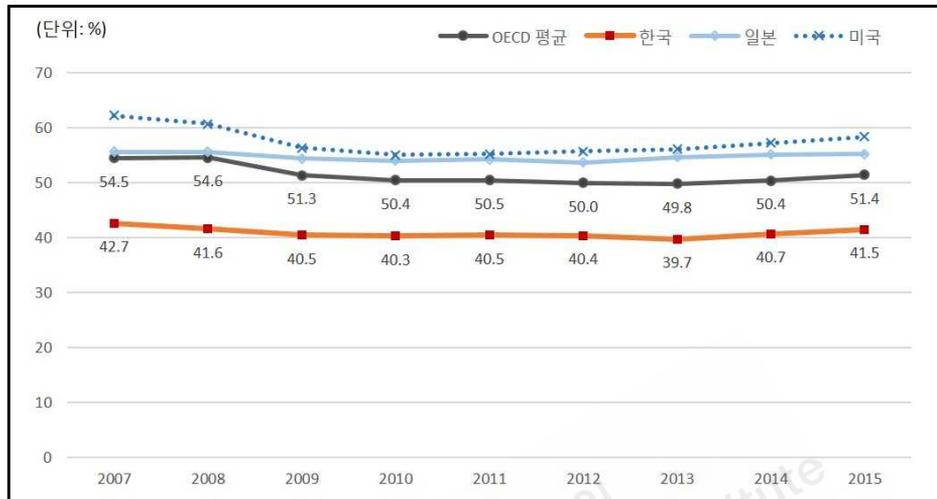
## 2) 사회적 특징

### (1) 위기적 측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생활상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현재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약 10%p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Society at glance 2016). 우리나라 청년은 교육을 받는 기간이 다른 나라들보다 길며, 교육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15~29세의 인구는 OECD 평균인 12%보다 낮은 5%로 나타났다(OECD, Society at glance 2016).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교육 기간에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고용주와의 관계형성을 도와줌으로써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sup>5)</sup>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차, 집, 책 등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제 방식을 의미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생겨났으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꼽기도 하였다(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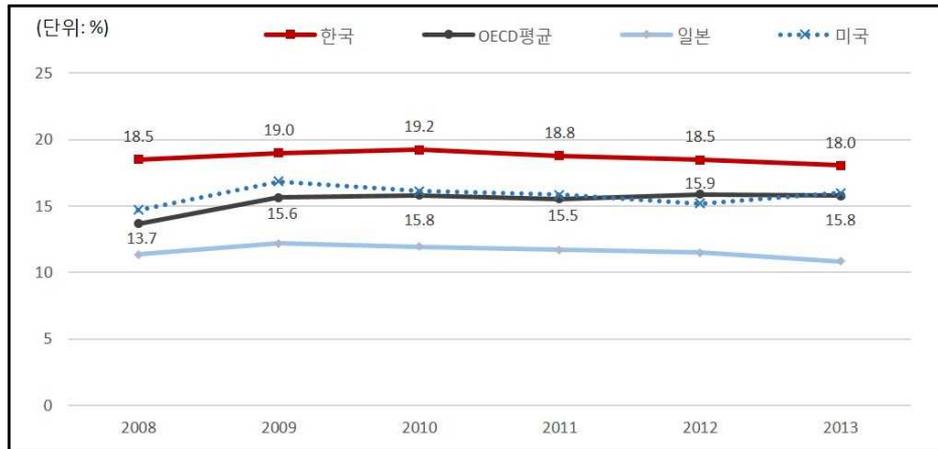
나라 청년들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자료: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http://www.oecd.org/employment/database))

[그림 2-16] OECD 주요국가 청년고용률(2007~2015)

청년니트(NEET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는 일, 교육, 훈련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청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 중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니트(NEET)의 규모는 2013년 18%로 OECD 평균인 16%보다 높다(OECD, Society at glance 2016).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7~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니트의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실업이나 구직을 포기하는 대신에 교육에 더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OECD, 2016). 우리나라의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니트가 될 가능성이 10% 정도 높는데, 이는 OECD 평균 40%에 비해 매우 낮은 격차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첫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평균연령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청년은 가족형성을 30대로 미루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청년여성들이 니트가 되도록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OECD, 2016).



자료: OECD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society-at-a-glance-2016\\_9789264261488-en](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society-at-a-glance-2016_9789264261488-en))

[그림 2-17] OECD 주요국가 청년니트(NEET)비율(2008~2013)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은 편으로, 25~34세 청년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들의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16%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니트가 될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OECD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보다 니트가 될 확률이 3.6배 정도 더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 니트의 상관성이 크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은 대학졸업자보다 단지 1.7배 정도 니트가 될 가능성이 클 뿐이다(OECD, Society at Glance, 2016). 우리나라에서의 니트문제는 기본적으로 능력이나 기술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고용안정, 근로조건 등의 현격한 차이 등 분절화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취업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은 공식적 교육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통계상으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니트로 산정되고 있다(OECD, 2016). 그러므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과거 청년 세대에 비해 오히려 경제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청년 빈곤과 관련해서 청년세대를 세분화할 경우 특히 19~24세와 청년 1인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 김태완·최준영(2017)의 연구에 의하면, 만 19~34세 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생·구직포기자 등 포함) 중에서 일을 해도 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근로빈곤 또는 불안정 고용을 경험한 이들의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37.1%에 이른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의 34.2%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런 비중이 35~54세 중장년층에선 같은 기간 38.1%(2006년)에서 31.1%(2015년)로 줄어 들었다. 근로빈곤을 겪거나 불완전 고용으로 빈곤해질 위험이 있는 청년층이 매년 30%대 증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2005년에 19~34세였던 청년들이 나이가 많아 질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2006년(20~35세) 6.7%였던 상대 소득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은 이들이 29~44세가 된 2015년에도 6.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김태완·최준영, 2017). 연구의 결과는 청년빈곤이 생애 빈곤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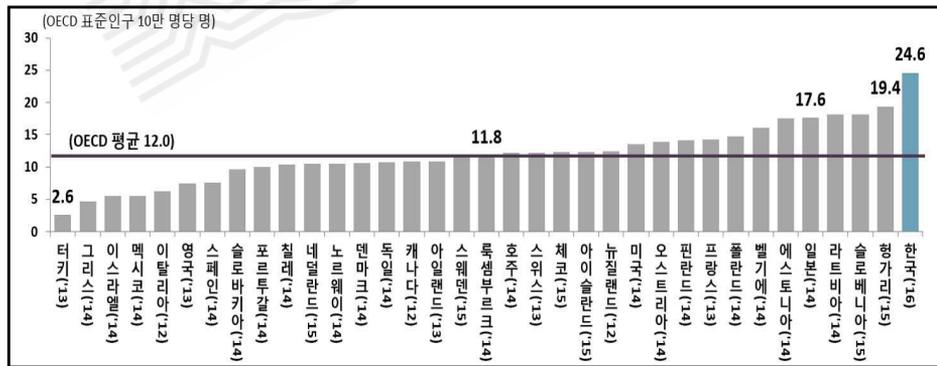
미래세대들의 사망원인을 통해서도 그들의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나타났다. 2015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자살, 운수사고, 암의 순이며, 30대는 자살, 암, 운수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로 사망하는 비율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10대는 2005년 인구 10만 명당 4.2명에서 2015년 4.2명으로 변화가 없었고, 20대는 2005년 인구 10만 명당 17.7명에서 16.4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30대의 경우 2005년 인구 10만 명당 21.7명에서 25.1명으로 증가하였다. 자살과 관련하여 국제 비교를 하면, OECD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12.0명이 자살로 인한 사망인 데 비해, 한국은 10만 명당 25.8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6.9. 보도자료).

[표 2-9] 연령별 3대 사망원인

(단위: %)

연령	1위		2위		3위	
	사 망 원 인	비율	사 망 원 인	비율	사 망 원 인	비율
0세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52.4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21.8	영아 급사 증후군	5.5
1~9세	약성신생물(암)	17.6	운수 사고	14.2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9.1
10~19세	<b>고의적 자해(자살)</b>	<b>27.1</b>	운수 사고	21.4	약성신생물(암)	15.2
20~29세	<b>고의적 자해(자살)</b>	<b>41.3</b>	운수 사고	16.2	약성신생물(암)	12.4
30~39세	<b>고의적 자해(자살)</b>	<b>35.5</b>	약성신생물(암)	21.4	운수 사고	7.6
40~49세	약성신생물(암)	29.1	고의적 자해(자살)	18.5	간 질환	8.5
50~59세	약성신생물(암)	38.8	고의적 자해(자살)	9.7	심장 질환	7.8
60~69세	약성신생물(암)	43.6	심장 질환	9.0	뇌혈관 질환	7.0
70~79세	약성신생물(암)	34.2	심장 질환	10.1	뇌혈관 질환	10.0
80세 이상	약성신생물(암)	16.8	심장 질환	12.3	뇌혈관 질환	10.3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5



자료: OECD Statistics, Health Status Data(2016);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2016.9)

[그림 2-18]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 (2) 기회적 측면

우리나라는 1950년 이후 산업화, 민주화, 자유·개방화, 정보화 등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겪으면서 다양한 세대들을 만들어왔다. 이들 중 많은 연구들은 베이비 붐 세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sup>6)</sup>들에 대해 관심을 보여 왔다(최지영 외, 2015; 이호영 외, 2013; 남기찬·박정호, 2013).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미래세대는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그들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부모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산업화의 역군인 그들의 부모세대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증가된 소득을 가지고 본인들의 성장기에는 할 수 없었던 자동차, 해외여행 등의 소비 생활을 자식들과 함께 공유한다. 베이비부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식교육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여건 속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특징은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접하며, 외국어 구사능력 및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한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2).

둘째, 미래세대는 이들의 부모세대와는 달리 관습, 고정관념, 체면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한다. 이들은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통해 물질적 혜택을 누리며 성장하였으며, 부모세대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성장한 세대들이다. 미래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며,<sup>7)</sup>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며,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령, 2002년 월드컵 이후 거리 응원전을 계기로 미래세대는 한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새로운 세대로 두각을 나타내

6)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출생코호트로서 이들은 급격한 인구증가의 주역이 된 세대들이다.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는 에코세대, 밀레니엄세대, 디지털세대 등으로 다양하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979년~1992년 사이의 14년간 출생코호트를 의미하지만(통계청, 2012; 현대경제연구원, 2012), 이 연구에서는 1978년~1997년의 출생코호트로 2017년 기준 만 20~39세를 기성세대와는 구분하는 의미로 미래세대라고 한다.

7) 이들의 부모세대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단체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경제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반면, 미래세대는 자신이 있어야 국가와 사회가 존재한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통해 삶의 질이나 자아실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http://vision2017.tistory.com/entry/우리-사회의-폭풍학-미래세대를-파헤치다>).

며, 이후 촛불시위와 대선을 통해서 응집력을 상승시켰다(정성호, 2006). 그리고 미래세대는 이전 세대들이 고수한 가족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가족관계, 혼전성관계, 동거 등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기도 한다(이명진, 2009). 그리고 미래세대는 노동집약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 산업사회에서 자라난 그들의 부모들과는 달리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면서 독창적으로 자기만의 역량을 계발하려고 노력하면서 무한경쟁의 현대산업사회에 적응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세대들이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 속에서 혜택을 입은 것과 다르게 미래세대들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생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이전세대들이 모임과 같은 직접적 관계를 중시하여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반면에 미래세대는 IT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 휴대폰 등을 활용한 간접적 관계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도출해 내는 경향이 크다. 그러므로, 이들은 네트워크 세대, 디지털세대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개방성을 가지고 인터넷 온라인 모임, 게임 모임, 채팅, 온라인 카페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한다. 미래세대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맺으며 유비쿼터스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이전 세대들과는 비교되는 특징적 사고이다.<sup>8)</sup>

이렇듯 미래세대가 가지는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풍요로움과 글로벌 마인드,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와 개방성, 온라인 기반의 소통 능력 등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장점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래세대의 경제사회적 특징들을 요약하면 [표 2-10]과 같다.

<sup>8)</sup> <http://vision2017.tistory.com/entry/우리-사회-의-폭풍-해-미래세대를-파헤치다>

[표 2-10] 미래세대 경제사회적 특징

	위기요인	기회요인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성장시대: 취업난 심화</li> <li>· 주거비 부담 심화</li> <li>· 부모세대의 자산가치 하락</li> <li>·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지속</li> <li>· 저출산 고령사회(미래세대의 부담 가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시대(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li> <li>· 다양한 문화 수용</li> <li>· 한류 등 국내 문화 수출</li> <li>· 새로운 상품서비스시장 창출</li> <li>· 시장의 글로벌화, 정보화</li> </ul>
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주의적 성향</li> <li>· 부모 세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li> <li>· 고학력 니트(NEET) 증가</li> <li>· 사회지표 낮은 수준(고용률, 자살률, 빈곤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교육수준과 창의력</li> <li>· 유연한 사고방식</li> <li>· 독창성, 개성, 다양성</li> <li>· 글로벌 마인드, 외국어능력</li> <li>· 개방적 인간관계</li> <li>· 인터넷, 게임, 정보 등 디지털 접근성</li> </ul>



# 03

---

## 서울 미래세대의 행복과 꿈

- 1\_미래세대의 행복
- 2\_미래세대의 꿈

## 03 | 서울 미래세대의 행복과 꿈

### 1\_미래세대의 행복

좋은 삶에 대한 기준이 변화되면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행복 연구 중 퓨리서치센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행복도는 고소득, 기혼자, 그리고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퓨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미국의 세대연구에서는 미래세대인 밀레니엄 세대가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로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침묵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미래세대인 밀레니엄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행복하다는 것이다(PewResearchCenter, 2010).

[표 3-1] 세대별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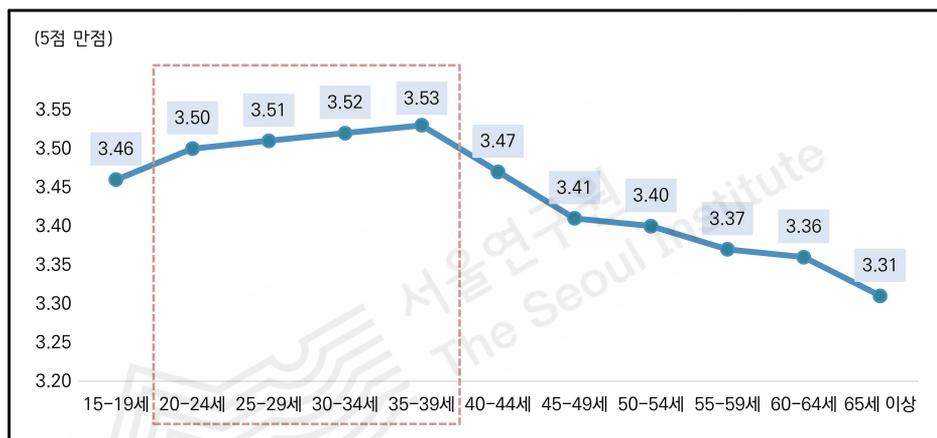
(단위: %)

	합계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응답거부
		매우 행복하다	약간 행복하다		
밀레니엄 세대 (18~29세)	87.0	31.0	56.0	12.0	1.0
X세대 (30~45세)	83.0	27.0	56.0	16.0	1.0
베이비붐 세대 (46~64세)	83.0	29.0	54.0	16.0	2.0
침묵세대 (65세 이상)	77.0	27.0	50.0	20.0	11.0
전체평균	76.0	28.0	54.0	16.0	2.0

출처: PewResearchCenter, 2010, Millennials: Confident. Connected. Open to Change, p.113

한국의 미래세대는 부모 세대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세대의 행복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를 암울하고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2016 제7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sup>9)</sup>, 글로벌 컨설팅사인 딜로이트 컨설팅이 발표한 「2017 딜로이트 밀레니얼 서베이」에서도 한국의 청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딜로이트 밀레니얼 서베이에서는 부모세대보다 더 행복해질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sup>10)</sup>. 반면에, 미래세대의 행복도가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4년 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미래세대(20~39세)의 행복도가 3.50~3.53점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한국에서 미래세대의 행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sup>11)</sup>.



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4년 노동패널조사 분석자료 재인용

출처: 한겨레 21, 한국의 기울어진 행복, 2016년 5월 17일자

[그림 3-1] 한국인의 연령별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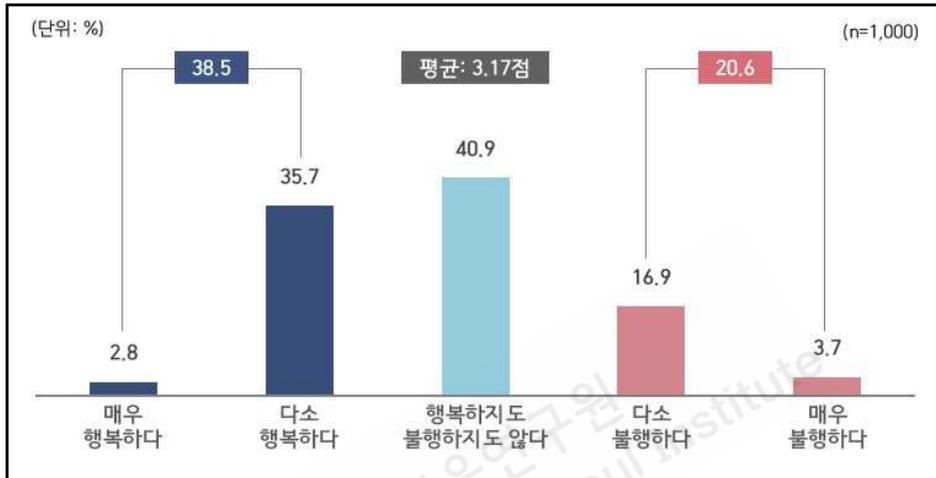
그렇다면 서울의 미래세대는 행복할까? 서울에 거주하는 미래세대(20~3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행복도, 행복한 삶의 중요도, 평소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 요소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미래세대의 전반적인 행복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9) 연합뉴스,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2016년 5월 2일자

10) 동아일보, 미래가 암울한 한국 청년들 “부모세대보다 못살 것, 2017년 2월 7일자

11) 한겨레21, 한국의 기울어진 행복, 2016년 5월 17일자([http://h21.hani.co.kr/arti/HERI/H\\_special/41714.html](http://h21.hani.co.kr/arti/HERI/H_special/41714.html))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미래세대의 38.5%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6%가 불행하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 전반적 행복 정도

일반적으로 연령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패턴은 U자형으로 설명되고 있으나<sup>12)</sup>, 미래세대 서베이에서는 30~34세에서 가장 높은 행복감을 보였고, 다음으로 35~39세, 20~24세, 25~29세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15) 자료를 통해 서울의 미래세대 경제활동상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가 '주로 일하였음'의 비중이 72.1%로 가장 높았으며(20~24세 26.4%, 25~29세 62.6%, 35~39세 70.5%), '일하지 않았음'의 비율이 22.6%로 가장 낮았다(20~24세 62.3%, 25~29세 31.4%, 35~39세 24.5%). 즉, 서울시의 30~34세는 다른 연령층보다 나은 경제활동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sup>12)</sup> 외국의 많은 연구(Oswald, 1997; Blanchflower & Oswald, 2000; Carol Graham, 2009)에 따르면 건강과 국가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 연령과 행복 간의 U자형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나이가 들수록 상황적응능력이 커지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즐기게 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행복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세대별 행복도 차이의 배경과 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529호, p.2)

결혼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인 경향은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행복하다고 알려져 있다(변미리 외, 2014). 미래세대 서베이에서도 기혼자들의 행복도는 3.40점으로 미혼자 3.07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인가구의 행복도(3.06점)보다 2인(3.24점), 3인(3.20점)의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2] 서울 미래세대의 전반적인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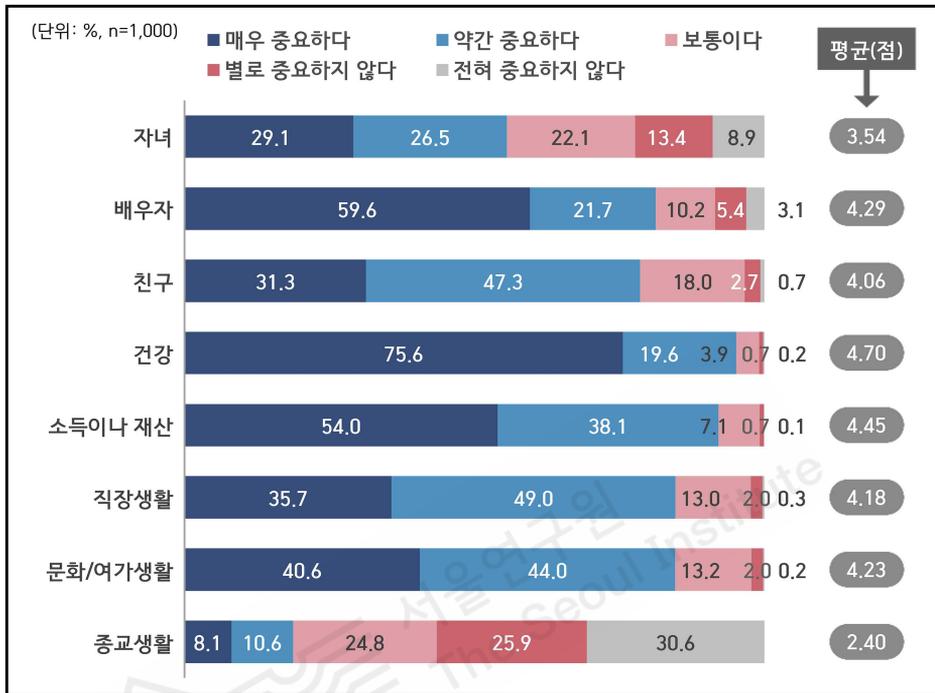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행복하다	다소 행복하다	보통이다	다소 불행하다	매우 불행하다	평균	
전체	1,000	2.8	35.7	40.9	16.9	3.7	3.17	
혼인 상태	미혼	697	2.7	29.6	44.3	18.9	4.4	3.07
	기혼	297	3.0	50.5	32.0	12.5	2.0	3.40
거주 인원	1명	170	1.2	30.0	47.1	17.6	4.1	3.06
	2명	181	2.8	38.1	40.3	17.7	1.1	3.24
	3명	247	2.8	39.3	36.4	17.8	3.6	3.20
	4명	332	3.6	34.0	42.8	15.1	4.5	3.17
	5명 이상	70	2.9	38.6	34.3	18.6	5.7	3.14

종교와 행복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Inglehart(2010)는 종교적 믿음 자체가 삶의 목적성이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면서 개인의 행복감을 높인다고 하였고, Lim & Putnam(2010)은 종교제례(미사나 예배 등)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종교가 개인의 연결망을 형성해주고 이들 연결망을 지지해주는 사회적 소통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변미리, 2014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미래세대의 행복도는 3.26점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3.12점)보다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음의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서울의 미래세대는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 중에 건강(4.70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소득이나 재산'(4.45점), '배우자'(4.29점), '문화/여가생활'(4.23점),

‘직장생활’(4.18점), ‘친구’(4.06점), ‘자녀’(3.54점)의 순이었으며, ‘종교생활’은 2.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3]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정도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상위 3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건강에 대한 중요도는 여성(4.77점)이 남성(4.63점)보다, 기혼(4.76점)이 미혼(4.67점)보다,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중요도는 여성(4.48점)이 남성(4.42점)보다, 미혼(4.48점)이 기혼(4.39점)보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중요도는 남성(4.33점)이 여성(4.26점)보다 기혼(4.61점)이 미혼(4.17점)보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 요소는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세 번째 중요요소로 남성은 배우자, 여성은 문화/여가생활로 응답하였다.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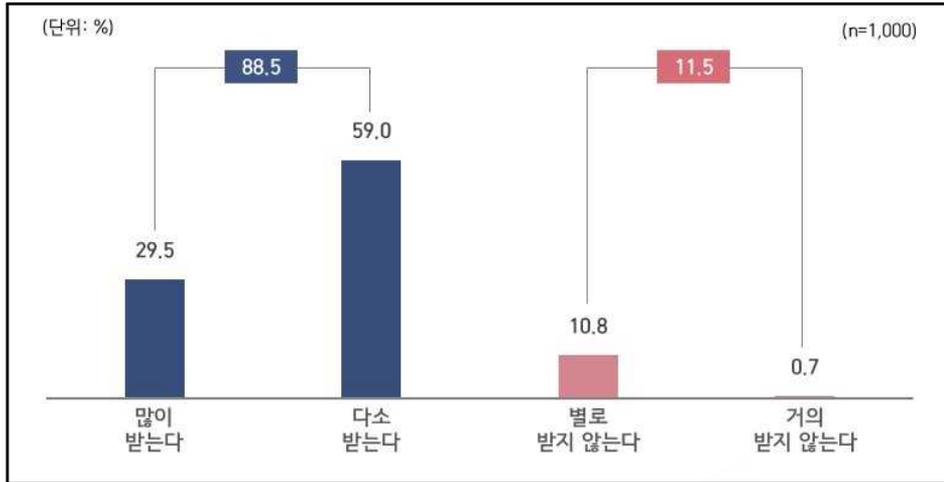
령별로 살펴보면, 20~24세와 25~29세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30~34세는 배우자, 35~39세는 배우자와 직장생활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자들은 건강, 소득이나 재산, 직장생활을 중요하다고 선택한 반면 기혼자들은 건강,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성/연령/결혼여부에 따른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요소

(단위: 점)

구분		자녀	배우자	친구	건강	소득 이나 재산	직장 생활	문화/ 여가 생활	종교 생활
성별	남자	3.54	4.29	4.06	4.70	4.45	4.18	4.23	2.40
	여자	3.69	4.33	4.06	4.63	4.42	4.11	4.16	2.34
연령	20~24세	3.39	4.22	4.17	4.65	4.52	4.18	4.28	2.28
	25~29세	3.31	4.22	4.16	4.67	4.47	4.24	4.38	2.27
	30~34세	3.54	4.39	3.99	4.73	4.36	4.17	4.19	2.51
	35~39세	3.85	4.32	3.93	4.73	4.47	4.13	4.07	2.50
혼인 상태	미혼	3.27	4.17	4.10	4.67	4.48	4.21	4.29	2.32
	기혼	4.16	4.61	3.95	4.76	4.39	4.10	4.08	2.58

세 번째, 미래세대의 평소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귀하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설문 결과 미래세대 10명 중 9명 정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88.5%)고 응답하였고, 11.5%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미래세대 대부분이 평소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4] 평소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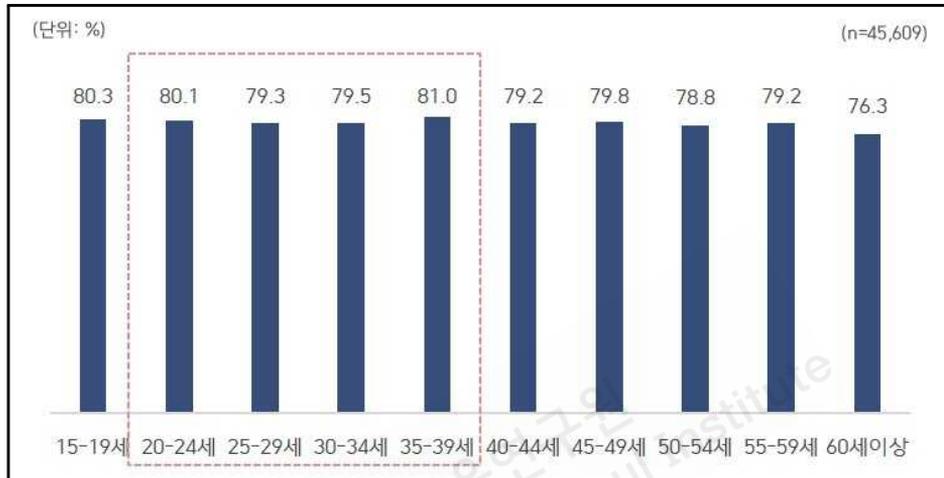
스트레스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성/연령별 스트레스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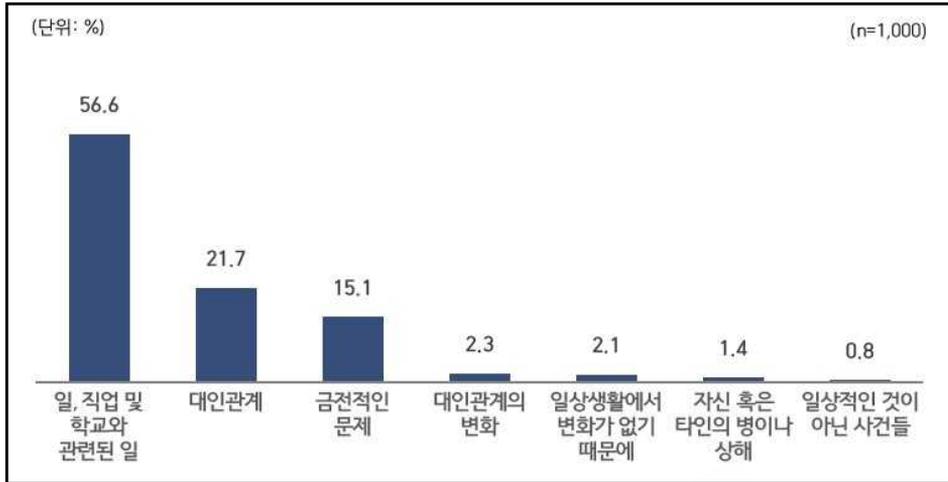
구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많이 받는다	다소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거의 받지 않는다			
전체	88.5	29.5	59.0	11.5	10.8	0.7	
성별	남자	85.4	25.0	60.4	14.6	13.4	1.2
	여자	91.6	34.0	57.6	8.4	8.2	0.2
연령	20~24세	84.0	28.4	55.6	16.0	14.7	1.3
	25~29세	85.9	29.7	56.2	14.1	13.7	0.4
	30~34세	89.8	29.0	60.8	10.2	9.4	0.8
	35~39세	93.4	30.6	62.7	6.6	6.3	0.4
학력	고졸 이하	91.8	34.0	57.7	8.2	5.2	3.1
	대졸(재학 포함)	88.2	28.1	60.1	11.8	11.3	0.5
	대학원(재학) 이상	87.9	34.0	53.9	12.1	12.1	0.0
혼인 상태	미혼	87.1	28.7	58.4	12.9	12.3	0.6
	기혼	91.6	31.3	60.3	8.4	7.4	1.0

2017 서울서베이에서도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미래세대 10명 중 7~8명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39세가 81.0%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평소 스트레스 정도(2017 서울서베이)

네 번째로, 미래세대가 어떠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가 지난 한 달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어떤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하였다. 미래세대는 ‘일, 직업 및 학교와 관련된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21.7%), ‘금전적인 문제’(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대인관계의 변화’,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신 혹은 타인의 병이나 상해’, ‘일상적인 것이 아닌 사건들’은 모두 3% 미만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스트레스 순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등과 무관하게 일, 직업 및 학교와 관련된 일, 대인관계, 금전적인 문제 순이었으나, 20~24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3.6%로 다른 연령(1.6~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은 200만 원 미만에서는 대인관계(15.2%)보다 금전적인 문제(23.9%)가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2017 서울서베이에서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과도한 업무/과도한 학습량이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인관계, 건강상태, 재정상태 순이었다. 밀레니엄세대(20~34세)의 경우 미래세대 서베이와 동일하게 과도한 업무/과도한 학습량, 대인관계, 재정상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스트레스 영향요인(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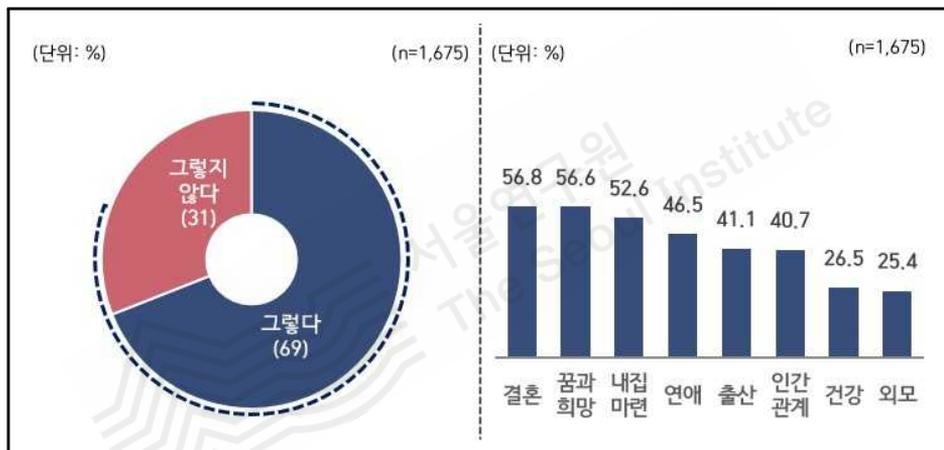
	건강 상태	재정 상태	가족, 친구와의 관계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	과도한 업무/과도한 학습량	실업	가정관리
20~24세	10.8	11.4	8.6	19.3	30.9	12.7	6.1
25~29세	9.8	11.4	9.5	22.2	29.1	11.2	6.7
30~34세	11.5	11.9	9.1	19.8	25.4	11.4	10.9
35~39세	12.0	11.5	7.2	21.6	24.5	11.7	11.5
서울시 전체	14.9	12.1	8.5	18.0	25.4	12.0	9.1

주: 기타 제외

출처: 2017 서울서베이

## 2\_미래세대의 꿈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는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의 증가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서, 대인관계와 내집마련도 포기한 5포세대, 희망과 꿈까지 포기한 7포세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N포세대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인 사람인에서 20~30대 남녀 1,675명에게 '당신은 N포세대에 속하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명 중 7명(69%)이 그렇다<sup>13)</sup>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청년이 포기한 것으로는 결혼(56.8%), 꿈과 희망(56.6%), 내집마련(52.6%), 연애(46.5%), 출산(41.1%), 인간관계(4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우리는 왜 'N포세대'가 됐나, 세계일보, 2016년 2월 1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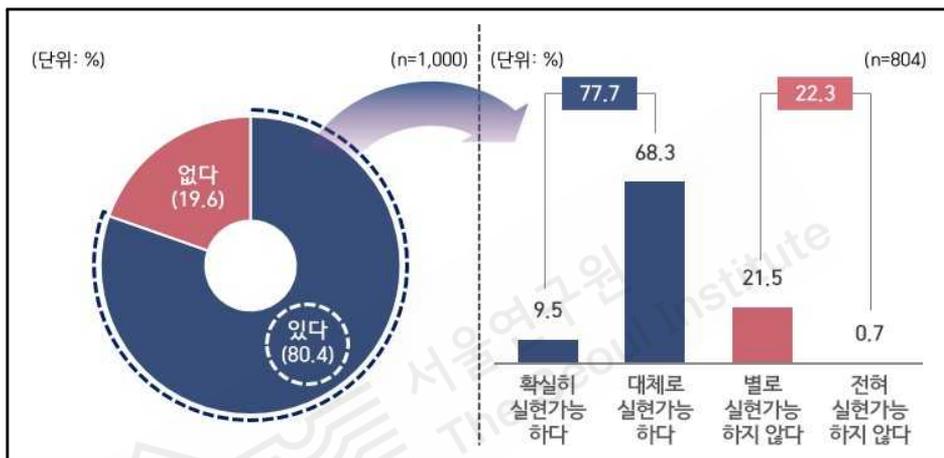
[그림 3-3] 당신은 N포세대에 속하느냐(좌), 무엇을 포기했느냐(우)

이처럼 한국의 청년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극심한 취업난을 피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서는 '잡 노마드(job nomad)'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의 미래세대들은 어떨까? 그들도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 미래세대가 미래에 이루길 원하는 꿈이 있는지, 만약 꿈이 있다면 실현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꿈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지원

<sup>13)</sup> 우리는 왜 'N포세대'가 됐나, 세계일보, 2016년 2월 10일자

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첫 번째로 미래세대가 꿈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꿈이 있다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귀하가 미래에 꼭 이루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미래세대의 10명 중 8명(80.4%)은 꿈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82.6%)이 여성(78.2%)보다, 기혼(82.8%)이 미혼(79.5%)보다, 1인가구가,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미래에 이루길 원하는 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미래에 이루길 원하는 꿈 유무(좌), 꿈의 실현가능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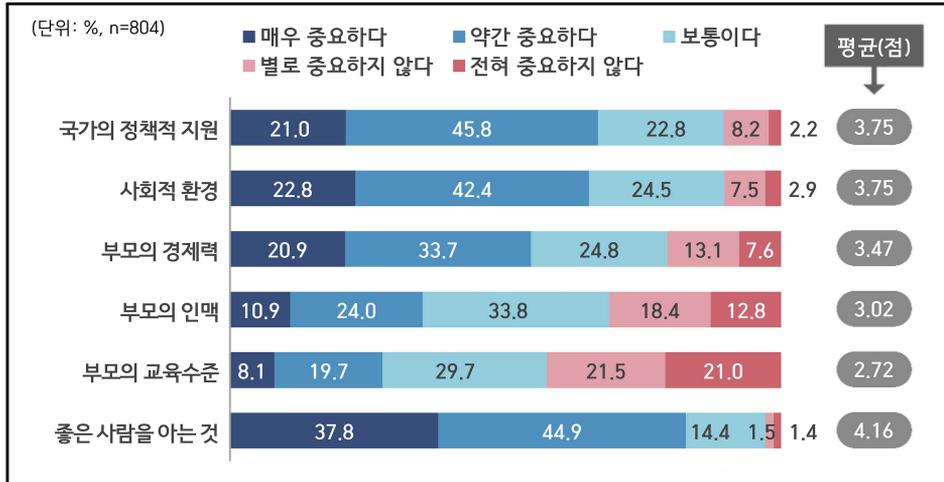
미래에 꼭 이루었으면 하는 꿈이 있다고 응답한 미래세대에게 그 꿈이 실현가능한지를 질문한 결과, 77.7%는 실현가능하다고 응답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일수록 꿈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월소득이 낮을수록, 블루칼라/자영업, 월세로 거주하는 미래세대는 꿈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표 3-6] 미래에 이루길 원하는 꿈과 실현 가능 정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미래에 이루길 원하는 꿈 여부		사례수	꿈의 실현 가능 정도						
		있다	없다		실현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			
					확실히 실현 가능하다	대체로 실현 가능하다		별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		
전체	1,000	80.4	19.6	804	77.7	9.5	68.3	22.3	21.5	0.7	
성별	남자	500	82.6	17.4	413	77.0	11.4	65.6	23.0	22.3	0.7
	여자	500	78.2	21.8	391	78.5	7.4	71.1	21.5	20.7	0.8
학력	고졸 이하	97	75.3	24.7	73	63.0	11.0	52.1	37.0	35.6	1.4
	대졸(재학 포함)	762	80.7	19.3	615	78.7	8.8	69.9	21.3	20.5	0.8
	대학원(재학) 이상	141	82.3	17.7	116	81.9	12.1	69.8	18.1	18.1	0.0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81.7	18.3	89	70.8	5.6	65.2	29.2	28.1	1.1
	화이트칼라	561	78.6	21.4	441	76.9	9.3	67.6	23.1	22.2	0.9
	가정주부	32	84.4	15.6	27	77.8	14.8	63.0	22.2	22.2	0.0
	학생	221	84.6	15.4	187	82.4	9.6	72.7	17.6	17.1	0.5
	무직/기타	77	77.9	22.1	60	80.0	13.3	66.7	20.0	20.0	0.0
혼인 상태	미혼	697	79.5	20.5	554	75.8	8.8	67.0	24.2	23.1	1.1
	기혼	297	82.8	17.2	246	81.7	10.6	71.1	18.3	18.3	0.0

두 번째,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귀하는 꿈을 실현하는 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미래세대는 ‘좋은 사람을 아는 것(4.16점)’이 꿈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3.75점), ‘사회적 환경’(3.75점) ‘부모의 경제력’(3.47점), ‘부모의 인맥’(3.02점)의 순이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2.7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미래세대들은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수저계급론과 같이 부모의 경제력이나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국가의 지원이나 사회의 환경(트렌드, 유행),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등과 같이 사회적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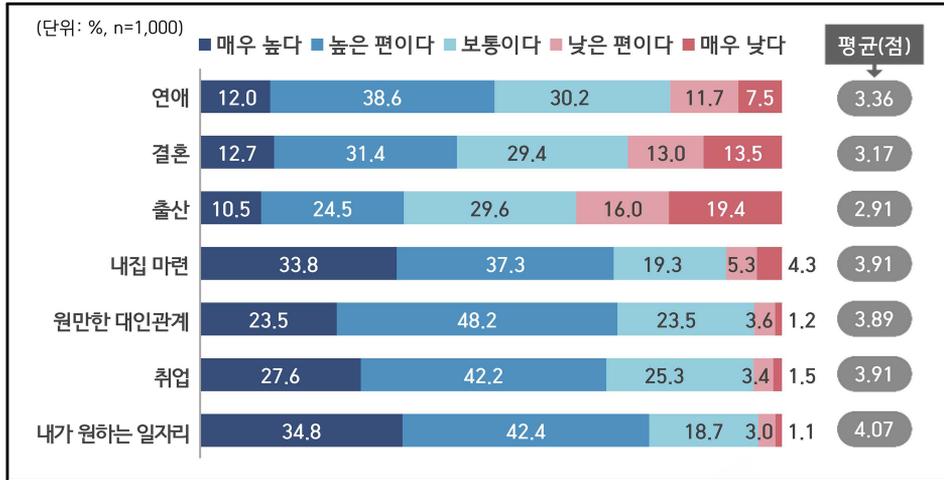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정도를 각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35~39세, 학력이 높을수록, 5명 이상의 가구원과 함께 살수록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사회적 환경은 남성이 여성보다, 기혼(3.82점)이 미혼(3.72점)보다, 25~29세, 1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동거 가구원 4인~5인 이상 계층에서, '부모의 인맥'은 남성이 여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20~24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동거 가구원이 3인 또는 4인일 때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을 아는 것'의 경우 20~24세와 25~29세, 미혼이 기혼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1인가구에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표 3-7] 서울 미래세대 배너별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정도

(단위: 명, 점,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국가의 정책적 지원	사회적 환경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인맥	부모의 교육수준	좋은 사람을 아는 것
전체		804	3.75	3.75	3.47	3.02	2.72	4.16
성별	남자	413	3.64	3.78	3.46	3.06	2.81	4.16
	여자	391	3.87	3.71	3.49	2.97	2.63	4.16
연령	20~24세	179	3.72	3.65	3.55	3.07	2.77	4.26
	25~29세	202	3.77	3.82	3.40	3.03	2.73	4.26
	30~34세	208	3.74	3.76	3.43	2.91	2.60	4.03
	35~39세	215	3.78	3.74	3.51	3.06	2.80	4.12
학력	고졸 이하	73	3.60	3.70	3.32	2.93	2.59	4.07
	대졸(재학 포함)	615	3.76	3.74	3.47	2.98	2.70	4.16
	대학원(재학) 이상	116	3.82	3.84	3.59	3.26	2.94	4.24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89	3.67	3.69	3.40	3.00	2.76	4.07
	화이트칼라	441	3.80	3.77	3.42	2.99	2.67	4.14
	가정주부	27	4.07	3.96	3.63	3.11	3.00	4.26
	학생	187	3.64	3.67	3.56	3.10	2.80	4.24
	무직/기타	60	3.73	3.85	3.60	2.93	2.65	4.20
	혼인 상태	미혼	554	3.72	3.72	3.50	3.01	2.70
기혼	246	3.83	3.82	3.44	3.05	2.78	4.11	
함께 거주 하는 가구원	1명	140	3.76	3.89	3.32	2.92	2.54	4.23
	2명	147	3.82	3.60	3.22	2.91	2.55	4.05
	3명	193	3.68	3.78	3.51	3.05	2.84	4.12
	4명	267	3.73	3.75	3.63	3.10	2.83	4.22
	5명 이상	57	3.86	3.67	3.65	3.04	2.70	4.18

세 번째 미래세대들에게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꿈이나 욕망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4.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취업’(3.91점), ‘내집 마련’(3.91점), ‘원만한 대인관계’(3.89점), ‘연애’(3.36점), ‘결혼’(3.17점) 순이었으며, ‘출산’은 2.91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3-10] 꿈꾸는 정도

각 항목별로 중요 정도를 살펴보면, ‘연애’의 경우 20~24세, 25~29세, 학생, 1인가구에서, ‘결혼’은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 화이트칼라, 월소득 700만 원 이상에서, ‘출산’은 30~34세, 가정주부, 기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집 마련’의 경우 서북권, 화이트칼라, 기혼, 동거 가구원 5인 이상에서 높았고, ‘원만한 대인관계’는 학생, 월세거주자, 동거가구원 5인 이상에서, ‘취업’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 학생, 미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일자리’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 20~24세, 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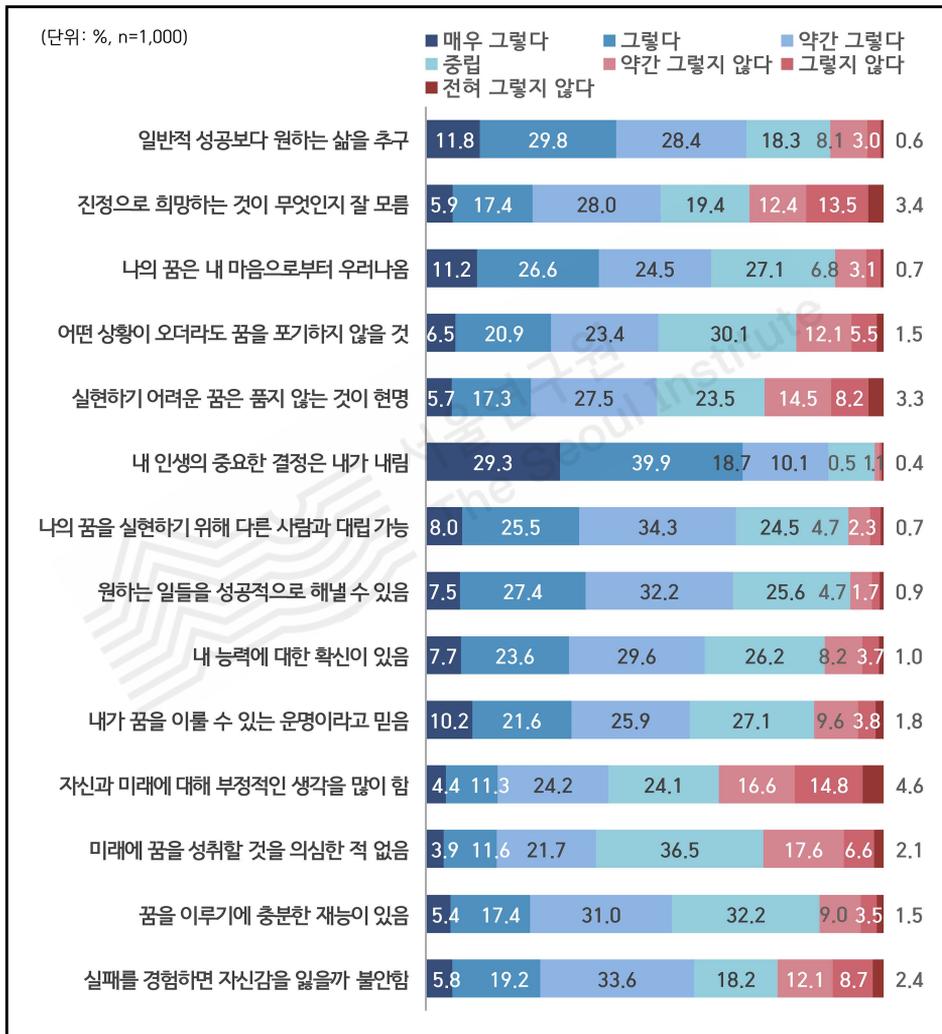
[표 3-8] 꿈꾸는 정도

(단위: 명, 점,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원만한 대인관계	취업	내가 원하는 일자리
전체		1,000	3.36	3.17	2.91	3.91	3.89	3.91	4.07
성별	남자	500	3.41	3.30	3.16	3.91	3.88	3.88	4.03
	여자	500	3.31	3.03	2.66	3.91	3.91	3.94	4.10
연령	20~24세	225	3.46	3.05	2.81	3.95	3.97	4.07	4.26
	25~29세	249	3.46	3.17	2.80	3.89	3.96	4.02	4.17
	30~34세	255	3.29	3.26	3.04	3.99	3.82	3.80	3.91
	35~39세	271	3.24	3.17	2.96	3.82	3.83	3.78	3.96
학력	고졸 이하	97	3.18	2.86	2.59	3.74	3.84	3.82	4.00
	대졸(재학 포함)	762	3.37	3.19	2.92	3.94	3.90	3.91	4.07
	대학원(재학) 이상	141	3.40	3.27	3.06	3.84	3.89	3.98	4.13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3.12	3.13	3.00	3.68	3.65	3.60	3.83
	화이트칼라	561	3.38	3.27	2.98	4.01	3.90	3.88	4.01
	가정주부	32	3.13	3.13	3.19	3.91	3.88	3.72	3.91
	학생	221	3.50	3.08	2.80	3.90	4.01	4.12	4.30
	무직/기타	77	3.27	2.77	2.40	3.57	3.86	4.01	4.23
혼인 상태	미혼	697	3.42	3.06	2.73	3.86	3.91	3.96	4.12
	기혼	297	3.22	3.43	3.33	4.03	3.86	3.80	3.96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1명	170	3.48	3.09	2.74	3.81	3.91	3.95	4.07
	2명	181	3.36	3.31	2.99	3.91	3.92	3.83	3.97
	3명	247	3.26	3.15	2.98	3.93	3.79	3.81	4.01
	4명	332	3.36	3.15	2.89	3.92	3.91	3.99	4.15
	5명 이상	70	3.41	3.16	2.91	4.01	4.04	3.99	4.16

마지막으로 미래세대가 꿈을 추구하는 방식을 파악하고자 총 14개 항목에 관해 「다음에 주어지는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미래세대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반적 성공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70.0%),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결국 내가 내리는 것'(87.9%)이라고 응답하여 서울의 미래세대는 자신의 꿈에 대해 주체적으로 선택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세대의 절반 이상은 '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67.1%), '내 능력

에 대한 확신이 있다'(60.9%),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재능이 있다'(53.8%)고 응답하여 스스로 꿈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현하기 어려운 꿈은 품지 않는 것이 현명'(50.5%),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함'(39.9%),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감을 잃을까 봐 불안함'(58.6%) 등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꿈을 추구하는 방식

꿈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각 항목별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성공보다 원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항목에 ‘그렇다’는 응답은 여성, 25~29세, 미혼, 학력이 높을수록, 1인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여성, 미혼, 학력이 낮을수록, 블루칼라/자영업, 5인가구 이상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의 꿈은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왔다’는 항목에 ‘그렇다’는 응답은 남성, 기혼,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블루칼라/자영업 계층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남성, 30~34세, 미혼,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 1인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현하기 어려운 꿈은 품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항목에 ‘그렇다’는 응답은 남성, 30~34세, 미혼, 학력이 낮을수록, 블루칼라/자영업, 보수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것이다’는 여성, 35~39세, 기혼,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대립 가능’하다는 항목은 남성, 미혼, 1인 가구, 학력이 높을수록, 월소득 700만 원 이상, 진보 계층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원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남성, 25~29세, 기혼, 학력이 높을수록, 1인 가구, 월소득 700만 원 이상인 계층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항목에 ‘그렇다’는 응답은 남성, 30~34세, 기혼, 학력이 높을수록, 보수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운명이라고 믿는다’는 남성, 25~29세, 기혼, 학력이 높을수록, 월소득 700만 원 이상인 계층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항목은 여성, 20~24세, 미혼, 무직, 학력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고, ‘미래에 꿈을 성취할 것을 의심한 적 없다’는 남성, 35~39세, 기혼, 학력이 높을수록, 보수 계층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재능이 있다’는 항목은 남성, 30~34세, 블루칼라/자영업,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 월소득 700만 원 이상인 계층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감을 잃을까 불안’하다는 항목은 여성, 20~24세, 학생, 미혼, 5인 이상 가구, 보수 계층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04

---

## 서울 미래세대의 마음과 감정

- 1\_미래세대의 성격
- 2\_미래세대의 문제해결 방식

## 04 | 서울 미래세대의 마음과 감정

### 1\_미래세대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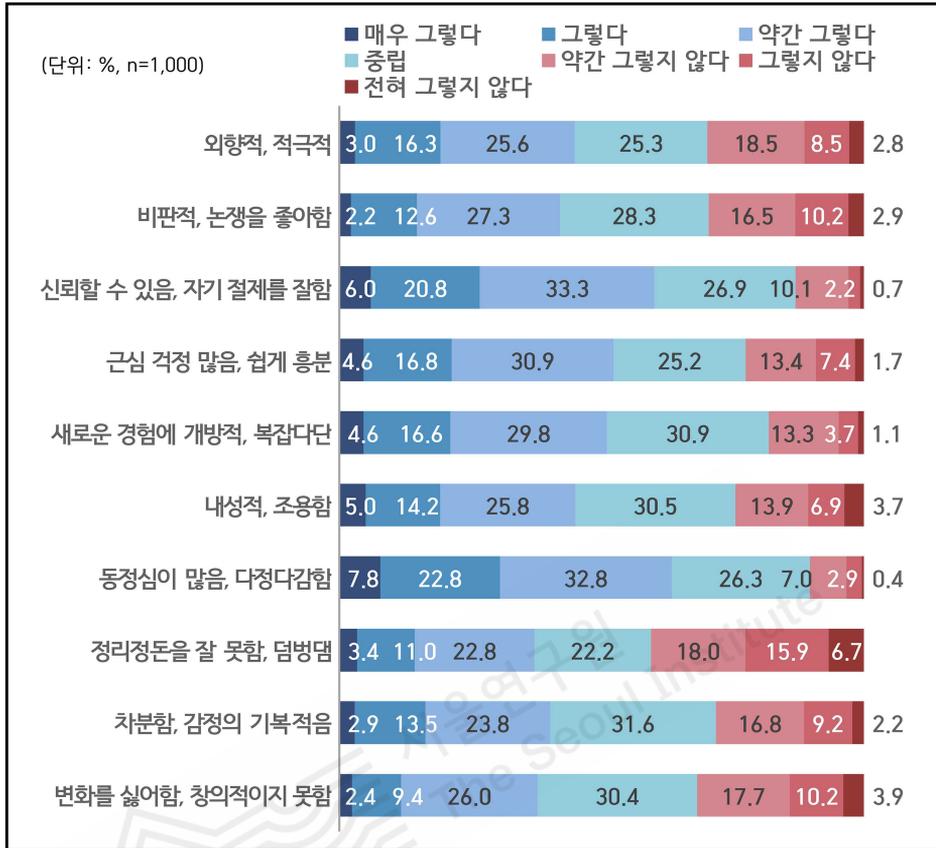
#### 성격 특성

첫 번째로, 미래세대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의 성격 특성을 표현하는 10개의 문장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10개 문장은 [표 4-1]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4-1] 성격 특성 구분

구분 1	구분 2
외향적이다, 적극적이다	내성적이다, 조용하다
비판적이다, 논쟁을 좋아한다	동정심이 많다, 다정다감하다
신뢰할 수 있다, 자기 절제를 잘 한다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 덤벙댄다
근심 걱정이 많다, 쉽게 흥분하다	차분하다, 감정의 기복이 적다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 복잡다단하다	변화를 싫어한다, 창의적이지 못하다

서울 미래세대의 10명 중 6명 이상은 본인 성격이 ‘동정심이 많다, 다정다감하다’(63.4%), ‘신뢰할 수 있다, 자기 절제를 잘 한다’(60.1%)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근심 걱정이 많다, 쉽게 흥분하다’(52.3%),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 복잡다단하다’(51.0%)고 응답하였다. 절반 이하의 긍정 비율을 나타낸 성격은 ‘내성적이다, 조용하다’(45.0%), ‘외향적이다, 적극적이다’(44.9%), ‘비판적이다, 논쟁을 좋아한다’(42.1%), ‘차분하다, 감정의 기복이 적다’(40.2%), ‘변화를 싫어한다, 창의적이지 못하다’(37.8%),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 덤벙댄다’(37.2%)였다.



[그림 4-1] 성격 특성

미래세대의 성격으로 가장 높은 긍정 비율을 보인 '동정심이 많다, 다정다감하다'라는 성격은 월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68.8%~71.1%), 5명 이상 함께 거주(70.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비율을 나타냈다. 전자와 대조적인 성격 특성인 '비판적이다, 논쟁을 좋아한다'라는 성격은 무직/기타(55.8%)와 대학원(재학) 이상(51.8%)에서 높은 긍정 비율을 보였다. 한편, 두 가지 성격 모두 연령별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비판적이고 논쟁을 좋아하는 성격은 여성(36.4%)보다 남성(47.8%)이, 동정심이 많은 성격은 남성(60.8%)보다 여성(66.0%)이 더 긍정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성격 특성-비판적/동정심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비판적이다, 논쟁을 좋아한다				동정심이 많다, 다정다감하다				
		그렇다	중립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그렇다	중립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전체	1,000	42.1	28.3	29.6	4.14	63.4	26.3	10.3	4.88	
성별	남자	500	47.8	28.4	23.8	4.32	60.8	28.8	10.4	4.85
	여자	500	36.4	28.2	35.4	3.95	66.0	23.8	10.2	4.91

미래세대의 성격으로 두 번째로 높은 긍정 비율을 보인 '신뢰할 수 있다, 자기 절제를 잘 한다'라는 성격은 대학원(재학) 이상의 고학력자(73.8%)와 기혼자(66.7%)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52.9%에서 62.4%까지)이 나타났다. 이와 상대적인 성격 특성인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 덤벙댄다'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비율이 증가하는 경향(33.8%에서 43.5%까지)이 나타났다. 연령이 많은 미래세대가 연령이 적은 미래세대보다 신뢰가 높고, 자기절제성이 있으며 정리정돈을 잘하고 덤벙대지 않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4-3] 성격 특성-자기절제/덤벙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신뢰할 수 있다, 자기 절제를 잘 한다				정리정돈을 잘못한다, 덤벙댄다				
		그렇다	중립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그렇다	중립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전체	1,000	60.1	26.9	13.0	4.76	37.2	22.2	40.6	3.85	
연령	20~24세	225	52.9	28.9	18.2	4.56	42.2	24.0	33.8	4.09
	25~29세	249	59.8	27.3	12.9	4.78	40.2	20.9	39.0	3.94
	30~34세	255	64.3	23.5	12.2	4.84	32.5	22.4	45.1	3.71
	35~39세	271	62.4	28.0	9.6	4.84	34.7	21.8	43.5	3.70

미래세대의 성격으로 세 번째로 높은 긍정 비율을 보인 '근심 걱정이 많다, 쉽게 흥분한다'는 성격은 불행한 계층(68.9%)과 무직인 계층(64.9%)에서 높은 긍정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상대적인 성격 특성인 '차분하다, 감정의 기복이 적다'라는 성격은 대학원(재학) 이상(49.6%)과 개신교(47.6%)에서 높은 긍정비율을 보여줬다. 한편, 두 가지

성격 모두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성별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근심걱정이 많고 쉽게 흥분하는 성격은 남성(46.4%)보다 여성(58.2%)이, 차분하고 감정의 기복이 적은 성격은 여성(32.6%)보다 남성(47.8%)이 더 높은 긍정 비율을 나타냈다.

[표 4-4] 성격 특성-근심걱정/차분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근심 걱정이 많다, 쉽게 흥분한다				차분하다, 감정의 기복이 적다				
		그렇다	중립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그렇다	중립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전체	1,000	52.3	25.2	22.5	4.45	40.2	31.6	28.2	4.18	
성별	남자	500	46.4	26.2	27.4	4.25	47.8	32.6	19.6	4.45
	여자	500	58.2	24.2	17.6	4.65	32.6	30.6	36.8	3.90

미래세대의 성격으로 네 번째로 높은 긍정 비율을 보인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 복잡다단하다'라는 성격은 천주교(58.4%), 월가구소득 400만~500만 원 미만(56.9%)에서 긍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상대적인 성격인 '변화를 싫어한다, 창의적이지 못하다'라는 성격은 보수(45.8%)와 불행한(44.7%) 계층에서 긍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대상자인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래세대 중 34세 이하는 밀레니엄 세대로 분류하여 35세 이상 미래세대와 성격 특성을 비교할 수 있었다.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 복잡다단하다'에 대한 긍정비율은 34세 이하 연령층에서 모두 52%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35세~39세에서는 47.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밀레니엄 세대가 다른 고령의 미래세대보다 새로운 경험에 더 개방적이고 복잡하다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화를 싫어한다, 창의적이지 못하다'에 대한 긍정비율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33.3%에서 42.4%까지)이 나타났다.

[표 4-5] 성격 특성-개방적/변화를 싫어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 복잡다단하다				변화를 싫어한다, 창의적이지 못하다				
		그렇다	중립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그렇다	중립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전체	1,000	51.0	30.9	18.1	4.53	37.8	30.4	31.8	4.02	
연령	20~24세	225	52.0	28.9	19.1	4.56	33.3	29.3	37.3	3.86
	25~29세	249	52.6	28.9	18.5	4.60	36.5	28.9	34.5	3.94
	30~34세	255	52.5	31.4	16.1	4.57	38.0	32.2	29.8	4.07
	35~39세	271	47.2	33.9	18.8	4.39	42.4	31.0	26.6	4.19

마지막으로 '외향적이다, 적극적이다'라는 성격은 월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55.3%)과 천주교(54.9%) 계층에서 긍정비율이 높고, '내성적이다, 조용하다'는 성격은 불행한(54.9%), 학생(49.8%) 계층에서 긍정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밀레니엄세대가 35세 이상 미래세대(42.1%)보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에 대한 긍정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성격 특성-외향성/내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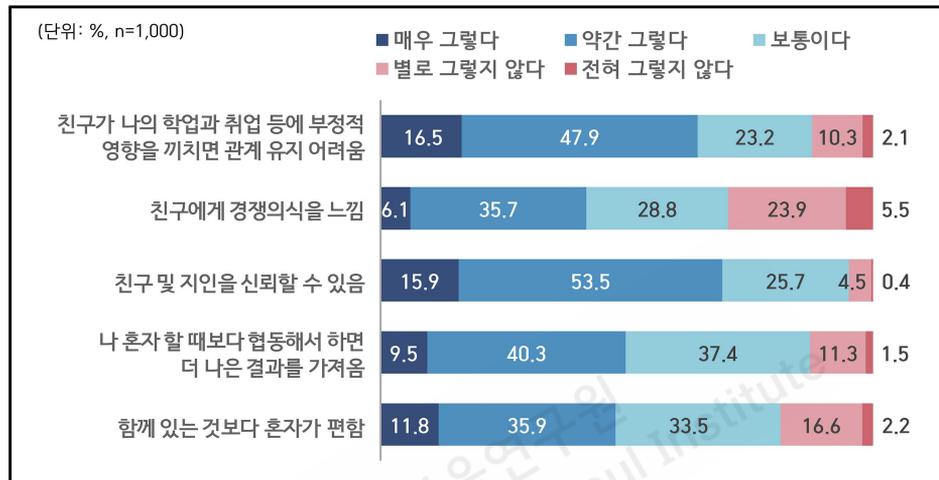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외향적이다, 적극적이다				내성적이다, 조용하다				
		그렇다	중립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그렇다	중립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전체	1,000	44.9	25.3	29.8	4.23	45.0	30.5	24.5	4.30	
성별	남자	500	45.2	27.6	27.2	4.27	47.2	32.4	20.4	4.41
	여자	500	44.6	23.0	32.4	4.20	42.8	28.6	28.6	4.20
연령	20~24세	225	45.8	23.1	31.1	4.19	48.9	30.2	20.9	4.48
	25~29세	249	43.4	27.3	29.3	4.27	45.4	28.5	26.1	4.29
	30~34세	255	48.6	23.1	28.2	4.33	39.6	32.2	28.2	4.08
	35~39세	271	42.1	27.3	30.6	4.15	46.5	31.0	22.5	4.38

## 지인 및 대인관계

미래세대의 지인 및 대인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5가지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각 항목들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미래세대의 대인관계 설명으로

‘친구가 나의 학업과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관계유지가 힘들다’, ‘나는 친구에게 경쟁의식을 느끼곤 한다’, ‘나는 친구 및 지인을 신뢰할 수 있다’, ‘나 혼자 일을 할 때보다 주변인과 협동해서 일을 하면 보통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편하다’ 등 5가지 문장을 제시하였다.



[그림 4-2] 지인 및 대인관계

조사 결과 서울 미래세대 10명 중 7명은 ‘친구 및 지인을 신뢰할 수 있다’(69.4%)고 하였고, 10명 중 6명은 ‘친구가 나의 학업과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관계유지가 어렵다’(64.4%)고 생각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협동해서 일하면 보통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49.8%)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편하다’(47.7%)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41.8%)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친구 및 지인을 신뢰할 수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월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75.9%~77.6%), 진보(76.3%) 계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71.5%~72.9%)가 30대(66.8%~67.1%)보다 높은 긍정비율을 보였다.

‘친구가 나의 학업과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관계유지가 어렵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대학원(재학) 이상(75.2%), 오피스텔 거주(74.6%)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73.0%)은 남성(55.8%)보다 약 17%p 높은 긍정 비율로 응답하여 친구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35세~39세 계층에서 67.2%, 34세 이하 밀레니엄 세대에서는 64.3% 이하로 나타나 친구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고령의 미래세대가 밀레니엄 세대보다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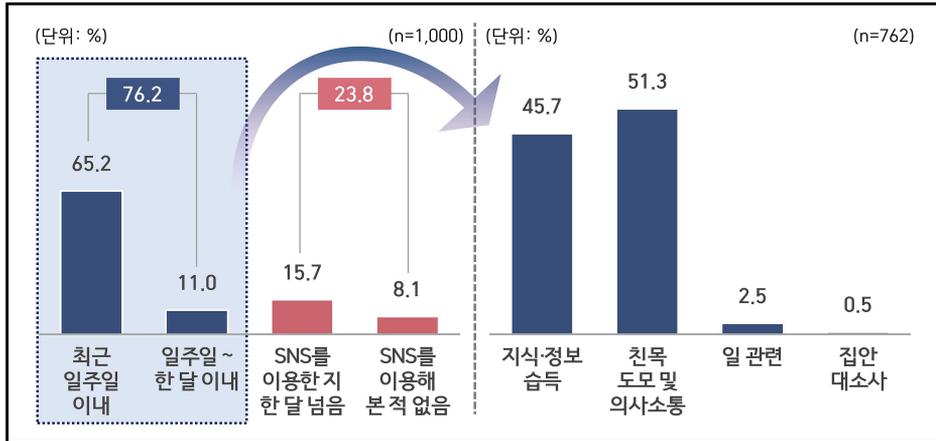
‘협동해서 일하면 보통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행복한(58.4%), 개신교(58.2%)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가 편하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불행한(60.2%), 월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57.6%), 보수(57.4%)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다인가구보다 1인가구가 혼자 편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에게 경쟁의식을 느낀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5인 이상 가구(54.3%), 천주교(51.3%), 보수(51.0%)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특히 학생(49.8%)에서 높은 긍정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학생들의 순위를 매기는 교육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5세 이상 미래세대의 36.2%가 긍정하는 반면 20세~24세에서는 절반 이상(50.2%)이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아질수록 경쟁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 SNS 이용정도

미래세대의 SNS 이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께서는 최근 SNS(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카카오토티, 인스타그램 등)를 언제 이용하셨습니까?」와 「SNS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림 4-3] SNS 이용시기(좌), SNS 사용용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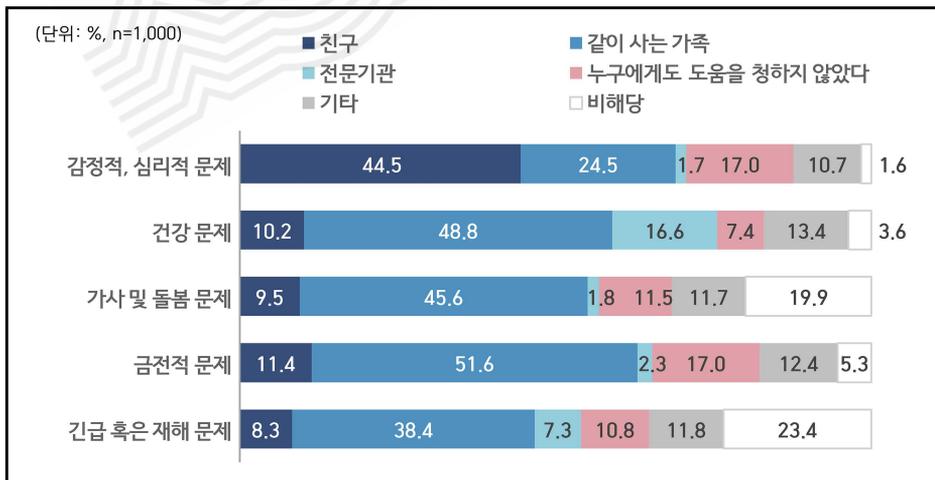
조사 결과 미래세대의 65.2%는 최근 일주일 이내, 76.2%는 최근 한 달 이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를 이용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가정주부(87.5%), 20~24세(83.1%), 학생(83.3%) 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의 주 활용용도로는 친목 도모 및 의사소통(51.3%)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식·정보 습득(45.7%)이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집안 대소사(0.5%)와 일 관련(2.5%)으로 응답한 비율은 3% 미만으로 낮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지 한 달이 넘었거나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23.8%로 나타났다. 직업군 중 SNS를 이용하지 않거나 한 달 내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직/기타(31.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_미래세대의 문제해결 방식

### 문제 대처 경로

서울 미래세대의 문제해결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가장 먼저 찾았던 경로를 질문하였다. 5가지 문제유형은 감정적·심리적 문제, 건강 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금전적 문제, 긴급 혹은 재해 문제로 구분하였고, 문제해결 경로는 같이 사는 가족, 기타 가족/친척, 직장동료, 이웃, 친구, 전문기관(공공기관, 병원 및 보험회사 등), 인터넷 커뮤니티, 미도움(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비해당(그러한 문제가 전혀 없었다)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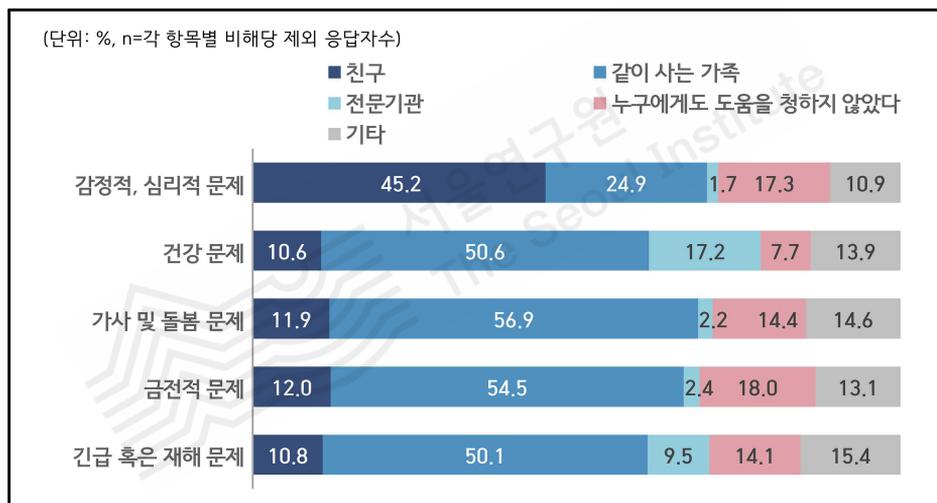
조사 결과 서울의 미래세대는 문제유형별로 먼저 찾았던 대처 경로에 차이가 있었다. 금전적 문제, 건강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긴급 혹은 재해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찾은 경로가 '같이 사는 가족'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각각 51.6%, 48.8%, 45.6%, 38.4%), 감정적, 심리적 문제에서만 '친구'를 찾는 비율(44.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 문제 대처 시 찾았던 경로(비해당 포함)

각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로의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가사 및 돌봄 문제, 금전적 문제, 건강문제, 긴급 혹은 재해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찾는 대처 경로가 '같이 사는 가족'인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각각 56.9%, 54.5%, 50.6%, 50.1%)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적, 심리적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찾는 대처 경로가 '친구'인 비율이 45.2%로 가장 많으며, '가족'은 2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제유형에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20% 가까이 나타났다. 도움을 청하지 않은 비율은 금전적 문제에서 18.0%, 감정적·심리적 문제에서 17.3%로 나타났다.



[그림 4-5] 문제 대처 시 찾았던 경로(비 해당 제외)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 미래세대가 감정적·심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경로는 '친구'(4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24.5%),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17.0%), '인터넷 커뮤니티'(4.2%)가 뒤를 이었다. '전문기관'(1.7%)과 '아웃'(1.3%)은 2% 미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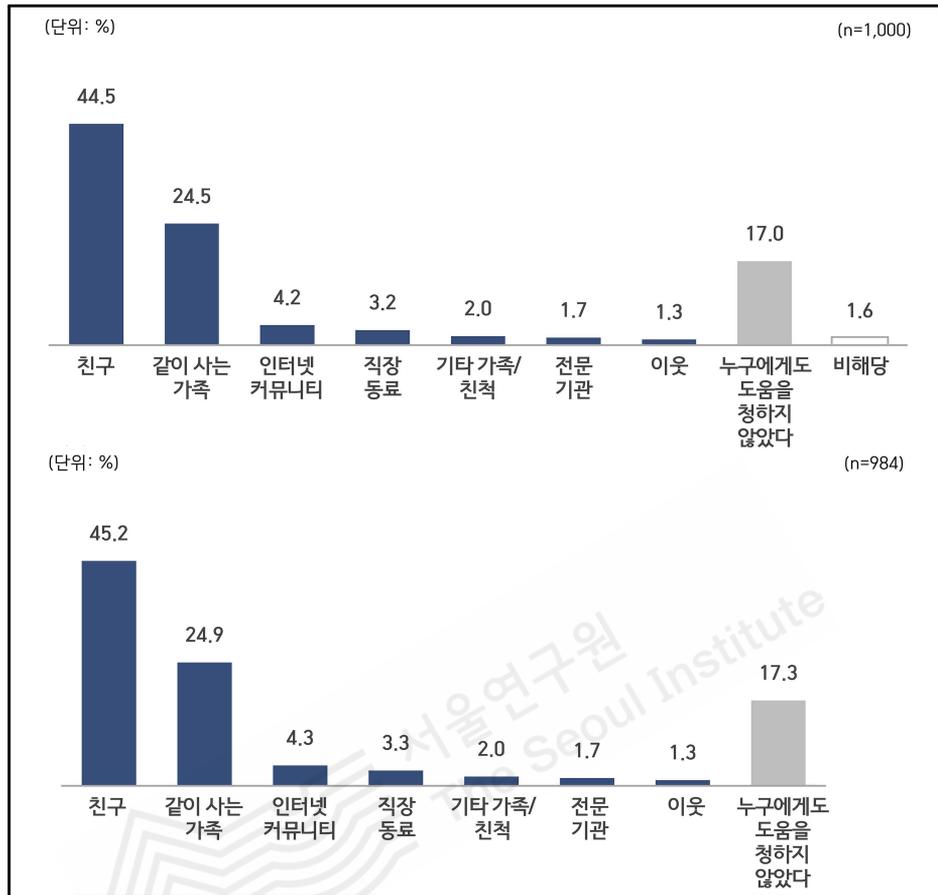
가장 먼저 찾는 경로가 '친구'인 비율은 1인 가구에서 가장 높았으며(55.9%), 20~24세에서도 55.1%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제 대처 경로가 '친구'인

비율이 감소하고, '가족'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적·심리적 문제의 대처 경로는 미혼자와 기혼자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혼자는 우선 대처 경로가 '친구'인 비율이 50.2%로 가장 많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가 19.4%, '가족'이 16.8%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혼자는 우선 대처 경로가 '가족'인 비율이 42.8%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30.6%,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심리적 문제의 대처 경로에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다른 문제들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17.0%), 특히 1인가구에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은 비율이 24.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7] 감정적·심리적 문제의 대처 경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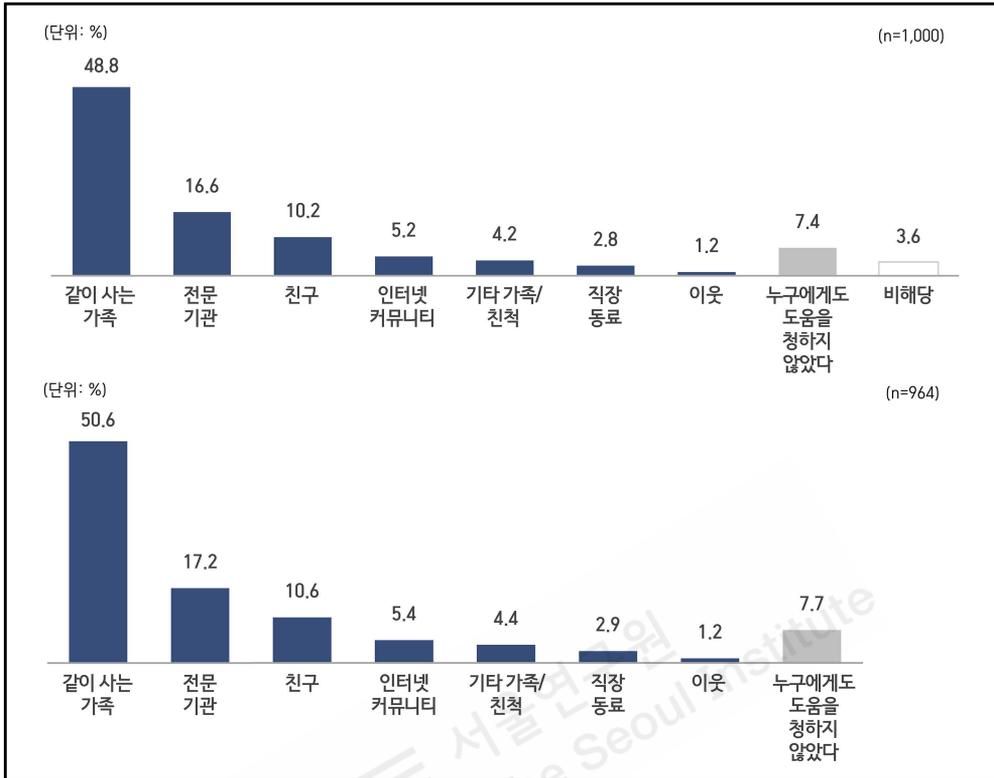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같이 사는 가족	기타 가족 / 친척	직장 동료	이웃	친구	전문 기관	인터넷 커뮤니티	미도움	비해당	
전체	1,000	24.5	2.0	3.2	1.3	44.5	1.7	4.2	17.0	1.6	
연령	20~24세	225	19.6	0.9	0.9	1.3	55.1	0.9	6.7	13.8	0.9
	25~29세	249	17.3	0.4	4.8	0.8	47.4	2.4	4.8	19.7	2.4
	30~34세	255	29.4	3.9	3.1	2.0	38.3	2.4	3.9	14.5	2.0
	35~39세	271	30.6	2.6	3.7	1.1	38.4	1.1	1.8	19.6	1.1
혼인 상태	미혼	697	16.8	1.1	3.0	1.0	50.2	1.7	5.2	19.4	1.6
	기혼	297	42.8	4.0	3.7	2.0	30.6	1.7	2.0	11.8	1.3
가구원	1명	170	7.6	1.8	1.8	1.2	55.9	2.4	2.9	24.1	2.4
	2명	181	32.6	3.9	4.4	1.1	37.6	1.7	4.4	14.4	0.0
	3명	247	27.9	2.8	3.6	1.6	40.5	2.0	4.5	14.6	2.4
	4명	332	24.7	0.3	3.6	1.5	44.9	1.5	4.2	17.8	1.5
	5명 이상	70	31.4	2.9	0.0	0.0	47.1	0.0	5.7	11.4	1.4



[그림 4-6] 감정적·심리적 문제의 대처 경로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 경로에서는 미래세대의 절반 정도가 '같이 사는 가족'(48.8%)을 꼽았으며 '전문기관'(16.6%)과 '친구'(10.2%)가 그 뒤를 이었다. 건강문제에서는 '전문기관'을 찾는다고 대답한 비율(16.6%)이 타 유형의 문제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이 사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미래세대 중 여자(51.4%), 20~24세(60%), 대졸 이상(50.3%), 학생(57.9%), 기혼(54.9%), 5인 이상 가구(58.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친구'는 블루칼라/자영업(13.8%), 1인 가구(16.5%), 월소득 200만 원 미만(15.2%)인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고졸 이하(14.4%), 미혼 계층(8.8%)에서 높았다.



[그림 4-7] 건강 문제의 대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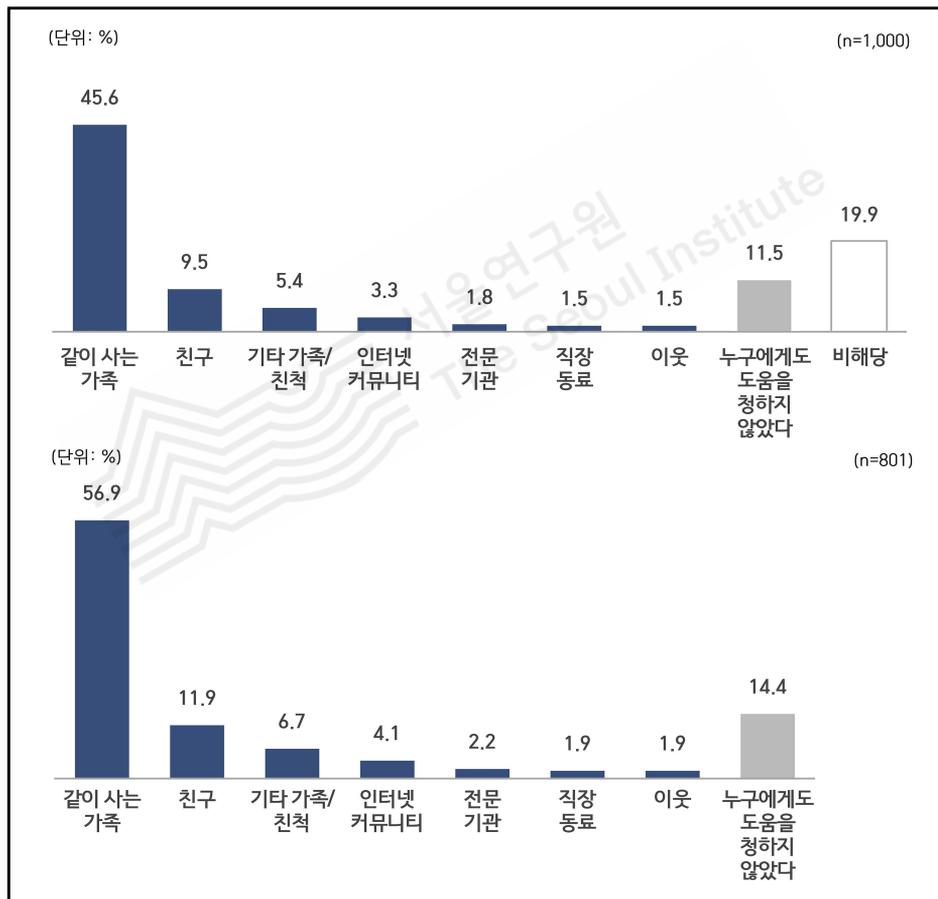
[표 4-8] 건강문제의 대처 경로

(단위: %)

구분	사례수	같이 사는 가족	기타 가족/친척	직장동료	이웃	친구	전문기관	인터넷 커뮤니티	미도움	비해당	
전체	1,000	48.8	4.2	2.8	1.2	10.2	16.6	5.2	7.4	3.6	
연령	20~24세	225	60.0	2.7	3.6	9.0	9.3	11.1	4.4	8.4	3.1
	25~29세	249	44.6	2.8	2.0	2.0	11.6	17.7	5.2	8.4	5.6
	30~34세	255	44.7	5.1	3.9	3.9	9.8	20.0	5.5	6.3	2.7
	35~39세	271	47.2	5.9	4.1	4.1	10.0	17.0	5.5	6.6	3.0
혼인 상태	미혼	697	46.5	4.6	2.0	1.0	10.3	17.2	5.5	8.8	4.2
	기혼	297	54.9	3.4	4.7	1.7	9.1	15.5	4.7	3.7	2.4
가구원	1명	170	24.7	8.8	2.9	1.8	16.5	22.4	8.2	10.6	4.1
	2명	181	46.4	5.0	4.4	1.7	11.6	18.2	4.4	6.6	1.7
	3명	247	51.4	4.0	3.6	1.6	8.5	17.0	3.2	5.7	4.9
	4명	332	58.4	2.4	1.5	0.6	7.5	12.7	5.7	7.5	3.6
	5명 이상	70	58.6	0	1.4	0	10.0	15.7	4.3	7.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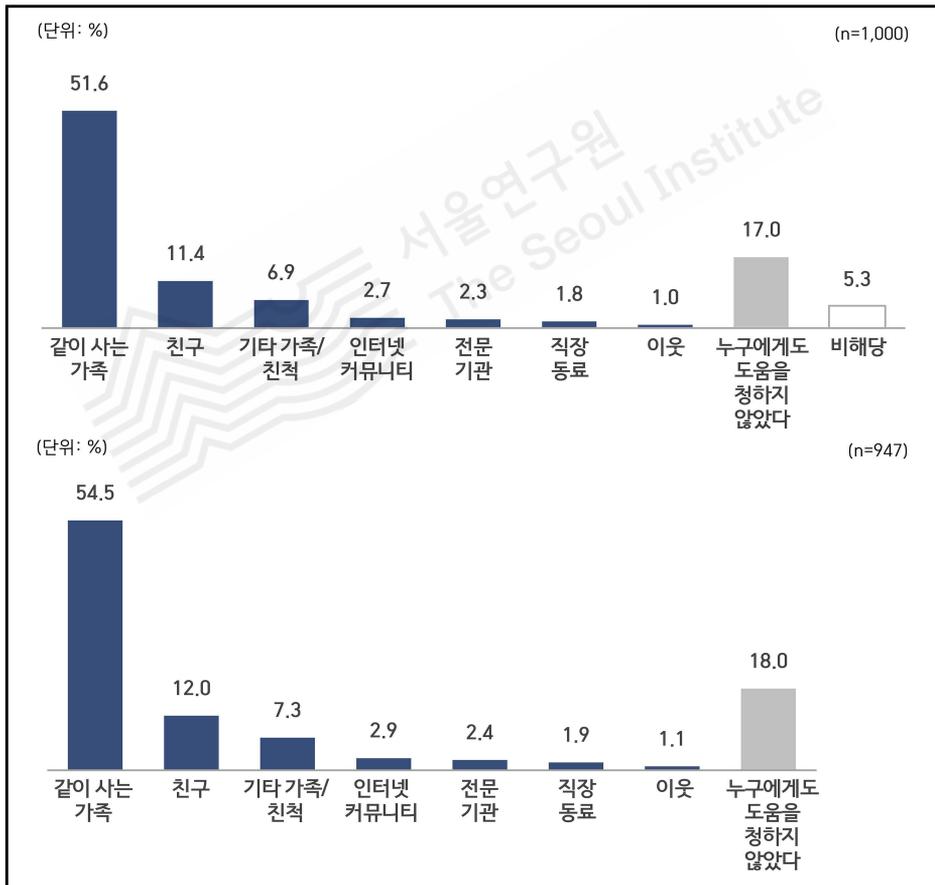
서울의 미래세대가 가사 및 돌봄 문제에 대하여 가장 먼저 찾았던 경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수가 가사 및 돌봄 문제 대처를 위해 '같이 사는 가족'(45.6%)을 가장 먼저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11.5%)는 비율은 10명 중 1~2명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가 자가인 미래세대일수록 '가족'을 경로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월세의 경우,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로 응답한 비율이 타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미래세대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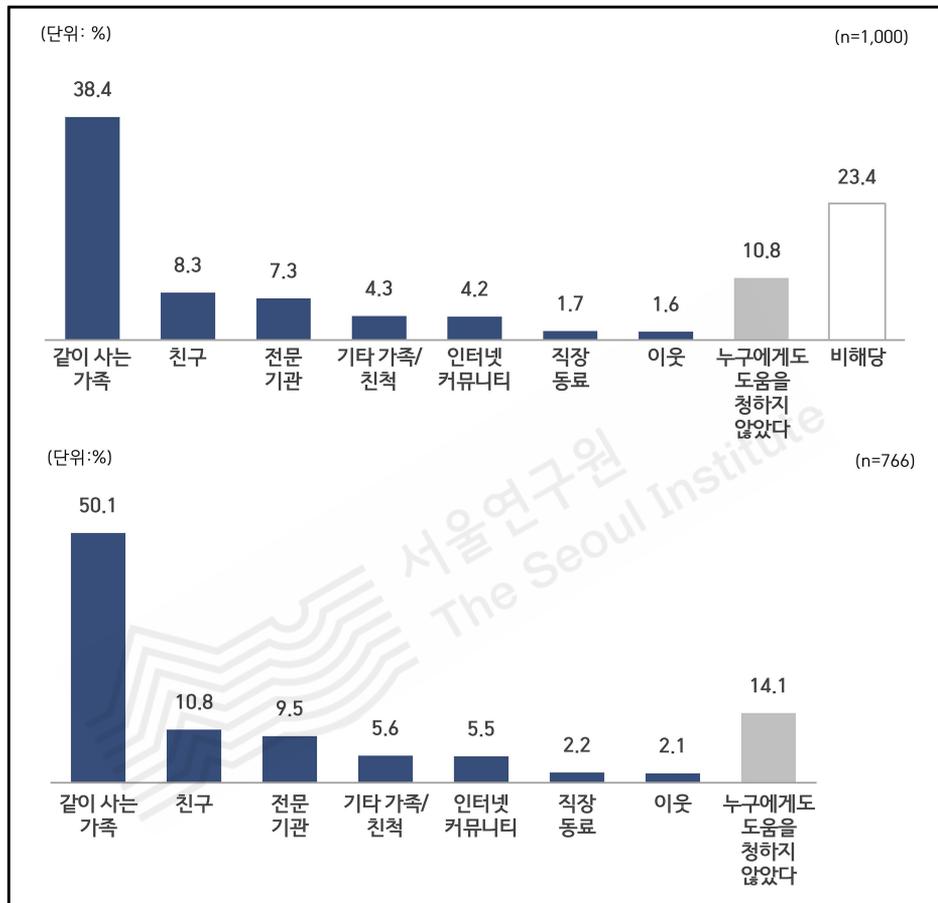
[그림 4-8] 가사 및 돌봄 문제의 대처 경로

금전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의 미래세대가 찾는 경로들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미래세대의 과반이 '같이 사는 가족'(51.6%)을 택했고, 이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17.0%), '친구'(11.4%), '기타 가족/친척'(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같이 사는 가족'이라는 응답은 여자(57.8%), 20세~24세(56.4%), 가정주부(68.8%), 기혼(60.6%), 5인 이상 가구 계층(61.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활동이 드문 기혼여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35~39세(20.3%), 미혼(19.1%), 1인 가구(24.7%), 월소득 300만 원 미만인 계층(24.7%)에서, '친구'는 남자(14.8%), 고졸 이하(17.5%), 블루칼라/자영업(16.5%), 미혼(13.5%)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 금전 문제의 대처 경로

서울의 미래세대가 긴급 혹은 재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찾는 경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같이 사는 가족'(3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10.8%), '친구'(8.3%), '전문기관'(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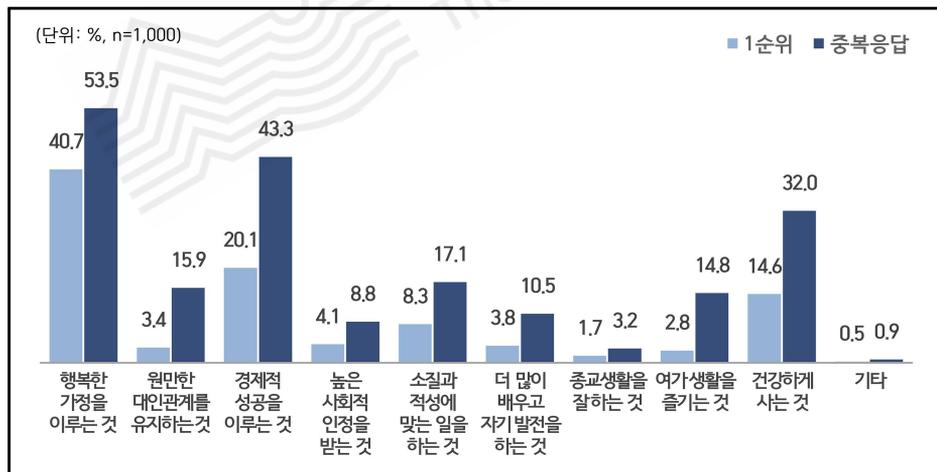
[그림 4-10] 긴급 혹은 재해 문제의 대처 경로

## 성공한 삶

서울의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성공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어떠한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제시된 10가지 삶의 유형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성공한 삶의

유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원만한 대인관계(친구, 이웃 등)를 유지하는 것’,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 ‘높은 사회적 인정(명예 및 권력)을 받는 것’,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기타’ 등 총 10가지이다.

서울 미래세대들이 1순위로 선택한 성공한 삶의 모습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40.7%)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20.1%), ‘건강하게 사는 것’(14.6%),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8.3%)의 순서로 성공한 삶이라고 응답하였다. 성공한 삶의 유형별 중복(1순위+2순위) 응답 비율의 순서도 동일한 순서(53.5%, 43.3%, 32.0%, 17.1%)로 나타났다. 반면에 ‘높은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의 1순위 응답비율은 4.1%로 나머지 다른 삶의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중복응답에서는 8.8%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15.9%),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14.8%),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10.5%)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성공한 삶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은 다른 삶의 모습보다 후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1] 성공한 삶

계층별로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공한 삶의 모습이라는 응답(1순위+2순위)이 10가지 삶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20

세~24세, 1인가구, 월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등 일부 계층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20대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약 40% 정도로 유사하였으나, 30대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60% 이상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혼인여부에 따라 더 커졌다. 미혼 계층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44.3%,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이 43.6%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낸 반면, 기혼 계층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75.1%로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 41.8%보다 33%p 정도 높게 나타났다.



# 05

---

## 서울 미래세대의 관계망과 참여, 정치의식

- 1\_기성세대와의 관계
- 2\_정치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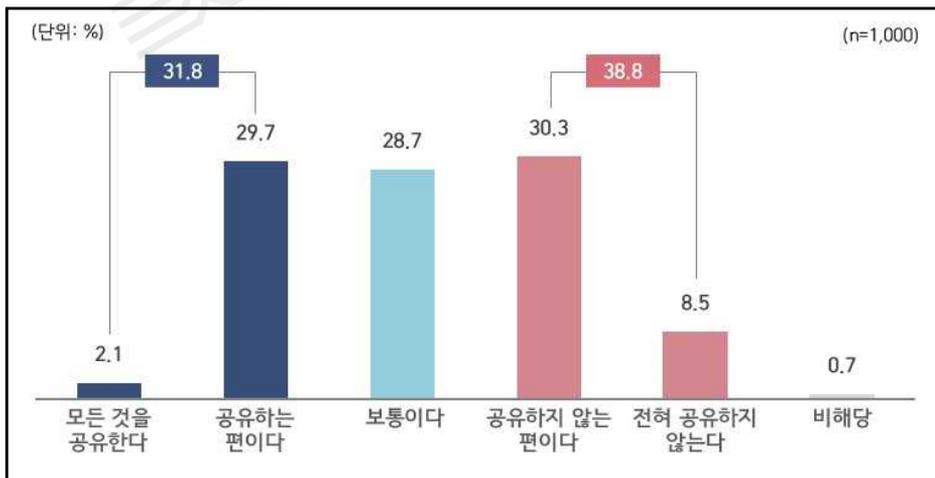
## 05 | 서울 미래세대의 관계망과 참여, 정치의식

### 1\_기성세대와의 관계

#### 부모와의 관계

서울의 미래세대들이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사회의 주요 결정요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결정 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자신의 고민을 부모님과 공유하는지’, ‘자신의 의사결정에 있어 부모님의 의견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의 두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고, 한국사회의 주요 결정요인은 결정 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동의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첫 번째로 자신의 고민을 부모님과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미래세대의 31.8%(모든 것을 공유 2.1%+공유하는 편 29.7%)가 ‘공유한다’고 응답했고, ‘공유하지 않는다’(전혀 공유하지 않음 8.5%+공유하지 않는 편 30.3%)는 응답이 38.8%를 차지하여 공유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p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 부모님과 고민 공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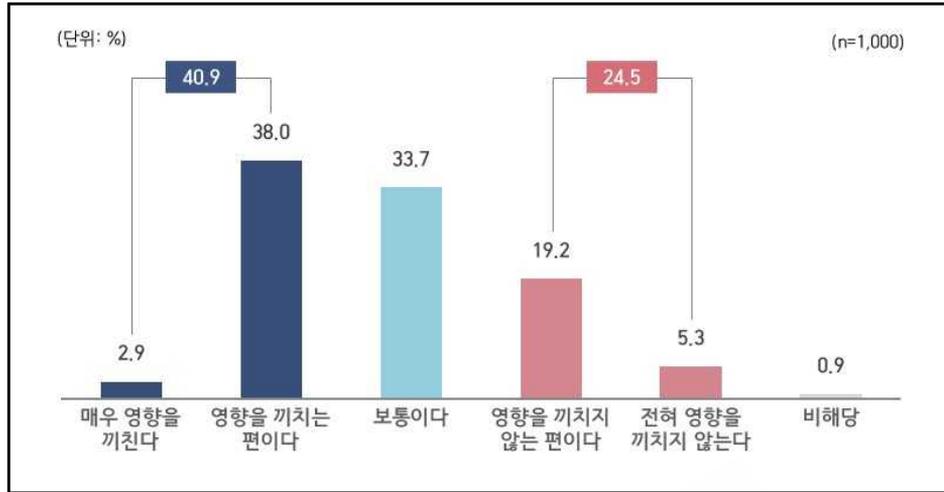
계층별 부모와의 고민 공유여부를 보면, 남성(28.2%)보다는 여성(35.4%)의 '공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24세'의 저연령층에서 '공유한다'(41.3%)의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층의 고민 공유 비율이 높았다. '동거 가구원수'에서는 1인가구(24.1%)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공유한다'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표 5-1] 서울 미래세대의 부모님과 고민 공유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모든 것을 공유한다	공유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공유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	공유한다 (합)
전체		1,000	2.1	29.7	28.7	30.3	8.5	31.8
성별	남성	500	1.4	26.8	30.2	33.4	7.6	28.2
	여성	500	2.8	32.6	27.2	27.2	9.4	35.4
연령	20~24세	225	3.6	37.8	27.1	26.7	4.4	41.3
	25~29세	249	3.2	25.3	33.3	32.1	5.2	28.5
	30~34세	255	1.6	31.8	23.1	30.6	12.5	33.3
	35~39세	271	0.4	25.1	31.0	31.4	11.1	25.5
학력	고졸 이하	97	0.0	23.7	28.9	33.0	12.4	23.7
	대졸(재학 포함)	762	2.4	29.0	30.3	29.4	8.3	31.4
	대학원(재학) 이상	141	2.1	37.6	19.9	33.3	7.1	39.7
가구원수	1명	170	2.4	21.8	24.1	33.5	16.5	24.1
	2명	181	3.9	27.1	29.3	30.4	8.8	30.9
	3명	247	1.2	32.0	27.5	31.2	7.7	33.2
	4명	332	1.8	33.1	29.8	28.6	6.0	34.9
	5명 이상	70	1.4	31.4	37.1	27.1	2.9	32.9

두 번째로, '부모님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서울의 미래세대에게 질문한 결과,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0.9%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24.5%에 비해 16.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공유의 경우에는 '공유하지 않는다'의 응답이 더 많았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부모님은 성인이 된 자녀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 부모님이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 정도

사회계층별로 보면, 남성(34.8%)에 비해 여성(47.0%)의 경우 부모님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비율이 높았고, 20대(20~24세 48.9%, 25~29세 43.8%)일수록 부모님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층(45.4%)이 의사결정에 있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구원수에서는 1인가구(35.9%)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부모님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낮았다.

[표 5-2] 부모님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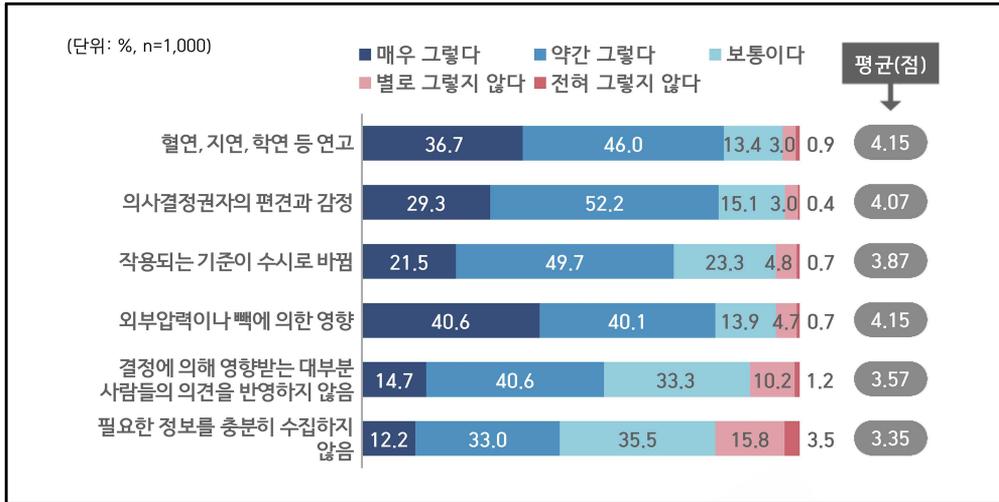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끼치는 편이다	보통이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영향을 끼친다 (합)
전체		1,000	2.9	38.0	33.7	19.2	5.3	40.9
성별	남성	500	2.0	32.8	38.2	20.6	5.8	34.8
	여성	500	3.8	43.2	29.2	17.8	4.8	47.0
연령	20~24세	225	4.9	44.0	32.9	12.9	4.4	48.9
	25~29세	249	2.0	41.8	31.7	20.5	2.8	43.8
	30~34세	255	4.3	34.1	34.5	20.0	5.9	38.4
	35~39세	271	0.7	33.2	35.4	22.5	7.7	33.9

구분		사례수	매우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끼치는 편이다	보통이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영향을 끼친다 (합)
학력	고졸 이하	97	2.1	26.8	39.2	20.6	9.3	28.9
	대졸(재학 포함)	762	3.4	38.2	33.3	19.4	4.7	41.6
	대학원(재학) 이상	141	0.7	44.7	31.9	17.0	5.7	45.4
가구원수	1명	170	2.9	32.9	28.2	24.1	8.8	35.9
	2명	181	1.7	35.9	31.5	23.2	6.6	37.6
	3명	247	2.8	34.0	40.9	16.6	5.3	36.8
	4명	332	3.6	42.5	32.5	17.5	3.6	46.1
	5명 이상	70	2.9	48.6	32.9	14.3	1.4	51.4

‘고민 공유 여부’와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된 결과, 여성, 20대, 고학력, 다인가구일수록 부모와 고민을 공유하고, 부모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과 1인가구의 경우 부모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비율이 낮고 의사결정에서 부모가 영향을 끼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모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사회의 중요한 결정 시 발생하는 상황

서울의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중요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평균 4.15점)와 ‘외부압력이나 백에 의한 영향(4.15점)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사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4.07점), ‘적용되는 기준의 수시 변화’(3.87점),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의견 미반영’(3.57점), ‘필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음’(3.35점)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미래세대들은 한국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 연고나 배경과 같은 외부 요소들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3] 한국사회에서 주요 결정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동의정도

[표 5-3]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작용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36.7	46.0	13.4	3.0	0.9	4.15
성별	남성	500	33.0	47.8	15.4	3.2	0.6	4.09
	여성	500	40.4	44.2	11.4	2.8	1.2	4.20
연령	20~24세	225	40.9	43.6	13.8	1.3	0.4	4.23
	25~29세	249	35.3	47.4	14.5	2.8	0.0	4.15
	30~34세	255	35.7	45.9	11.0	5.1	2.4	4.07
	35~39세	271	35.4	46.9	14.4	2.6	0.7	4.14
학력	고졸 이하	97	45.4	25.8	25.8	2.1	1.0	4.12
	대졸(재학 포함)	762	36.0	47.2	12.7	3.0	1.0	4.14
	대학원(재학) 이상	141	34.8	53.2	8.5	3.5	0.0	4.19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29.4	39.4	22.0	7.3	1.8	3.87
	화이트칼라	561	35.5	48.3	11.9	3.2	1.1	4.14
	가정주부	32	43.8	34.4	21.9	0.0	0.0	4.22
	학생	221	36.7	50.2	10.9	1.8	0.5	4.21
	무직/기타	77	53.2	31.2	15.6	0.0	0.0	4.38

세부항목별 동의정도의 차이를 보면,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작용한다’는 항목에 대해 동의정도가 높은 계층은 여성(4.20점), 20~24세(4.23점),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층(4.19점)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가정주부(4.22점), 학생(4.21점), 무직/기타(4.38점)와 같은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계층에서 동의정도가 높았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세대 사이에서 최고의 스펙은 ‘인맥’이다(조선일보, 2017). 실제로 KDI가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 및 출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혈연, 지연, 학연 등 인맥’(36.8%)의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미래세대는 자신의 실력보다 인맥을 성공의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동아일보, 2017).

[표 5-4] ‘외부압력이나 뺨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40.6	40.1	13.9	4.7	0.7	4.15
성별	남성	500	35.8	43.6	15.8	4.2	0.6	4.10
	여성	500	45.4	36.6	12.0	5.2	0.8	4.21
연령	20~24세	225	42.7	36.9	16.9	3.6	0.0	4.19
	25~29세	249	41.0	41.0	13.7	4.0	0.4	4.18
	30~34세	255	38.4	40.8	13.3	5.5	2.0	4.08
	35~39세	271	40.6	41.3	12.2	5.5	0.4	4.16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39.4	34.9	18.3	5.5	1.8	4.05
	화이트칼라	561	38.5	42.4	12.8	5.3	0.9	4.12
	가정주부	32	50.0	37.5	9.4	3.1	0.0	4.34
	학생	221	40.3	43.4	12.7	3.6	0.0	4.20
	무직/기타	77	54.5	22.1	20.8	2.6	0.0	4.29
정치성향	진보	455	45.7	39.1	10.3	4.4	0.4	4.25
	중도	390	33.6	41.8	19.7	4.6	0.3	4.04
	보수	155	43.2	38.7	9.7	5.8	2.6	4.14

‘외부압력이나 뺨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항목은 계층별로 여성(4.21점), 20~24세(4.19점), 가정주부(4.34점), 학생(4.20점), 무직/기타(4.29점), 그리고 진보성향

(4.25점)의 사람들에서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과 ‘무직/기타’ 계층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로, 취업과정에서 실력보다는 백에 의한 영향이 있음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종합해보면 미래세대 중에서도 취업준비생들은 ‘타고난 스펙’이라고 불리는 혈연과 인맥으로 대표되는 지연, 학연 등 ‘백’을 중요 결정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백’을 갖기 위해 인맥동아리에 가입하는 등 인맥도 하나의 능력임을 인지하고 있다.

[표 5-5] ‘의사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5점 만점)
전체		1,000	29.3	52.2	15.1	3.0	0.4	4.07
성별	남성	500	26.8	53.0	17.0	2.8	0.4	4.03
	여성	500	31.8	51.4	13.2	3.2	0.4	4.11
연령	20~24세	225	27.1	53.3	17.8	1.8	0.0	4.06
	25~29세	249	34.1	47.0	15.7	3.2	0.0	4.12
	30~34세	255	29.4	50.2	15.7	3.5	1.2	4.03
	35~39세	271	26.6	57.9	11.8	3.3	0.4	4.07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23.9	50.5	21.1	3.7	0.9	3.93
	화이트칼라	561	29.6	52.2	13.7	3.9	0.5	4.06
	가정주부	32	31.3	50.0	18.8	0.0	0.0	4.13
	학생	221	26.7	57.0	14.9	1.4	0.0	4.09
	무직/기타	77	41.6	41.6	15.6	1.3	0.0	4.23
가구원수	1명	170	31.8	54.1	10.6	2.9	0.6	4.14
	2명	181	28.2	47.5	18.8	5.0	0.6	3.98
	3명	247	28.7	54.7	13.8	2.4	0.4	4.09
	4명	332	28.9	52.4	16.3	2.1	0.3	4.08
	5명 이상	70	30.0	50.0	15.7	4.3	0.0	4.06

‘의사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는 항목에 대한 계층별 동의정도를 보면, 위의 연고, 백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4.11점), 가정주부(4.13점), 학생(4.09점), 무직/기타(4.23점), 1인가구(4.14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 KGSS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조사가 수행되었다. KGSS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거주 응답자 228명은 미래세대 서베이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중요 결정 시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4.33점), ‘의사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4.17점), ‘외부압력이나 백의 영향’(4.17점)이 발생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서울의 미래세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민도 한국사회에서 중요 결정 시, 인맥이나 연고와 같은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표 5-6] ‘한국사회에서 중요 결정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동의(2014 KGSS)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합)	평균 (5점 만점)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작용한다	0.0	1.3	10.5	42.1	46.1	88.2	4.33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	0.0	2.6	13.2	49.1	35.1	84.2	4.17
적용되는 기준(방침)이 수시로 바뀐다	1.3	6.6	24.6	48.2	19.3	67.5	3.78
외부압력이나 ‘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0.4	3.1	12.8	46.7	37.0	83.7	4.17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0.9	9.6	33.8	42.5	13.2	55.7	3.57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는다	0.9	13.2	29.8	44.7	11.4	56.1	3.53

## 2\_정치적 참여

### 정치적 성향

사회에 대한 서울 미래세대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정치성향,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치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5.5%(매우 진보적 4.0%+다소 진보적 41.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고,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9.0%,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5.5%(다소 보수적 14.1%+매우 보수적 1.4%)로 나타났다.



[그림 5-4] 정치적 성향

계층별로 정치적 성향을 보면, 여성(48.2%), 30대(30~34세 48.6%+35~39세 46.9%), 도심권(54.0%)과 동북권(49.3%) 거주자, 화이트칼라(47.1%)에서 진보적 성향이 높았고, 보수적 성향은 남성(17.4%)과 동남권(19.2%) 거주자, 블루칼라/자영업(18.3%)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7] 미래세대의 정치적 성향

(단위: %)

구분		사례수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진보적 (합)	보수적 (합)
전체		1,000	4.0	41.5	39.0	14.1	1.4	45.5	15.5
성별	남성	500	3.2	39.6	39.8	16.0	1.4	42.8	17.4
	여성	500	4.8	43.4	38.2	12.2	1.4	48.2	13.6
연령	20~24세	225	4.4	39.6	43.1	11.6	1.3	44.0	12.9
	25~29세	249	6.0	36.1	45.0	10.8	2.0	42.2	12.9
	30~34세	255	1.6	47.1	30.2	20.4	0.8	48.6	21.2
	35~39세	271	4.1	42.8	38.4	13.3	1.5	46.9	14.8
거주지역	도심권	50	2.0	52.0	30.0	14.0	2.0	54.0	16.0
	동북권	302	4.0	45.4	35.4	14.2	1.0	49.3	15.2
	서북권	118	8.5	33.1	44.1	13.6	0.8	41.5	14.4
	서남권	317	3.5	40.7	42.3	12.6	0.9	44.2	13.6
	동남권	213	2.8	39.4	38.5	16.4	2.8	42.3	19.2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3.7	36.7	41.3	13.8	4.6	40.4	18.3
	화이트칼라	561	3.0	44.0	35.7	16.6	0.7	47.1	17.3
	가정주부	32	15.6	31.3	40.6	12.5	0.0	46.9	12.5
	학생	221	4.5	40.7	42.5	10.0	2.3	45.2	12.2
	무직/기타	77	5.2	36.4	49.4	9.1	0.0	41.6	9.1

서울시민의 정치성향을 조사한 서울서베이의 결과와 본 미래세대 서베이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미래세대에서 진보성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5-8]은 2016년 조사된 서울서베이의 결과표이다.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진보성향은 38.2%, 보수성향은 32.1%, 중도성향은 29.7%로 나타나, 미래세대에 비해 진보성향의 비율이 7.3%p 낮았다. 이는 보수성향이 강한 50~60대의 영향으로, 50대의 진보성향 비율은 28.5%, 60대는 22.5%로 미래세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표 5-8] 서울시민의 정치적 성향(2016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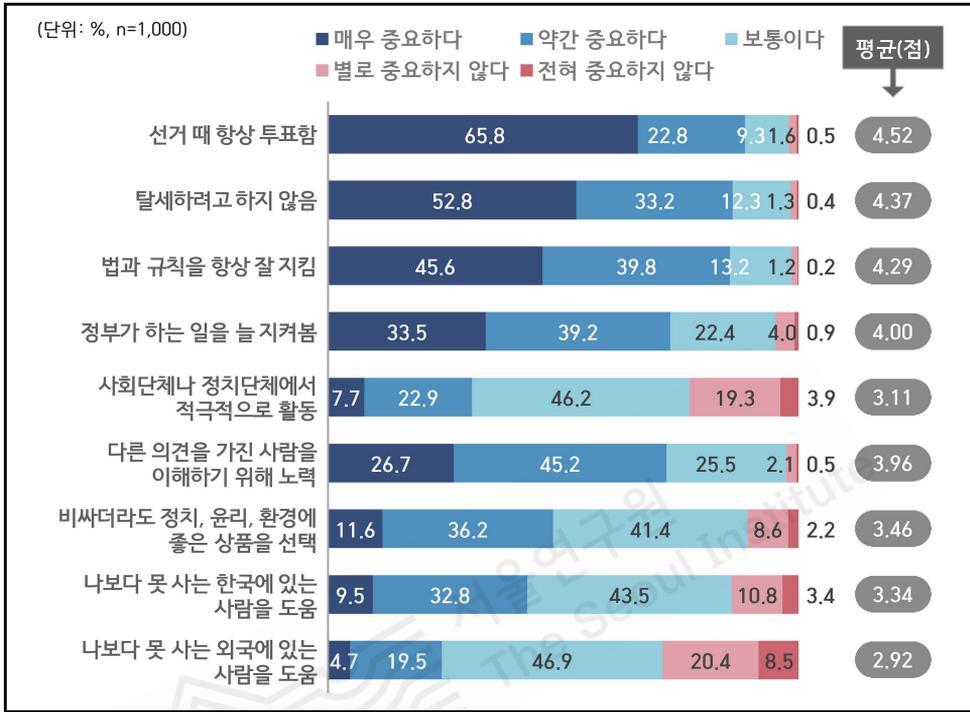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진보	중도	보수
전체		38.2	29.7	32.1
성별	남성	39.2	29.5	31.3
	여성	37.3	29.9	32.8
연령	10대	50.1	31.7	18.2
	20대	52.3	30.5	17.2
	30대	48.5	30.7	20.8
	40대	39.9	31.3	28.7
	50대	28.5	30.6	40.9
	60세 이상	22.5	25.6	52.0
거주지역	도심권	37.2	32.1	30.7
	동북권	37.2	29.7	33.1
	서북권	38.9	26.3	34.8
	서남권	39.4	29.8	30.8
	동남권	38.0	30.8	31.2
직업	관리 전문직	36.4	31.2	32.4
	화이트칼라	41.1	29.6	29.3
	블루칼라	35.3	29.3	35.4
	기타	37.7	29.8	32.6

###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중요한 것

서울 미래세대들은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으로 '선거 때 항상 투표하는 것'(4.52점)을 꼽았다. 이는 미래세대의 정치적 관심이 늘면서 투표를 시민의 기본 소양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탈세하지 않는 것'(4.37점)과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키는 것'(4.29점)으로 나타나, 납세의 의무와 법 준수라는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보는 것'(4.00점)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3.96점)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즉 정부와 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타인에 대한 포용성보다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은 투

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납세와 법규 준수 등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림 5-5]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중요한 것

[표 5-9]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중요한 것'의 평균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투표	탈세 하지 않음	법과 규칙 준수	정부 감시	사회 단체 활동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성	윤리, 환경에 좋은 상품	한국에 있는 사람 도움	외국에 있는 사람 도움	
전체	1,000	4.52	4.37	4.29	4.00	3.11	3.96	3.46	3.34	2.92	
성별	남성	500	4.45	4.33	4.23	3.92	3.03	3.92	3.40	3.27	2.85
	여성	500	4.59	4.41	4.36	4.09	3.19	3.99	3.53	3.42	2.98
연령	20~24세	225	4.56	4.41	4.26	4.05	3.05	4.01	3.39	3.31	2.91
	25~29세	249	4.56	4.46	4.33	4.07	3.14	3.99	3.47	3.28	2.85
	30~34세	255	4.50	4.33	4.32	3.96	3.15	3.93	3.48	3.36	2.96
	35~39세	271	4.46	4.28	4.26	3.94	3.10	3.90	3.50	3.41	2.93
학력	고졸 이하	97	4.34	4.35	4.25	3.89	2.97	3.84	3.28	3.30	2.79
	대졸(재학 포함)	762	4.53	4.37	4.29	4.00	3.14	3.96	3.49	3.34	2.93
	대학원(재학) 이상	141	4.57	4.35	4.35	4.09	3.05	4.03	3.48	3.40	2.91

구분		사례수	투표	탈세 하지 않음	법과 규칙 준수	정부 감시	사회 단체 활동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성	윤리, 환경에 좋은 상품	한국에 있는 사람 도움	외국에 있는 사람 도움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4.27	4.04	4.05	3.76	3.05	3.74	3.34	3.31	2.93
	화이트칼라	561	4.52	4.37	4.32	3.98	3.11	3.96	3.46	3.33	2.91
	가정주부	32	4.56	4.34	4.31	4.16	3.38	3.91	3.78	3.34	2.72
	학생	221	4.57	4.40	4.28	4.09	3.07	4.00	3.48	3.37	2.94
	무직/기타	77	4.69	4.70	4.48	4.23	3.25	4.09	3.48	3.38	2.92
정치성향	진보	455	4.69	4.45	4.35	4.14	3.23	4.02	3.57	3.39	2.96
	중도	390	4.35	4.26	4.21	3.88	3.00	3.87	3.36	3.26	2.87
	보수	155	4.43	4.39	4.35	3.94	3.04	3.95	3.43	3.41	2.88

계층별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과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 화이트칼라, 그리고 진보성향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연령별로 생각하는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대체로 20대에서 평균점수가 높지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30대가 20대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5-10] '선거 때 항상 투표하는 것'의 중요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전체		1,000	65.8	22.8	9.3	1.6	0.5	4.52
성별	남성	500	60.2	26.2	12.0	1.2	0.4	4.45
	여성	500	71.4	19.4	6.6	2.0	0.6	4.59
연령	20~24세	225	68.9	20.4	8.9	1.8	0.0	4.56
	25~29세	249	69.9	19.3	8.4	1.6	0.8	4.56
	30~34세	255	63.9	25.5	7.8	2.0	0.8	4.50
	35~39세	271	61.3	25.5	11.8	1.1	0.4	4.46
학력	고졸 이하	97	59.8	20.6	15.5	2.1	2.1	4.34
	대졸(재학 포함)	762	66.3	23.0	8.8	1.6	0.4	4.53
	대학원(재학) 이상	141	67.4	23.4	7.8	1.4	0.0	4.57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51.4	27.5	18.3	1.8	0.9	4.27
	화이트칼라	561	66.5	22.6	8.2	2.0	0.7	4.52
	가정주부	32	62.5	31.3	6.3	0.0	0.0	4.56
	학생	221	68.3	20.8	10.0	0.9	0.0	4.57
	무직/기타	77	75.3	19.5	3.9	1.3	0.0	4.69
정치성향	진보	455	76.3	17.6	5.3	0.9	0.0	4.69
	중도	390	55.6	27.2	14.4	2.3	0.5	4.35
	보수	155	60.6	27.1	8.4	1.9	1.9	4.43

서울의 미래세대가 ‘좋은 시민이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한 것은 ‘선거 때 항상 투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미래세대들의 높아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대한 계층별 동의정도를 보면, 여성(4.59점), 20대(20~24세 4.56점, 25~29세 4.56점), 대학원 이상(4.57점), 진보성향(4.69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표 5-11] ‘탈세하려고 하지 않는 것’의 중요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전체		1,000	52.8	33.2	12.3	1.3	0.4	4.37
성별	남성	500	50.8	33.6	13.4	1.8	0.4	4.33
	여성	500	54.8	32.8	11.2	0.8	0.4	4.41
연령	20~24세	225	56.0	29.8	13.8	0.4	0.0	4.41
	25~29세	249	58.2	30.5	10.4	0.8	0.0	4.46
	30~34세	255	51.8	32.9	12.5	1.6	1.2	4.33
	35~39세	271	46.1	38.7	12.5	2.2	0.4	4.28
학력	고졸 이하	97	51.5	35.1	11.3	1.0	1.0	4.35
	대졸(재학 포함)	762	52.9	33.3	12.3	1.0	0.4	4.37
	대학원(재학) 이상	141	53.2	31.2	12.8	2.8	0.0	4.35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35.8	37.6	22.9	1.8	1.8	4.04
	화이트칼라	561	52.0	35.8	9.8	2.0	0.4	4.37
	가정주부	32	50.0	34.4	15.6	0.0	0.0	4.34
	학생	221	55.7	29.0	15.4	0.0	0.0	4.40
	무직/기타	77	75.3	19.5	5.2	0.0	0.0	4.70
정치 성향	진보	455	56.5	33.8	8.4	1.1	0.2	4.45
	중도	390	46.2	34.9	17.7	1.0	0.9	4.26
	보수	155	58.7	27.1	10.3	2.6	1.3	4.39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시민이 되는 데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탈세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계층별 중요도의 평균점수를 보면, 여성(4.41점), 20대(20~24세 4.41점, 25~29세 4.46점), 대졸(4.37점), 진보성향(4.45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12]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키는 것'의 중요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전체		1,000	45.6	39.8	13.2	1.2	0.2	4.29
성별	남성	500	42.6	4.06	14.4	2.0	0.4	4.23
	여성	500	48.6	39.0	12.0	0.4	0.0	4.36
연령	20~24세	225	43.6	39.6	16.4	0.4	0.0	4.26
	25~29세	249	45.0	43.8	10.8	0.4	0.0	4.33
	30~34세	255	51.0	34.1	11.4	3.1	0.4	4.32
	35~39세	271	42.8	41.7	14.4	0.7	0.4	4.26
학력	고졸 이하	97	45.4	36.1	16.5	2.1	0.0	4.25
	대졸(재학 포함)	762	45.3	40.2	13.1	1.2	0.3	4.29
	대학원(재학) 이상	141	47.5	40.4	11.3	0.7	0.0	4.35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35.8	37.6	22.9	2.8	0.9	4.05
	화이트칼라	561	46.5	40.8	11.1	1.4	0.2	4.32
	가정주부	32	50.0	31.3	18.8	0.0	0.0	4.31
	학생	221	43.9	40.7	14.9	0.5	0.0	4.28
	무직/기타	77	55.8	36.4	7.8	0.0	0.0	4.48
	진보	455	48.4	39.1	11.9	0.4	0.2	4.35
정치성향	중도	390	40.5	41.5	16.2	1.8	0.0	4.21
	보수	155	50.3	37.4	9.7	1.9	0.6	4.35

미래세대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계층별로 보면, 여성(4.36점), 25~34세(25~29세 4.33점, 30~34세 4.32점),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층(4.35점)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의 탈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세대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좋은 시민이 되는 데 기본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표 5-13]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보는 것'의 중요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5점만점)
전체		1,000	33.5	39.2	22.4	4.0	0.9	4.00
성별	남성	500	28.4	41.8	24.4	4.4	1.0	3.92
	여성	500	38.6	36.6	20.4	3.6	0.8	4.09
연령	20~24세	225	36.0	38.7	20.9	3.1	1.3	4.05
	25~29세	249	37.3	36.9	21.3	4.0	0.4	4.07
	30~34세	255	32.9	38.0	22.7	5.1	1.2	3.96
	35~39세	271	28.4	42.8	24.4	3.7	0.7	3.94
학력	고졸이하	97	34.0	34.0	23.7	3.1	5.2	3.89
	대졸(재학 포함)	762	33.1	39.5	22.6	4.3	0.5	4.00
	대학원(재학) 이상	141	35.5	41.1	20.6	2.8	0.0	4.09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22.9	39.4	29.4	7.3	0.9	3.76
	화이트칼라	561	31.4	41.0	22.6	3.9	1.1	3.98
	가정주부	32	40.6	37.5	18.8	3.1	0.0	4.16
	학생	221	37.6	37.6	21.3	3.6	0.0	4.09
	무직/기타	77	49.4	31.2	15.6	1.3	2.6	4.23
	진보	455	38.7	40.2	17.6	3.1	0.4	4.14
정치성향	중도	390	28.5	38.2	27.2	4.9	1.3	3.88
	보수	155	31.0	38.7	24.5	4.5	1.3	3.94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요소 중 네 번째로 선정된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보는 것'이다. 계층별로 중요도의 차이를 보면, 여성(4.09점), 20대(20~24세 4.05점, 25~29세 4.07점), 대학원 이상(4.09점), 진보성향(4.1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시민'이란, 납세나 법 준수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나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주체성 있는 사람이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2014년 KGSS(한국종합사회조사)가 있다. KGSS에서는 '좋은 국민'이 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서울시민 228명이 응답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4] '좋은 국민'이 되는 데 중요한 요소(2014 KG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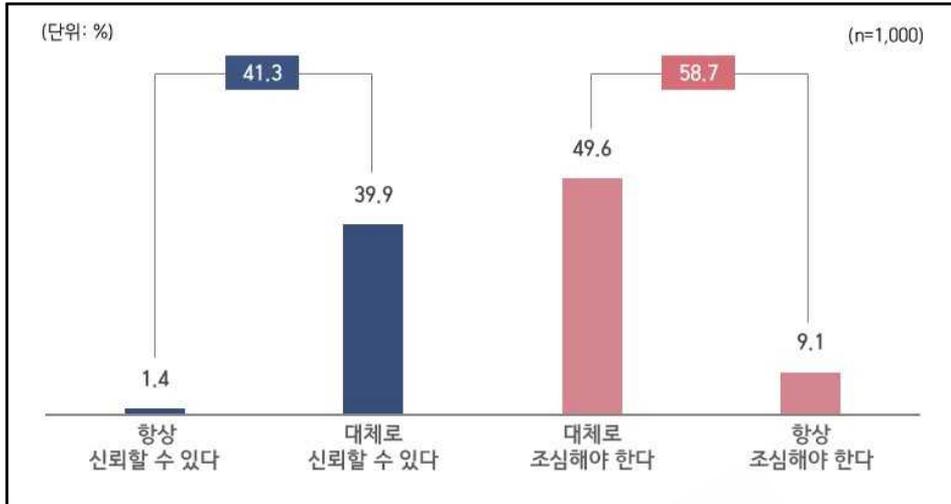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중요하다 ⑦	평균 (7점만점)
선거 때 항상 투표한다	1.3	2.6	2.2	4.4	12.3	16.7	60.5	6.16
결코 탈세하려 하지 않는다	1.3	0.4	2.2	3.5	10.5	14.9	67.1	6.35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킨다	0.4	0.0	0.4	6.1	10.5	18.0	64.5	6.38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본다	1.8	3.1	6.1	10.1	18.0	22.8	38.2	5.61
사회단체-정치단체에서 활동한다	7.5	8.8	14.9	23.2	19.3	10.1	15.8	4.34
다른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0.4	0.9	4.4	11.4	26.3	24.6	32.0	5.64
정치, 윤리,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한다	1.3	3.9	4.8	18.0	22.4	30.7	18.4	5.24
나보다 못 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1.8	3.5	4.8	14.5	27.6	24.6	23.2	5.29
나보다 못 사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7.5	10.1	12.3	18.0	28.1	12.3	11.8	4.33

2014년 KGSS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좋은 국민'이 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6.38점), 탈세하지 않고(6.35점), 선거 때 항상 투표하며(6.16점), 다른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5.64점)이다. 중요도 평균점수에 있어, 투표권을 1순위로 선정한 미래세대와는 달리, 서울시민은 법과 규칙의 준수를 1순위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4순위로 미래세대는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보는 것을 선정했지만, 서울시민은 다른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포용성'을 선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투표와 정부에 대한 감시로 대표되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중요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도

서울 미래세대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1.3%, '조심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8.7%로 나타나, 미래세대의 일반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 5-6] 사람 신뢰 가능 여부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계층별로 보면,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45.4%)이 여성(37.2%)에 비해 8.2%p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34세(44.7%) 연령층의 신뢰가능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43.3%)에서 신뢰도가 높았다. 특징적인 것은 행복정도에 따른 차이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55.1%)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24.8%)에 비해 '신뢰할 수 있다'의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행복도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능성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표 5-15]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가능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항상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다 (합)	조심해야 한다 (합)
전체		1000	1.4	39.9	49.6	9.1	41.3	58.7
성별	남성	500	2.2	43.2	46.6	8.0	45.4	54.6
	여성	500	0.6	36.6	52.6	10.2	37.2	62.8
연령	20~24세	225	2.2	40.4	47.1	10.2	42.7	57.3
	25~29세	249	0.8	35.7	57.0	6.4	36.5	63.5
	30~34세	255	2.0	42.7	44.3	11.0	44.7	55.3
	35~39세	271	0.7	40.6	49.8	8.9	41.3	58.7
학력	고졸 이하	97	3.1	27.8	53.6	15.5	30.9	69.1
	대졸(재학 포함)	762	1.2	41.1	49.3	8.4	42.3	57.7
	대학원(재학) 이상	141	1.4	41.8	48.2	8.5	43.3	56.7
직업	블루칼라/자영업	109	2.8	34.9	51.4	11.0	37.6	62.4
	화이트칼라	561	1.1	39.9	50.6	8.4	41.0	59.0
	가정주부	32	3.1	46.9	34.4	15.6	50.0	50.0
	학생	221	1.8	43.0	47.1	8.1	44.8	55.2
	무직/기타	77	0.0	35.1	53.2	11.7	35.1	64.9
가계소득	200만 원 미만	92	1.1	30.4	52.2	16.3	31.5	68.5
	200~300만 원 미만	186	1.6	43.0	48.9	6.5	44.6	55.4
	300~400만 원 미만	181	1.1	41.4	47.5	9.9	42.5	57.5
	400~500만 원 미만	153	2.6	38.6	48.4	10.5	41.2	58.8
	500~600만 원 미만	113	0.0	34.5	57.5	8.0	34.5	65.5
	600~700만 원 미만	76	2.6	42.1	50.0	5.3	44.7	55.3
	700만 원 이상	199	1.0	43.2	47.2	8.5	44.2	55.8
행복도	행복	385	1.3	53.8	39.2	5.7	55.1	44.9
	보통	409	1.7	35.0	54.5	8.8	36.7	63.3
	불행	206	1.0	23.8	59.2	16.0	24.8	75.2
정치성향	진보	455	1.1	45.1	45.5	8.4	46.2	53.8
	중도	390	1.3	37.2	53.3	8.2	38.5	61.5
	보수	155	2.6	31.6	52.3	13.5	34.2	65.8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로는 '2014 KGSS'와 '2016 서울서베이'가 있다. 위 연구에서 나타난 서울시민의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도와 미래세대의 신뢰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6]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가능 여부 비교

(단위: %)

구분	항상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다 (합)	조심해야 한다 (합)
2014 KGSS	3.5	48.7	44.3	3.5	52.2	47.8
2016 서울서베이	11.4	46.3	34.9	7.4	57.7	42.3
미래세대 서베이	1.4	39.9	49.6	9.1	41.3	58.7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KGSS와 서울서베이의 결과를 보면,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KGSS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52.2%, 서울서베이에서는 57.7%로 미래세대(41.3%)의 결과에 비해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즉 미래세대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을 정도로 사회자본이 부족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탈의 실태 진단 및 사회통합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미래세대 서베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무직/기타'(35.1%)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화이트칼라'(41.0%)에 비해 신뢰도가 낮고, 가계소득 측면에서 200만 원 미만(31.5%)의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 따라서 청년층의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 박탈경험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06

---

맺음말



## 06 |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왜 미래세대연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세대담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미래세대는 인구경제학적으로 어떤 현황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래세대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미래세대 서베이를 실시하여 서울의 미래세대가 갖고 있는 세대내 이질성, 세대 정체성의 혼종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실 미래세대 중 오늘날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청년세대를 둘러싼 논의이다. 흡수저, 금수저 등 이른바 ‘수저 계층론’과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어떤 프레임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노동과 일자리, 정체성, 세대갈등, 삶의 질 등 다양한 주제로 전개될 수 있다. 서울의 청년실업이 10%에 육박하면서 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가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 정책적 개입이 베이비붐세대나 노년세대에게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세대 간 충돌의 문제는 아닌지에 대한 논란,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할 청년세대에게 현재 ‘청년의 정체성’은 생애주기에서 과연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결혼과 출산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3포, 5포세대의 청년들에게 인구절벽을 피하기 위해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계몽적인 캠페인성 정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지 등등. 청년세대의 문제는 그것이 오롯이 독립적인 위상을 차지하기보다는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성년으로의 이행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행기의 조건은 그 다음 단계인 인생 주기의 전제가 된다는 점 등이 청년세대의 문제를 더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복합적인 점을 전제하고, 미래서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근간으로서 세대연구는 미래 정책수요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변화는 세대 간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세대의 객관적, 주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세대를 둘러싼 논의는 담론수준의 일반론과 칼 만하임의 세대이론에서 출발한 사회문화이론들이 혼재되어 간헐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세대현상을 둘러싸고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 하나는, 오늘날 나타나는 세대현상은 새로운 것으로 지금까지 사회를 분석하는 기본 시각인 계층 문제를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와 대립되는 또 다른 시각은, 오늘날의 세대현상이란 인구 코호트적인 속성을 일부 반영하고는 있지만 특정 연령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자적인 세대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사실 세대를 둘러싼 담론은 정치적 맥락에서 등장했다. 즉, 대통령선거에서 세대 간 선호가 분명히 갈라지는 투표 현상이 고찰되면서 세대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투표현상이 정치지형의 핵심에 있다는 주장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기술 리터러시에 의해 '세대 차이'가 발생하면서 세대 간 차이점이 확연히 부각되고 이에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한 세대문화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나타났다. 이렇듯 세대연구를 둘러싸고 세대개념과 세대 형성 과정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세대론이 우리 사회의 연령 간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중요한 접근법이라는 시각과 세대론이 사회 갈등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론적 세대담론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미래세대 서베이 관점에서 보는 세대이론의 핵심은 세대문제가 제기하는 정치성과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서울의 미래세대가 동일한 세대적 감수성과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세대 내부의 이질성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세대 서베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가 갖고 있는 내면과 그들의 태도 등을 파악하였다. 서울 미래세대의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보면 10명 중 4명 정도가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38.5%는 행복한 상태, 20.6%는 불행한 상태이다. 주관적 행복감이 수치적으로 낮지는 않으나 구성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세대는 자신들은 '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는 실현가능하다고 믿고 있다(실현가능성에 대해 68%가 대체로 그럴 거라고 응답함). 서울 미래세대는 자신들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미래세대의 기대감은 사실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최근의 청년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는데, 미래세대들은 자신들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 미래세대의 10명 중 6명 이상은 본인 성격이 '동정심이 많다, 다정다감하다'(63.4%), '신뢰할 수 있다, 자기 절제를 잘 한다'(60.1%) 등 긍정적 성격이 절반을 넘었으며, 반면 절반 정도는 '근심 걱정이 많다, 쉽게 흥분하다'(52.3%)고 응답했다. 미래세대가 스스로 긍정적 성격을 가진 집단이라는 인식은 월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600만 원 이상층에서 70% 내외), 가구원수가 5명 이상 함께 사는 상대적으로 가구 수가 많은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판적이고 논쟁을 좋아한다'라는 자기 성격 인식은 직업이 없거나 고학력 집단에서 절반을 넘는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 미래세대 10명 중 7명은 '친구 및 지인을 신뢰할 수 있다'(69.4%)고 하였고, 10명 중 6명은 '친구가 나의 학업과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관계 유지가 어렵다'(64.4%)고 생각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협동해서 일하면 보통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49.8%)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가 편하다'(47.7%)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미래세대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미래세대는 자신의 고민을 부모님과 공유하는 정도가 31.8%, '공유하지 않는다'는 38.8%로 나타났다. 독립기로의 이행기에 있다는 생애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유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세대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미래세대 10명 중 4명 정도(40.9%)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24.5%에 비해 16.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정치적 성향은 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45.5%, 매우 진보적 4.0%+다소 진보적 41.5%), 중도적 정치성향이라고 응답한 미래세대는 10명 중 4명 정도인 39.0%로 나타났다. 10명 중 1~2명 정도인 15.5%(다소 보수적 14.1%+매우 보수적 1.4%)는 스스로 보수성향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지형을 서울 시민 전체와 비교해 보면 미래세대가 갖는 상대적 진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서울 미래세대연구를 통해 이들 세대가 가진 인구경제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서울의 미래세대는 아직 정형화되고 고정화된 집단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세대 간 차별성을 공유하면서도 세대 내 계층 간 이질성도 함께 드러내는 집단이다. 또한 세대 스스로 내면에 혼란스런 정체성이 공존하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서울의 세대연구는 이제 막 출발점에 섰다. 사회변화의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이 어떤 사회적 도전에 맞서야 할지 역시 모호한 상태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래세대연구는 미래세대의 생애사주기에 나타나는 특성과 특정 시기의 사회문화적 환경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코호트적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서울이 도전해야 할 문제들은 물리적 환경 요소보다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 pp.207-248.
- 김태완·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44호, pp.6-19.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49집 제1호, pp.179-212.
- 남기찬·박정호, 2013, “서울 지역의 베이비붐세대 유출과 에코세대 유입의 동태적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3호, pp.73-85.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 20대 트렌드 리포트, 홍익출판사.
- 박길성, 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2집 1호, pp.3-25.
- 박재홍, 2003, “세대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7(3), pp.1-23.
- 서용석, 201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래세대기본법’ 구상”, 『Future Horizon』, 제22호, pp.19-21.
- 우석훈, 2009, “20대와 30대, 사는 게 힘들다”, 미래전략연구원 오감도.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 이명진, 2009, 2030 “정체성과 우리사회의 과제”, 미래전략연구원 오감도.
-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으로, 보도자료.
- 허석재, 2015, “세대연구의 경향과 쟁점”, 『미래정치연구』, 5(1), pp.21-47.
- 현대경제연구원, 2012, 에코부머의 3대 경제난, 『경제주평』, 491, pp.1-13.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How does Korea compare? (<http://www.oecd.org/korea/publicationsdocuments/reports/2/>)
- Pew Research Center, 2010, *Millennials: A Portrait of Generation Next*.
- Tapscott, Don, 2008,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McGraw Hill Professional.
- Taylor, P., 2016, *The next America: Boomers, millennials, and the looming generational showdown*, Public Affairs.

## Abstract

---

### Seoul's Future Generation Report

Miree Byun · Minjin Park · Jinah Kim

#### Summary

Generational problems in Seoul emerged with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 Why do we need to examine the future generation?

Seoul, the national capital of Korea, has been experiencing unprecedentedly rapid, unpredictable changes in demographics, society, and economy. Population aging and low fertility are no longer potential threats but an unavoidable reality. In the midst of such turbulence, generational conflicts arose. In future, when Korea enters a super-aged society, who will support the older generation? Is our future generation, our children and the youth, willing to support their parent and grandparent generations despite growing uncertainties? As the city's vigour weakens, the distribution of the society's limited resources has become a contentious issue. In the process, it is inevitable that generational conflict and discord is revealed through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In the face of growing uncertainties about the future of Seoul,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examine our future generation in an effort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on potential policy demand. A rapid transition to the aged society with limited resources will require unrivalled efforts to harmonize different interests between generations. To respond better to social changes, we need to envisage where our future generation is standing both in subjective and objective perspectives.

**There are mixed discourses about research on generation and sociocultural theories on generation**

Today's research on generation has been conducted through general discourses and sociocultural theories including Karl Mannheim's. There are two different opinions about generation: one is that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of generations are a social phenomenon, which will replace class conflict. Second, a generation is a phenomenon where an original culture is established based on a population cohort a culture of a generation is flexible and variable. Generational problems emerged as we witnessed a distinct generation gap in preferences for candidates in the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Some experts provide that generational differences now lie at the heart of political dynamics, not class differences. In the meantime, others have focused on the generational gap in technological literacy, different communication methods and cultures by generation. Significantly,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opinions about the concept of generation and how it was formed. There are different perspectives of research on generations. Some believe that research on gener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resolving the conflict. Others criticize that such research blurs the essence of the social conflict. In this study, we contend that it is important to grasp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of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find that the future generation of Seoul shares the same culture and generational sentiment, as well as the internal heterogeneity.

**The future generation accounts for 31.3% of the total population in Seoul and has socioeconomic homogeneity as well as heterogeneity**

As the fertility rates have decreased since the 1990s, the child population of Korea has plunged since the 2000s. By 2015, the number of those in their 40s and 50s recorded 16.49 million, accounting for 33.2% of the total population.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those in their 20s was 6,413,832 and that of those in their 30s was 7,394,623, accounting for 12.9% and 14.9%, respectively. The future generation aged between 20 and 39 accounted for 27.8% of the total population. Seoul had a similar population structure with the national one. The future generation in Seoul accounted for 31.3% of the city's population, with 1,403,549 of those in their 20s (14.7%) and 1,591,560 of those in their 30s (16.6%), 3.7% higher than the national number. To look at the marital status of the future generation in Seoul, 98.9% of those aged 20 to 24 and 89.1% of those aged 25 to 29 were unmarried by 2015. For those in their thirties, 56.1% of the people aged 30 to 34 were unmarried. On the other hand, 63.4% of the people aged 35 to 39 were married, almost doubling the number of unmarried people in the same age group (33.7%). In terms of the form of household, a single-person household was most common among the people aged 25 to 29, but a two-person household was common in the other age groups of the future generation.

### **The future generation in Seoul has optimistic dreams as well as concerns about the current status**

We asked the future generation in Seoul to rate how happy they felt and four out of ten responded they were neither happy nor unhappy. About 38.5% said they were happy, and 20.6% provided that they were unhappy. Their subjective level of happiness was not low, but to look closer, the future generation had low satisfaction in their current status. Nevertheless, this generation had "dreams" they wanted to achieve in their lives and they were also optimistic about their future. About 68%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ould be able to achieve their dreams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achieving their dreams, they believed that it would be significant to have good personal connections. This belief can be analysed both from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The future generation also regarded the government's support as second most important for their dreams, which might reflect our society's attention to the youth. To be more specific, women rather than

men, married people rather than unmarried people, and those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and at the age of 35 to 39 tended to expect more support from the public sector.

According to our survey, it transpired that the future generation in Seoul wanted to have more romantic relationships, a spouse, and children than having their own houses and decent jobs. To be sure, there were differences by social class. Moreover, 51.3%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not sure about what they really want. About 60% of them were confident about their capabilities, but 59% of them had fear of failure as well. Nine out of ten young people (88.5%) responded that they were stressed out. This is noticeable because the number one death cause of Koreans in their 10s to 30s was suicide in 2015.

**The most distinctive trait of the future generation regarding their mind and sentiment: hybridity**

More than six out of ten young people described themselves as “sympathetic and kind (63.4%)” and “trustworthy and self-disciplined (60.1%).” On the other hand, about half of them said they were “anxious and easily upset (52.3%).” Those who have higher income (more than KRW 6 million per month) and more than five family members tended to describe themselves positively (about 70% of such groups). In the meantime, more than half of the young people who have no jobs or those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perceived themselves as “critical and contentious.”

Seven out of ten people (69.4%) asserted they can trust their friends and acquaintances. On the other hand, six out of ten people (64.4%) provided that, “If a friend has a negative influence on my study and job-hunting, it would be difficult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About half of the youth (49.8%) believed that “cooperation would bring about a better result.” However, another half (47.7%) said “they preferred being alone to being with other people.”

The future generation in Seoul tended to turn to different aid when they were in trouble. They asked for help from the family members

living with them when they had financial problems (51.6%), a health issue (48.8%), housekeeping and childcare difficulties (45.6%), and cases of emergency or disasters (38.4%). On the other hand, when they ha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44.5% of the respondents turned to their friends. On the question of their idea of successful life, 40.7% of the respondents chose “having a happy family,” and 20.1% said “financial success.” This clearly indicates that there is a duality in the dreams of the future generation.

### **The future generation in Seoul is still under the influence of their family, but has a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What does family mean to the future generation? On the question whether they share their troubles with their parents, 31.8% said “yes,” but 38.8% said “no.” This result clearly provide that this generation is at the period of transition to independent adulthood. However, it is still im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future generation has weak family relationships. According to our survey, the future generation was still influenced by their parents in decision-making. About four out of ten (40.9%) said their parents had an influence on their decisions, which is 16.4%p higher than those who said the opposite (24.5%).

We also asked the future generation what might affect important decisions in Korean society. The future generation gave the highest scores on the scale of five to “personal connections from school ties, kinship and hometown (4.15 point)” and “external pressure or personal ties (4.15).” These were followed by “biases and emotions of decision makers (4.07),” “volatile criteria (3.87),” “no consideration of the opinions of those who are influenced by a certain decision (3.57),” and “lack of information (3.35).” To conclude, the future generation in Seoul thinks that external factors such as personal connections and background have a great influence on decision-making in Korean society.

In terms of political orientation, less than half of the future generation (45.5%) regarded themselves as “progressive,” with 4%

of those who responded “very progressive” and 41.5% of “rather progressive” combined. Four out of ten young people (39%) provided they were “centrist”, and about two out of ten people (15.5%) said they were “conservative” (rather conservative, 14.1% and very conservative, 1.4%). Compared to the whole citizens’ political orientation, the future generation can be seen to be more progressive in general(ambiguity). According to the 2016 Seoul Survey, 38.2% of the Seoul citizens were progressive, 32.1% were conservative and 29.7%, centrist. On the question of responsibilities of good citizens, the future generation gave the highest score of 4.52 points on the scale of five to “participate in election,” followed by “pay the taxes (4.37),” “observe law and order (4.29),” “keep watch on the government (4.00),” and “try to embrace different opinions (3.96).”



## Contents

---

### 01. What is the Future Generation Survey?

- 1\_Meaning of research on generation
- 2\_Theories on generations
- 3\_Future Generation Survey

### 02. Demographic and Economic Traits of the Future Generation in Seoul

- 1\_Population cohort-related traits
- 2\_Regional and spatial traits
- 3\_Economic and social traits

### 03. Happiness and Dreams of the Future Generation in Seoul

- 1\_Happiness of the future generation
- 2\_Dreams of the future generation

### 04. Mind and Sentiment of the Future Generation in Seoul

- 1\_Characters of the future generation
- 2\_Problem solving methods of the future generation

### 05. Networks, Participa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Future Generation in Seoul

- 1\_Relationships with the older generation
- 2\_Political participation

### 06. Closing Remarks

---

서울연 2017-BR-10

## 서울 미래세대 리포트

꿈과 현실, 그리고 정치의식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7년 9월 30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247-4 9333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